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 <서사적 논설>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배　　정　　상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 <서사적 논설>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

지도 김 영 민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배 정 상

배정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년 6월 일

차　　례

[국문 요약] ·· ii

Ⅰ. 서론 ·· 1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1
2. 연구방법 및 대상 ·· 3

Ⅱ. □독립신문□의 근대적 특성과 그 의미 ·· 6

1. 공공영역으로서의 신문과 근대적 독자의 탄생 ·· 6
2. 신문이라는 제도의 확립 ·· 11

Ⅲ.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성격과 서술 방식 ·· 19

1. <독자투고>의 존재와 그 성격 ·· 19
2. 기사 취재 원칙과 <독자투고> ·· 25
3. <독자투고>의 서술자와 '전언'의 방식 ·· 31
   3-1. 논설란의 <독자투고> ·· 35
   3-2. 잡보란의 <독자투고> ·· 41

Ⅳ. □독립신문□ <서사적 논설>의 서술 방식 ·· 47

1.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이야기 ·· 47
2. 기획된 정보로서의 이야기 ·· 62
3. 문답·토론식 구성의 효율성 ·· 69

Ⅳ. 결론 ·· 77

[참고문헌] ·· 81
[abstract] ·· 85

국 문 요 약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 <서사적 논설>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 신문에 실린 단형서사문학은 전통적인 서사 양식을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담아낸 문학적 글쓰기이다. 이 시기 단형서사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라는 매체 안의 다양한 형식적 실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을 주 텍스트로 삼고, 『독립신문』이 갖고 있던 매체적 특성이 이 시기 글쓰기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살피고자 했다. 특히 <독자투고>라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신문이라는 매체가 '소문'을 '정보'로 유통시키는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독자투고>와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의 한 양식인 <서사적 논설>과의 관련 양상을 서술 방식을 통해 다루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은 근대계몽기 <서사적 논설>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다.

『독립신문』은 한글전용을 실시하여 상하귀천이 없는 '조선 전국의 인민'을 독자로 삼고 있으며, 수평적 의사소통구조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독립신문』은 사실을 전달한다는 매체적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의 계몽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때 『독립신문』의 계몽적 언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주의에 기반한다.

『독립신문』은 당시 기사취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자투고>는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사건과 소식들을 다루

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여론을 수렴하는 공공영역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또한 <독자투고>는 이 시기 독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독자에게 구체적인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계몽적 글쓰기였다.

『독립신문』의 기사는 주로 '소문(所聞)'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독립신문』이 다루는 이야기가 단지 '소문'의 차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독자투고>이다. 당시의 기사 취재 여건에서 <독자투고>는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단지 '들은 바' 그대로의 이야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실만을 이야기 한다는 『독립신문』의 주의는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유지될 수 있었다. <독자투고>의 서술자는 '소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전언'의 사실성 부각시킴으로써 '소문'을 '칭찬' 또는 '징계'가 되는 유용한 '정보'로 전달할 수 있었다. <독자투고>의 서술자는 '전언'의 사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논설・잡보란의 기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부각시키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준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과정은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의 한 양식인 <서사적 논설>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와 <서사적 논설>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주로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액자식 구성은 <독자투고>와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발화-내부의 이야기', '내부의 이야기-서술자의 발화', '서술자의 발화-내부의 이야기-서술자의 발화'의 세 가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구조는 서술자가 내부의 이야기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 속에 담아내는 방식이다. 서술자는 이야기의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내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전언(傳言)'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매체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야기의 허구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서사적 논

설>의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전언'이라는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소문'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독자투고>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칭찬' 또는 '징계'가 되는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서 유통시키고 있다. <서사적 논설> 역시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유용한 '정보'로 재단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술자의 태도와 서술 방식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서술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서술하며,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매체적 사실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당면한 구체적인 현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문답·토론식 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서술자가 의도하는 바를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대신 제시하는 서술 방식이다. 이러한 특성은 <독자투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독자투고> 역시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발화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는 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전달을 위해 '전언'의 방식은 물론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등장인물의 발화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효과적인 서술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편집자의 일방적인 발화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논설과는 달리 서사·문학적 특성을 가진 글이다. 또한 일반적인 논설과는 달리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 매체의 논설란에서 서사·문학적 글쓰기가 쓰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서술자의 역할이 컸다.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서사적 이야기의 작가이기 이전에 신문 매체의 특성을 갖는 편집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

라서 서술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자 했고, '전언'의 방식은 <서사적 논설>의 허구적인 요소까지도 논설란 안에 포섭하는 중요한 형식적 장치가 되었다. <독자투고>는 '전언'의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쓰기 방식이며, <서사적 논설>의 양식적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핵심되는 말 : 독립신문, 독자투고, 서사적 논설, 매체, 의사소통, 서술자, 전언, 소문, 정보

Ⅰ.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을 대상으로 신문 매체의 특성이 이 시기 글쓰기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데 있다. 특히 『독립신문』의 매체적 특성과 <독자투고>라는 글쓰기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근대계몽기 문학 양식인 <서사적 논설>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근대계몽기 신문에 실린 <서사적 논설>은 전통적인 서사 양식을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담아낸 문학적 글쓰기이다. 따라서 <서사적 논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문이라는 매체 안의 다양한 형식적 실험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근대계몽기,[1] 즉 19세기 말~1910년은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근대계몽기의 신문이나 잡지 등의 자료를 통해 텍스트의 지평을 넓히고, 자료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접근으로 이 시기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이식'과 '자생'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나 근대계몽기가 갖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풍성하게 복원해 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영민은 근대계몽기 신문 자료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서사적 논설>과 <논설적 서사>라는 용어를 정립시키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한문 단편과 신소설 사이의 거리를 메우고자 했다.[2] 정선태는 근대계몽기 신문의 논설란에 주목하여, 서사적 이야기의 수용 양상과 특질을 분석하고 있다.[3] 김동식은 문학 개념이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관념의 체계라는 관

1) 19세기 말에서 1910년까지의 시기는 개화기, 애국계몽기, 근대계몽기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시기이다. 고미숙은 최원식의 '애국계몽기'라는 명칭에 의의를 제기하며 시기적 협소함과 정치적 독법에서 벗어나 이 시기 담론들의 심층의 근저에 작동하는 '새로운 인식론적 배치'에 주목하기 위해 1894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를 '근대계몽기'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본고에서는 고미숙의 관점을 따라 '근대계몽기'란 용어를 사용함을 밝힌다. 고미숙,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족문학사연구 14』, 1999.

2) 김영민, 『근대소설사』, 솔, 1997.

점에서 근대적 문학 개념의 성립과정을 개념사 연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4] 한기형은 출판·유통상황과 같은 서사문학의 사회적 환경을 토대로 근대 초기 신문의 '단편서사물'을 신소설 형성의 양식적인 기반으로 파악하고 있다.[5] 권보드래는 근대를 그 자체로 끊임없이 갱신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1900년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구성하여 1900년대의 문학적 지형도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복원하고자 했다.[6] 황호덕은 근대 자국어 문학과 근대 네이션의 결합이 하나의 역사적 이데올로기로서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7] 천정환은 1920년대와 30년대 소설 독자를 대상으로 소설 수용의 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를 사회적·문화적 맥락 하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8]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근대계몽기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이 갖는 함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근대계몽기 신문에 실려 있는 단형서사문학은 신문이라는 미디어(media)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근대적 의사소통 구조와 신문의 기사 취재의 과정은 당시의 서술자가 어떠한 태도를 통해 독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의 계몽의 기획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이 어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쓰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평가받는 『독립신문』을 대상으로 신문의 매체적 특성과 <독자투고>라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근대계몽기의 중요한 문학 양식이었던 <서사적 논설>을 이해하는데 유효한 근거가 될 것이다.

---

3)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9.

4)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 1999.

5)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6) 권보드래, 『한국 근대의 '소설'범주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2000.

7) 황호덕, 『한국 근대 형성기의 문장 배치와 국문 담론』, 성균관대 박사, 2002.

8) 천정환, 『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2002.; 이 보다 이른 시기에 발표 된 근대계몽기 독자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홍정선의 연구가 있다. 홍정선은 전통적인 시 형식이 붕괴하고 자유시형이 성립하는 과정을 수용미학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홍정선, 『근대시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독자층의 역할 연구』, 서울대 박사, 1992.

그 이외에도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채백과 서순화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각각 언론학과 사학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주로 정치・사회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독립신문』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채백은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를 통해, 당시의 신문보급 상황이나 독자층 구성, 그리고 당시 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언론에 관한 인식 등을 살피고 있다.[9] 또한 서순화는 역사학의 입장에서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를 통계 처리하고, 당시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읽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10] 이들의 연구는 비록 본 논문의 직접적인 주제와 거리가 멀지만, 당시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읽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신문 매체의 특성과 <독자투고>라는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신문 매체의 문학적 글쓰기가 어떠한 기반위에서 쓰일 수 있었는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의 문학적 글쓰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와 <서사적 논설>과의 관련 양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독립신문』의 <독자투고>가 지니는 근대적 성격과 서술 방식을 따져보고, 이러한 특성이 『독립신문』 소재 <서사적 논설>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립신문』은 몇 가지 부분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독립신문』은 의사소통양식을 변화시키고, 공공영역으로서의 신문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11]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든 최초의 민간지로 공공영역에서 의사소통의 매개를 자처한다. 특히, 『독립신문』은 『한성순보』, 『한성주보』와는 달리 계층적 차별이 없는 '조선 인민' 전체를 독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9) 채 백,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3호』, 1994.

10)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 박사, 1996.

11) 의사소통양식의 변화와 공공영역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김동식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 1999, 8~23쪽.

이러한 정부와 백성 사이의 수평적 의사소통양식은 기사 서술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둘째, 『독립신문』은 <독자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독자층을 일반 백성에까지 확산시키고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독자투고>는 독자들의 구체적인 사연들을 제시함으로써, 실감의 차원에서 좀더 효과적인 계몽의 방식이었다. <독자투고>는 당시의 독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아니라 신문 기사의 서술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독립신문』은 사실과 허구의 영역이 분리되고, 신문 안에서 '소설란'이 분화되기 전의 문학적 글쓰기가 신문 매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독립신문』이 사실만을 전달하겠다는 주의에 기반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 확립되는 과정은 '소문'을 어떻게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 유통시키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허구적 창작물인 <서사적 논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논설란에 쓰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독립신문』의 한글 전용과 제도화 과정은 근대계몽기의 문학적 글쓰기 양식인 <서사적 논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독자투고>라는 글쓰기 방식은 <서사적 논설>의 구조와 서술자의 태도나 역할과 매우 유사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와 <서사적 논설>과의 관련 양상을 살피려고 한다.

Ⅱ장에서는 우선 『독립신문』의 근대적 특성과 그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독립신문』의 창간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독자는 과연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당시의 의사소통 체계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는 과정을 통해 신문이 어떠한 특성을 근거로 공론장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의 존재 양상을 밝히고, 그 성격을 추출하려고 한다. 특히, 당시의 신문 기사는 어떠한 원칙으로 취재되고 있었는지, 취재된 사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러한 특성을 지닌 <독자투고>가 논설란과 잡보란에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서술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묻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신문이란 매체의 특성과 <독자투고>라는 글쓰기를 통해 <서사적 논설>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서사적 논설>은 일반적 기사와는 달리 서사적 또는 문학적 특성을 지닌 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이 왜, 어떻게 신문이라는 매체안에서 그것도 논설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서사적 논설>이 필연적으로 신문이란 매체의 속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Ⅱ. 『독립신문』의 근대적 특성과 그 의미

1. 공공영역으로서의 신문과 근대적 독자의 탄생

‘독자(讀者)’라는 개념을 폭넓게 사용한다면, ‘독자’는 모든 문자 텍스트가 상정하는 수용자 일반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독자의 기원을 찾는 일은 꽤나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근대적 독자의 기원은 신문 매체의 탄생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다. 근대적인 독자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인쇄·출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독서행위의 주체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계층적 구분이 없는 단일한 수용자 일반을 말한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근대적인 독자는 근대적 인쇄·출판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텍스트가 단일한 수용자 일반을 상정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독자는 출판·인쇄 문화가 발달하고, 그 대상을 계층적 구분 없는 ‘조선 전국의 인민’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근대계몽기 한글 신문 중 『독립신문』의 독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이 발간되기 전까지, 인쇄 매체의 독자는 계층적인 구분으로 인해 통합되지 못한 상태였다. 한자 중심의 지배계급이 전통적 신문인 <관보>의 독자이자 야담 또는 한문 단편의 주된 독자였다고 말한다면, 국문 중심의 일반 하층 독자들은 한글 고소설의 주된 독자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은 한글전용 글쓰기를 채택하고, 계층적 구분이 없는 독자 일반을 향한 발화를 시작했다.[12] 특히,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한글을 공적 담론을 담을 수 있는 문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그 대상 독자를 ‘상하귀천’이 없는

---

12) 김동식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쇄술은 정보양식과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를 초래했고,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는 공동체의 담론의 틀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킨다. 공공영역 내부에서 수행되는 의사소통은 사회에 대한 체계적 이미지를 각각의 개인에게 배분한다. 달리 말하면 공공영역의 의사소통은 의식 속에서 인간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의식에 의해서 재구성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행위가 이 지점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사회전체를 향한 새로운 의사소통양식>(New Mode of Communication for Society as a whole)이라 한다.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이미지를 의식 속에 구성하고, 그리한 관념에 입각해서 사회전체를 향해 말을 한다는 생각은 근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역사적인 변화이다.”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 21~22쪽.

국민 일반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할 때, 신문이라는 공적 인쇄 매체의 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신문(newspaper) 매체는 17세기 이후 상공업과 화폐 경제의 발달을 기반으로, 서구 문명의 이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욕구가 확대되면서 탄생하였다.[13] 초기의 신문은 주로 승정원에서 처결된 일을 기록 발행한 것으로, 조칙(詔勅), 장주(章奏), 묘당(廟堂)의 결의사항, 서임사령(敍任辭令), 지방관의 장계(狀啓) 등을 기록한 관보 성격의 <조보>가 있었다.[14]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한성순보(1883)』와 그것의 속간 형태로 발간된 『한성주보(1886)』이다. 이 신문들은 근대적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외국의 소식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하였는데, 한자 또는 국한문체를 선택하여 주 독자층을 정부 고위관리 또는 지방 관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감독하여 발간하였으므로 일반 백성들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신문의 역사적 의의는 다양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신문의 탄생은 하나의 국가 안에서 국민상호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독립신문(1896)』은 최초의 민간지라는 수식어를 포함하여, 최초로 한글전용을 실시하여 독자층을 일반 백성에까지 널리 확장시키고 백성의 소식까지 폭넓게 담고자 노력하였다.

『독립신문』은 『한성순보』나 『한성주보』가 가지고 있던 상의하달(上意下達)식의 의사소통구조를 하의상달(下意上達)을 포함하는 양방향식 의사소통 구조로 바꾸었다. 조선조에 이미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존재하였는데, 하의상달 방식에는 신문고와 상소 등이 있었고, 상의하달 방식에는 조보와 방, 벽서, 괘서 등이 있었다.[15] 하지만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종적 구조의 일방적 의사전달이었을 뿐, 정부와 백성 사이의 횡적 의사소통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한성순보』나 『한성주보』 역시 많은 부분 근대적 신문으로서의 발전을 꾀했으나 상의하달식의 일방적 의사소통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독립신문』은 이러한 전근대적 의사

13) 채백, 『신문』, 대원사, 2003, 12~17쪽.

14) 한원영, 『한국신문 한세기』, 푸른사상, 2002, 22~23쪽.

15) 이상철, 『커뮤니케이션 발달사』, 일지사, 1982, 138~141쪽.

소통 구조를 정부와 백성, 독자와 독자 사이의 횡적 구조로 바꾸고, 그 안에서 공적 담론들을 담아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자처한다. 이러한 주의는 『독립신문』의 창간 목표와도 일치한다.

> 우리는 쳣ᄌᆡ 편벽 되지 아니ᄒᆞᆫ고로 무ᄉᆞᆷ 당에도 상관이 업고 상하귀쳔을 달니ᄃᆡ졉 아니ᄒᆞ고 모도죠션 ᄉᆞᄅᆞᆷ으로만 알고 죠션만 위ᄒᆞ며공평이 인민의게 말 ᄒᆞᆯ터인ᄃᆡ 우리가 셔울 ᄇᆡᆨ셩만 위ᄒᆞᆯ게 아니라 죠션전국인민을 위ᄒᆞ여 무ᄉᆞᆷ일이든지 ᄃᆡ언ᄒᆞ여 주랴ᄒᆞᆷ 정부에셔 ᄒᆞ시ᄂᆞᆫ일을 ᄇᆡᆨ셩의게 젼ᄒᆞᆯ터이요 ᄇᆡᆨ셩의 졍셰을 졍부에 젼ᄒᆞᆯ터이니 말일 ᄇᆡᆨ셩이 졍부일을 자세이 아시면 피ᄎᆞ에 유익한 일만히 잇ᄉᆞᆯ터이요 불평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의심ᄒᆞᄂᆞᆫ ᄉᆡᆼ각이 업서질 터이ᄋᆞᆷ16)

『독립신문』은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고 다만 상하귀천을 나누지 않으며, 조선만 위하여 공평하게 '조선 전국의 인민'들의 의사를 대언(代言)하려고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하여 정부와 백성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의는 『독립신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서술하고, 정부와 백성을 매개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취하며, 또한 정부와 백성이 『독립신문』이란 매체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ᄅᆡ일이 졍월 쵸 ᄒᆞ로날인즉 우리가 올 ᄎᆡᆨ쟝을 덥기 젼에 우리 친구의게 일년 동안 고호 ᄒᆞ야 준 일을 치하 ᄒᆞ고 ᄇᆞ라기를 죠션 졍부와 인민과 우리 독립신문샤 ᄉᆞ이에 지금 잇ᄂᆞᆫ 친밀ᄒᆞᆫ 의가 졈졈더 깁허 우리를 죠션 친구로 알고 ᄯᅩ 우리ᄂᆞᆫ 언제던지 죠션만 위 ᄒᆞ야 일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으로 알아 주기를 밋ᄂᆞ라17)

위의 글은 『독립신문』이 1896년 12월 31일 한 해 동안의 일을 정리하면서 뒤에 맺은 말이다. 특징적인 것은 분명히 『독립신문』이 크게 조선이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와 인민 사이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하는 또 하나의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은 그들이 상정하는 독자를 넓게 보

16) 『독립신문』, 1896.4.7, <논설>

17) 『독립신문』, 1896.12.31, <논설>

아 '조선 전국의 인민(人民)'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 안의 구성원이며,[18] 이것은 계층적으로 정부와 백성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정부는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 즉 한자 문화에 더욱 익숙한 지식인 계층을, 백성은 한글 사용에 더욱 익숙한 서민 계층을 말한다. 『독립신문』은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와 백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계층간의 벽을 허물며, 독자와 독자 사이의 원만한 의사소통의 매개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도는 다양한 방식의 비유를 통해 서술되고 있는데, 정부와 백성을 '골'과 '이목구비와 사지'로 비유하거나[19] '시계의 부속'[20]으로 비유하여 각각이 서로의 직무를 다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독립신문』은 정부와 백성을 포함하는 독자 일반을 향하여 중립적인 발화를 하고자 했다.

『독립신문』의 이러한 주의는 편집란의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신문』의 구성은 주로 논설, 관보, 잡보, 광고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관보는 정부의 소식을, 잡보는 일반 백성들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독립신문』은 정부와 일반 백성의 소식을 소통 가능케 하는 새로운 의사소통 구조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양식의 변화는 무엇보다 한글전용 글쓰기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한자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지식인 계층과 한글로 대표되는 일반 백성의 계층적 차이를 극복하여 '조선 전국의 인민'을 향한 발화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한글을 공적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자로 격상시키고, 일반 대중 독자를 공적 담론의 장 안으로 널리 포섭할 수 있게 하였다. 『독립신문』이 가진 한글 선택의 논리는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샹하귀쳔이 다보게 홈이라

18) 황호덕은 『독립신문』의 독자 설정을 현실적인 동시에 이상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독립신문』은 항상 '전국 인민'이라는 말을 네이션에 비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파를 초월해 상하귀천, 남녀노소가 하나라는 것을 매 문장마다에 각인하려 노력했다"고 말한다. 황호덕, 『한국 근대 형성기의 문장 배치와 국문 담론』, 성균관대 박사, 2002, 317쪽.

19) 『독립신문』, 1897.8.3, <논설>

20) 『독립신문』, 1898.3.3, <논설>

또 국문을 이리케 쉬절을 떼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세이 알어 보게 홈이라 각국에셔는 사룸들이 남녀 무론호고 본국 국문을 몬저빅화 능통호 후에야 외국 글을 빅오는 법인디 죠션셔는 죠션 국문은 아니 빅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호는 싸둙에 국문을 잘아는 사룸이 드물미라 죠션 국문호고 한문호고 비교호여 보면 죠션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호니 첫지는 빅호기가 쉬흔이됴흔 글이요 둘지는 이글이 죠션글이니 죠션 인민 들이 알어셔 빅스을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샹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어보기가 쉬흘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호고 국문은 폐호 싸둙에 국문으로 쓴건 죠션 인민이 도로혀 잘 아러보지 못호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호리요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쳣지는 말마디을 쎄이지 아니호고 그져 줄줄 닉려 쓰는 싸둙에 글주가 우희부터는지 아릭부터는지 몰나셔 몃번 일거 본후에야 글주가 어디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호쟝을 보자호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듸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조아니 쓴는고로 셔툴어셔 잘못봄이라 그런고로 정부에셔 닉리는 명녕과 국가 문젹을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못호는 인민은 나모 말만 듯고 무숨 명녕인줄 알고 이편이 친이 그글을 못 보니 그사룸은 무단이 병신이 됨이라 한문 못 혼다고 그사룸이 무식혼사룸이 아니라 국문만 잘호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잇스면 그사룸은 한문만호고 다른 물졍과 학문이 업는 사룸 보다 유식호고 놉흔 사룸이 되는 법이라 죠션 부인네도 국문을 잘호고 각식 물졍과 학문을 빅화 소견이 놉고 힝실이 졍직호면 무론 빈부 귀천 간에 그부인이 한문은 잘호고도 다른 것 몰으는 귀족 남즈 보다 놉흔 사룸이 되는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귀천을 다름업시 이신문을 보고 외국물졍과 닉지 스졍을 알게 호랴는 뜻시니 남녀 노소 샹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호로 걸너 몃돌간 보면 새지각과 새학문이 싱길걸 미리 아노라[21]

『독립신문』이 한글 글쓰기를 실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상하귀천'이 다 볼 수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논리를 보면 한글은 우선 배우기가 쉽고, 조선의 글이니 상하귀천의 모든 백성이 알아보기가 쉽다. 또한 정부가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쓰니 한문 모르는 백성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밖에도 한글 전용에 대한 『독립신문』의 노력은 당시 배재 학당 학원 주상호(주시경)의 국문론[22]과 표기법의 통일에 관한 윤치호의 투고 기사와 그에

21) 『독립신문』, 1896.4.7, <논설>

22) 『독립신문』, 1897.4.22,; 1897.4.24, <논설>

대한 논평[23], 국문의 효용성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으므로 국문 옥편을 만들고 띄어쓰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설,[24] 국문 선택의 정당성에 대한 독립협회의 토론회 기사[25]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독립신문』의 한글 전용은 상하귀천 없이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국문 독자들을 공적 담론의 장 안으로 포섭할 수 있었고, 정부와 백성, 독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문이라는 공론장의 탄생은 인쇄·출판 양식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계층적 구별이 없는 단일한 민족어를 사용하는 근대적 독자를 만들어내었다.

2. 신문이라는 제도의 확립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을 중심으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이때 『독립신문』의 편집진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 중의 하나는 신문이란 매체를 알리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었다.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정부와 백성 모두의 소식을 공정하게 반영하겠다는 『독립신문』은 무엇보다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제도로서 확립시켜야 했다. 당시의 사정에서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독립신문』의 편집자들이 선행해야 했던 일은 그들이 상정한 대상 독자에게 신문이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기반으로 해야만 이 새로운 매체는 독자를 확보하고, 그들이 구상했던 목표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신문의 탄생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종이와 인쇄기술, 우편제도, 화폐 경제, 교통, 전신 등의 급속한 발달은 근대적 신문의 탄생에 풍부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정치적 배경은 차치하고 우선 『독립신문』의 편집진이

23) 『독립신문』, 1897.5.27, <잡보>

24) 『독립신문』, 1897.8.5, <논설>

25) 『독립신문』, 1897.10.23, <잡보>

가지고 있었던 신문 매체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다음은 『독립신문』 창간호부터 제 7호인 1896년 4월 21일까지 일면 머리부분에 실린 광고이다.

> 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졍을 자셰히 긔록ᄒᆞᆯ터이요 졍부속과 민간 소문을 다보고 ᄒᆞᆯ터이라 졍치샹일과 농ᄉᆞ 쟝ᄉᆞ 의술샹 일을 얼만콤식 이 신문샹 ᄆᆡ일 긔록홈 갑슨 일년에 일원삼십젼 ᄒᆞᆫ돌에 십이젼 한쟝에 동젼 ᄒᆞᆫ푼 독닙신문 분국이 졔물포 원산 부산 파주 숑도 평양 슈원 강화 등지에 잇더라 신문을 ᄃᆞᆯ노졍ᄒᆞ든지 일년간으로 졍ᄒᆞ여 사보고스분이는 졍동 독닙신문샤로 와셔 돈을 미리내고 셩명과 집이 어ᄃᆡ라고 적어 노코 가면 ᄒᆞ로걸어 신문을 보내줄터이니 신문 보고 스분이는 속히 셩명을 보내기 ᄇᆞ라옴 무론 누구든지 무러볼 말이 잇든지 셰샹사ᄅᆞᆷ의게 ᄒᆞ고스분말잇ᄉᆞ면 이 신문샤로 간단ᄒᆞ게 귀졀ᄯᅦ여셔 편지ᄒᆞ면 ᄃᆡ답ᄒᆞᆯ만ᄒᆞᆫ말이든지 신문에 낼만ᄒᆞᆫ 말이면 ᄃᆡ답ᄒᆞᆯ터이요 내기도 ᄒᆞᆯ터이옴 한문으로ᄒᆞᆫ 편지는 당초에 샹관아니ᄒᆞᆷ 경향간에 무론 누구든지 길거리에셔 쟝ᄉᆞᄒᆞ는이 이신문을 가져다가 노코 팔고져 ᄒᆞ거든 여긔와서 신문을 가져다가 팔면 열장에 여돌쟝만 세음ᄒᆞ고 ᄇᆡᆨ쟝에 여든쟝만 세음ᄒᆞᆷ[26]

위 광고는 8호부터 간략하게 축소되어 28호까지 일면 상단에 지속적으로 게재되는데, 당시 신문 매체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독립신문』은 신문이란 매체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문이란 매체는 정부와 민간의 소문을 보고하고, 정치·농사·장사·의술 등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며, 세상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투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문으로 보낸 편지는 받지 않겠다며 한문 글쓰기를 배제하고, 이 신문을 팔아 장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독립신문』은 신문이란 매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신문이란 매체를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은 『독립신문』의 창간호 논설인데, 이 글은 『독립신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

26) 『독립신문』, 1896.4.7, <광고>

우리가 독닙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츌판ᄒᆞᄂᆞᆫᄃᆡ 조션속에 잇ᄂᆞᆫ ᄂᆡ외국 인민의게 우리 쥬의를 미리 말솜ᄒᆞ여 아시게 ᄒᆞ노라 우리는 첫ᄌᆡ 편벽 되지 아니ᄒᆞᆫ고로 무숨 당에도 상관이 업고 상하귀쳔을 달니ᄃᆡ졉아니ᄒᆞ고 모도죠션 사ᄅᆞᆷ으로만 알고 죠션만 위ᄒᆞ며공평이 인민의게 말 ᄒᆞᆯ터인ᄃᆡ 우리가 셔울 ᄇᆡᆨ셩만 위ᄒᆞᆯ게 아니라 죠션만 위ᄒᆞ며공평이 인민의게 말 ᄒᆞᆯ터인ᄃᆡ 우리가 셔울 ᄇᆡᆨ셩만 위할게 아니라 죠션젼국인민을 위ᄒᆞ여 무숨 일이든지 ᄃᆡ언ᄒᆞ여 주라홈 정부에셔 ᄒᆞ시ᄂᆞᆫ일을 ᄇᆡᆨ셩의게 젼ᄒᆞᆯ터이요 ᄇᆡᆨ셩의 정셰을 정부에 젼ᄒᆞᆯ터이니 만일 ᄇᆡᆨ셩이 정부일을 자세이알고 정부에셔 ᄇᆡᆨ셩에 일을 자세이 아시면 피ᄎᆞ에 유익ᄒᆞᆫ 일만히 잇슬터이요 불평ᄒᆞᆫ ᄆᆞ옴과 의심ᄒᆞᄂᆞᆫ ᄉᆡᆼ각이 업서질 터이옴 우리가 이신문 출판 ᄒᆞ기ᄂᆞᆫ 취리ᄒᆞ랴ᄂᆞᆫ게 아닌고로 갑슬 헐허도록 ᄒᆞ엿고 모도 언문으로 쓰기ᄂᆞᆫ 남녀 샹하귀쳔이모도 보게홈이요 ᄯᅩ 귀졀을 ᄯᅦ여 쓰기ᄂᆞᆫ 알어보기 쉽도록 홈이라 우리ᄂᆞᆫ 바른 ᄃᆡ로만 신문을 ᄒᆞᆯ터인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ᄒᆞᄂᆞᆫ이 잇스면 우리가 말ᄒᆞᆯ터이요 탐관오리 들을 알면 셰샹에 그사ᄅᆞᆷ의 ᄒᆡᆼ적을 폐일터이요 ᄉᆞᄉᆞᄇᆡᆨ셩이라도 무법ᄒᆞᆫ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우리가 차저 신문에 셜명ᄒᆞᆯ터이옴 우리ᄂᆞᆫ 죠션 대군쥬폐하와 됴션정부와 죠션인민을 위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드린고로 편당잇ᄂᆞᆫ 의논이든지 ᄒᆞᆫ쪽만 ᄉᆡᆼ각코 ᄒᆞᄂᆞᆫ 말은 우리 신문샹에 업실터이옴 ᄯᅩ ᄒᆞᆫ쪽에 영문으로 기록ᄒᆞ기ᄂᆞᆫ 외국인민이 죠션 ᄉᆞ정을 자셰이몰은즉 혹 편벽 된 말만 듯고 죠션을 잘못 ᄉᆡᆼ각ᄒᆞᆯᄭᅡ 보아 실샹 ᄉᆞ정을 알게ᄒᆞ고져ᄒᆞ여 영문으로 조곰 긔록홈 그리ᄒᆞᆫ즉 이신문은 ᄯᅩᆨ 죠션만 위홈을 가히 알터이요 이신문을 인연ᄒᆞ여 ᄂᆡ외 남녀 샹하 귀쳔이 모도 죠션일을 서로알터이옴 우리가 ᄯᅩ 외국 사정도 죠션 인민을 위ᄒᆞ여 간간이 긔록ᄒᆞᆯ터이니 그걸 인연ᄒᆞ여 외국은 가지 못ᄒᆞ드러도 죠션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터이옴 오날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쥬의만 셰샹에 고ᄒᆞ고 우리신문을 보면 죠션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홈을 밋노라 논셜ᄯᅳᆺ치기젼에 우리가 대군쥬 폐하ᄭᅴ 송덕ᄒᆞ고 만세을 부르ᄂᆞ이다"[27]

위 논설에서 『독립신문』은 조선 전국의 인민을 위하여 정부의 일을 백성에게 백성의 일을 정부에게 전달하여 줄 것인데, 이익을 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므로 값을 적게 받고, 모두 한글로 써서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바른 말만 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백성의 잘못을 일깨우며,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에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외국의 사정도 기록하겠다고 말한다. 『독립신문』의 편집자는 신문이란 조선을 위하여 공정하게 정부와 백성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며, 정부를 비판하며 백성을 일깨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독립신

27) 『독립신문』, 1896.4.7, <논설>

문』이 그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후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신문이란 어떤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거슨 ᄒᆞᆫ사ᄅᆞᆷ을 위 ᄒᆞ여셔 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요 ᄒᆞᆫ 사ᄅᆞᆷ을 미워 ᄒᆞ여셔 ᄒᆞᄂᆞᆫ거시 아니라 젼국 인민과 외국 사ᄅᆞᆷ들 ᄭᆞ지라도 위 ᄒᆞ야 ᄒᆞᄂᆞᆫ거신ᄃᆡ 셜령 신문이 누구를 시비를 ᄒᆞ더ᄅᆡ도 그 사ᄅᆞᆷ이 미워 ᄒᆞᄂᆞᆫ거시 아니라 그 사ᄅᆞᆷ ᄒᆞ나가 잘 못 ᄒᆞᆫ ᄭᆞᄃᆞᆰ에 여러 사ᄅᆞᆷ들이 ᄒᆡ를 입ᄂᆞᆫ 고로 그 여러 불샹히 넉혀 그 ᄒᆞᆫ 사ᄅᆞᆷ이 잘못 ᄒᆞᆫ거슬 ᄀᆡ직 ᄒᆞ야 셰계에 그 사ᄅᆞᆷ의 잘못ᄒᆞᆫ ᄒᆡᆼ실을 들어 내야 일후에ᄂᆞᆫ 여러이의게 증계가 되야 그런 일들을 못 ᄒᆞ게 ᄒᆞ쟈ᄂᆞᆫ 쥬의요 ᄯᅩ 그 잘 못ᄒᆞᆫ 사ᄅᆞᆷ도 ᄒᆞᆫ번 시비를 드른 후에ᄂᆞᆫ 다시 그런 일을 아니 ᄒᆞ여야 오른 사ᄅᆞᆷ이 되라고 ᄒᆞᄂᆞᆫ거시라 그리 ᄒᆞᆫ즉 신문이 누구를 시비를 다ᄒᆞᆫ던지 누구를 칭찬 ᄒᆞᄂᆞᆫ거시 그 사ᄅᆞᆷ을 별노히 미워셔 ᄒᆞᆫ것도 아니요 그 사ᄅᆞᆷ을 별노히 ᄉᆞ랑 ᄒᆞ여셔 ᄒᆞᆫ거도 아니라 즁인을 위 ᄒᆞ야 그리 ᄒᆞᄂᆞᆫ거시니 엇지 신문이 젼국 인민의 뎨일 가ᄂᆞᆫ 친구가 아니리요 누구 시비 ᄒᆞ기를 엇던 사ᄅᆞᆷ이 죠하ᄒᆞ며 남이 듯기 실흔 소ᄅᆡ를 누가 ᄒᆞ기를 죠하 ᄒᆞ리요ᄆᆞᄂᆞᆫ 나라이 문명 ᄀᆡ화 ᄒᆞ야 ᄎᆞ차 진보를 ᄒᆞ랴 ᄒᆞ며 셰계 물졍과 젼국 ᄉᆞ졍을 알아야 사ᄅᆞᆷ이 춍명 ᄒᆞ고 ᄯᅩᆨᄯᅩᆨ ᄒᆞ여셔 누구 ᄒᆞ고 말 ᄒᆞᆯ ᄣᅢ라도 져 사ᄅᆞᆷ이 무ᄉᆞᆷ 말을 ᄒᆞᄂᆞᆫ지도 알아 듯고 내가 뎌 사ᄅᆞᆷ의게 엇던 말을 ᄒᆞ여야 올흘줄도 아ᄂᆞᆫ지라 사ᄅᆞᆷ마다 직업이 엇서 날마다 학교에 가셔 공부ᄒᆞᆯ슈가 업ᄂᆞ니가 만히 잇거니와 ᄌᆞᄀᆡ ᄒᆞᄂᆞᆫ 직무에 골몰 ᄒᆞ야 셰계가 엇더케 되야 가ᄂᆞᆫ지 모로고 잇스면 그 사ᄅᆞᆷ은 본ᄅᆡᄂᆞᆫ ᄯᅩᆨᄯᅩᆨ ᄒᆞᆫ 사ᄅᆞᆷ이 드ᄅᆡ도 방금 ᄉᆞ졍을 모른즉 만ᄉᆞ에 어두어 밀연 ᄒᆞᆫ 사ᄅᆞᆷ노릇슬 ᄒᆞᆯ 밧씌ᄂᆞᆫ 슈가 업ᄂᆞᆫ지라 그러 ᄒᆞᆫ즉 셰계 물졍 알기와 셰상 공론 알기ᄂᆞᆫ 신문 외에ᄂᆞᆫ 더 긴ᄒᆞᆫ 길이 업스니 그리 ᄒᆞᆫ즉 신문이 다ᄆᆞᆫ 사ᄅᆞᆷ의 시비ᄆᆞᆫ 의론 ᄒᆞᄂᆞᆫ거시 아니라 곳 인민을 교휵 ᄒᆞᄂᆞᆫ 물건이요 ᄯᅩ 신문에 직무 ᄒᆞᆫ나ᄂᆞᆫ 무론 무ᄉᆞᆷ 일이던지 밝고 올코 긴 ᄒᆞ도록 셰상 사ᄅᆞᆷ들이 그 신문을 보고 ᄉᆡᆼ각도 못 ᄒᆞ던 일을 ᄉᆡᆼ각도 ᄒᆞ랴 ᄒᆞ며 모로던 일도 아ᄂᆞᆫ 고로 사ᄅᆞᆷ들이 가부 간에 의론이 ᄉᆡᆼ겨 셰계에 즁론이라 ᄒᆞᄂᆞᆫ거시 시작이 되ᄂᆞᆫ거시니 그리 ᄒᆞᆫ즉 신문이 각ᄉᆡᆨ 일에 교휵을 식히ᄂᆞᆫ거시며 ᄯᅩ 즁론을 ᄆᆞᆫ드ᄂᆞᆫ거시라 그리 ᄒᆞᆫ즉 인민이 캄캄ᄒᆞ게 아모것도 모르고 아모것도 ᄉᆡᆼ각도 아니 ᄒᆞ고 아모 말도 아니 ᄒᆞ고 살냐면 신문이 업셔도 무방 ᄒᆞ거니와 셰샹 물졍도 알냐 ᄒᆞ며 시비도 분간 ᄒᆞ고십허 ᄒᆞ며 아모 일이라도 남의 의론을 드르랴 ᄒᆞ면 신문 외에ᄂᆞᆫ 더 요긴ᄒᆞᆫ 길이 업ᄂᆞᆫ 고로 문명 ᄀᆡ화ᄒᆞᆫ 나라에들은 사ᄅᆞᆷ이 ᄇᆡᆨ명ᄆᆞᆫ 모하 살아도 신문을 몬져 시작 ᄒᆞᄂᆞᆫ 법이라 신문을 시작 ᄒᆞ야 쟝구히 지ᄐᆡᆼ ᄒᆞᄂᆞᆫ거슨 인민이 그 신문이 업셔셔ᄂᆞᆫ 견ᄃᆡᆯ슈 업ᄂᆞᆫ ᄭᆞᄃᆞᆰ을 아ᄂᆞᆫ 고로 그 신문샤를 밉드ᄅᆡ도 보호 ᄒᆞ여 주ᄂᆞᆫᄃᆡ 보호 ᄒᆞᄂᆞᆫ 법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신문을 돈을 내고 사셔 보아 신문샤에셔ᄂᆞᆫ

그돈을 거두어 가지고 죠의도 사며 먹도 사며 쥬ᄌᆞ도 사며 월급도 주며 각식 부비를 치러 지텡 ᄒᆞ여 가ᄂᆞᆫ거신ᄃᆡ 죠션 인민은 아즉도 신문이 덥ᄂᆞᆫ 고로 전국에 인민이 일쳔 오ᄇᆡᆨ 만명 인구가 잇고 셔울 안에 인구가 근 이십 만명이 잇스되 신문 사 보ᄂᆞᆫ 사ᄅᆞᆷ인즉 ᄇᆡᆨ분지 일이 못 되고 ᄯᅩ 혹 사보나니 즁에도 신문은 보고 갑슨 보내지 안 ᄒᆞᄂᆞ니들이 더러 잇스니 이걸 보거드면 죠션 인민은 아즉 셰계 물졍도 알고십허 ᄒᆞ지 안코 교휵도 ᄒᆞ고십지 안코 남의 시비 ᄒᆞᄂᆞᆫ 의론도 듯고 십허 ᄒᆞᄂᆞ니가 몃치 업ᄂᆞᆫ줄노 우리ᄂᆞᆫ ᄉᆡᆼ각 ᄒᆞ노라 그리타고 우리가 죠곰치라도 졍셩을 덜드려 신문을 ᄒᆞᆯ거슨 아니여 그러 ᄒᆞ되 우리가 이 일 ᄒᆞᄂᆞᆫ거슨 우리 몸을 위 ᄒᆞ여 ᄒᆞᄂᆞᆫ거시 아니라 죠션 젼국 인민을 위 ᄒᆞ야 ᄒᆞᄂᆞᆫ거시니 이 ᄯᅳᆺ슬 알아 우리 이 ᄋᆡ 쓰ᄂᆞᆫ거슬 죠곰 ᄉᆡᆼ각 ᄒᆞ야 신문이 나라에 긴요ᄒᆞᆫ 물건으로 ᄎᆞᄎᆞ 아나니가 만히 잇서 신문 사 보나니도 만히 잇고 신문 갑도 젹의나마 ᄉᆞᆨ히 젼 ᄒᆞ여 주기를 ᄇᆞ라노라[28)]

위의 기사는 신문의 비판적 기능을 의심하는 독자들을 계도하기 위한 글이다. 『독립신문』은 부정적인 시각의 독자들을 염려하여 다시 한번 신문의 올바른 기능에 대해 환기시키고 있다. 신문은 잘못한 사람을 비판하여 그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징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며, 백성을 교육하고 여론을 형성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또한 신문은 세상 물정도 알고, 시비도 가리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데 요긴한 것이다. 이렇게 신문의 기능에 대해 환기시킨 편집자는 글 말미에 따라서 신문을 많이 보고, 신문을 보면서 신문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속히 대금을 치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때로는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되는데,[29)] 이러한 기사는 일반 독자의 시선에서 서술되므로 독자에게 신문의 효용을 알리고, 그것을 제도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 논설과 <독자투고> 논설 외에도 『독립신문』의 편집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의 인식에 신문이란 새로운 제도를 각인시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문이 사실만을 다룬다는 점과 어느 편에도 들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보장되어야 『독립신문』은 정부와 백성 사이에서 공론장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28) 『독립신문』, 1897.5.1, <논설>

29) 이와 같은 기사는 1897년 6월 3일자, 1897년 9월 30일자 <논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그젼 신문에 축호 ᄒᆞᆫ다는 말을 긔지 ᄒᆞ엿거니와 경무쳥에셔 오부 자ᄂᆡ에 축호를 다니는ᄃᆡ 가난ᄒᆞᆫ ᄇᆡᆨ셩들은 금인을 주는가 의심ᄒᆞ고 식구를 더 늘이며 부ᄌᆞ들은 녀인 식구는 외국 사ᄅᆞᆷ 갓다 준다고 문ᄑᆡ에 쓰지도 안코 ᄀᆞᄅᆞ쳐 주지도 아니 ᄒᆞᆫ다니 ᄎᆞᆷ 우슌 일이거니와 다른 의심이 업ᄂᆞᆫ지라 젼국 남녀 슈효를 알고져 ᄒᆞᆷ이니 엇지 신문샤에셔 거즛 말을 ᄒᆞ리요[30]

㉯ 무론 누구던지 신문에 긔지 ᄒᆞᆯ 일이 잇서 신문샤에 편지 ᄒᆞ랴거든 그 편지 씃헤다가 편지 ᄒᆞ느니 거쥬셩명을 분명히 쓰되 만일 셩명을 편지 씃헤다가 들어내기 어렵거든 몸쇼 신문샤에 와셔 ᄃᆡ면ᄒᆞ여 말을 ᄒᆞ오 만일 편지 씃헤 편지 ᄒᆞ난니 거쥬셩명이 업스면 곳 익명셔라 엇지 짐쟉ᄒᆞ고 익명셔를 쥰신 ᄒᆞ야 신문에 기록ᄒᆞ리요 편지 씃헤 거쥬셩명 잇는 것만 시ᄒᆡᆼ ᄒᆞ겟스니 그리들 알며 편지 ᄒᆞᄂᆞᆫ니의 셩명은 신문에 들어내지 아니 ᄒᆞᆯ터이니 염녀와 의심들은 마오[31]

㉰ 근일에 인심이 공연히 쇼동이 되야 물가가 놀나 가고 여슈가 막켜다니 이거슨 무ᄉᆞᆷ ᄭᆞ닭인지 모로거니와 풍셜에 일본과 아라샤가 군ᄉᆞ를 보내여 무ᄉᆞᆷ 란니가 날ᄭᆞ 두려워셔 이럿타니 이거슨 어리셕은 ᄉᆡᆼ각이라……ᄇᆡᆨ셩들은 이런 말을 쥰신치 말고 언제던지 나라에 란니가 날 ᄃᆡ경이면 독립 신문에 몬져 말이 잇슬지라 독립 신문에 업는 말은 대개 허언이니……[32]

㉱ 황셩 신문이 론셜은 ᄆᆡ우 쟈미가 잇서 볼만ᄒᆞᆫ 말이 잇스나 잡보는 간혹 샤(私)가 ᄭᅵ인 ᄆᆞᄃᆡ가 잇는듯 ᄒᆞ니 신문 잡보에 만일 사가 ᄭᅵ일것 ᄀᆞᆺᄒᆞ면 셰계 인민이 보는바에 신문 본의가 아닌듯 ᄒᆞ더라[33]

㉲ 다른 신문에 긔지ᄒᆞᆫ 젼보와 외국 통신을 옴겨 긔지 ᄒᆞ는 일이 텬하 만국 신문 통례라 조곰도 그른것이 업고 조곰도 붓그레온것이 업슨즉 경셩 다른 신문에셔 우리 독립 신문에 난 젼보와 외국 통신을 볏기는 일이 좃커는 조흐나 어느 신문에셔 볏긴다는것을 셜명 ᄒᆞ는것이 신문상 규례요 ᄉᆞ톄에도 온당 ᄒᆞᆯ듯 ᄒᆞ더라[34]

『독립신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고, 독자의 투고를 받을 때 거주지와 성명을 받아 기사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특정한 기사를 다른 신문에서

30) 『독립신문』, 1896.5.21, <잡보>,; <외국 통신>란에 이어 게재된 기사이지만 이 날짜 신문에 <잡보>란의 명칭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잡보> 기사로 분류한다.

31) 『독립신문』, 1897.2.18, <광고>

32) 『독립신문』, 1897.3.18, <논설>

33) 『독립신문』, 1898.4.12, <잡보>

34) 『독립신문』, 1898.6.28, <잡보>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독립신문에 없는 말은 모두 허언’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정정기사를 통해 잘못 나갔던 기사를 바로 잡아 스스로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립신문』은 사실성, 중립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 우리 독립 신문이 ᄉᆡᆼ긴 이후로 ᄒᆞᆫ 가지 ᄀᆡ명 된것은 인민들이 ᄎᆞᄎᆞ 신문이 긴요ᄒᆞᆫ 물건인줄을 알아 이왕에ᄂᆞᆫ 신문을 무엇인지도 모로고 젼에 못 보던것인 고로 덥허 놋코 시비 ᄒᆞᄂᆞᆫ ᄌᆞ도 잇고 비웃ᄂᆞᆫ ᄌᆞ도 잇고 당쵸에 볼 ᄉᆡᆼ각도 아니 ᄒᆞᄂᆞᆫ ᄌᆞ가 만히 잇더니 근일에ᄂᆞᆫ 그런 사ᄅᆞᆷ들도 ᄎᆞᄎᆞ 신문이 업서서ᄂᆞᆫ 셰샹이 컴컴 ᄒᆞ야 견딜슈 업겟다고 ᄒᆞᄂᆞᆫ이가 만히 잇스니 이걸 보거드면 다른것은 거문두고 위션 그ᄆᆞᆫ큼 사ᄅᆞᆷ들이 렬니여 신문 업셔서ᄂᆞᆫ 못 쓰겟ᄃᆞᄂᆞᆫ ᄉᆡᆼ각이 나게 되엿스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칭찬 ᄒᆞᄂᆞᆫ것이 동양 풍쇽으로 론지 ᄒᆞ면 도로혀 우스을 일이나 실샹을 말 ᄒᆞᄌᆞ니ᄭᆞ 인민이 이ᄆᆞᆫ큼 렬닌것은 독립 신문의 효험이라고 ᄒᆞᆯ너라 다ᄆᆞᆫ 신문 보기ᄆᆞᆫ 쇼화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슬ᄲᅮᆫ이 아니라 신문을 보고 론셜에 ᄒᆞᆫ 말을 궁구 ᄒᆞ야 ᄉᆡᆼ각 ᄒᆞ여 보ᄂᆞᆫ이도 혹 잇고 ᄯᅩ 셰샹 형편을 넓어 보고 나라 일과 샤회 샹 일을 ᄉᆡᆼ각 ᄒᆞ야 보ᄂᆞᆫ이들이 ᄂᆞᆯ마다 느러 가니 엇지 대한을 위 ᄒᆞ야 경ᄉᆞ롭지 아니 ᄒᆞ며 대한 여망이 이왕 보다 더 빗나 보히지 아니 ᄒᆞ리요 근일에 셩ᄂᆡ에 다른 신문들이 만히 ᄉᆡᆼ겨 독립 신문 외에 젼 국문으로 독립 신문의 본을 ᄯᅥ셔 글ᄌᆞ를 씌워가며 츌판 ᄒᆞᄂᆞᆫ 신문이 다셧이 잇스니 삼년 젼에ᄂᆞᆫ 신문이라 ᄒᆞᄂᆞᆫ것을 일홈도 모로던 나라에셔 지금은 국문 신문이 다셧이요 영ᄌᆞ 신문이 ᄒᆞ나이요 영ᄌᆞ 월보가 ᄒᆞ나이요 국 한문 셕근 신문이 ᄒᆞ나이요 일본 글ᄌᆞ로 ᄒᆞᄂᆞᆫ 신문이 ᄒᆞ나이라……[35]

위의 논설에서 보이는 것처럼,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후 한 가지 개명된 것은 인민들이 차차 신문을 긴요한 물건으로 알게 된 것이다. 신문 논설을 통해 세상 형편과 나라의 일과 사회의 일을 궁구하여 생각해보는 이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독립신문』 편집인 스스로의 평가이지만, 다른 신문 매체들의 활발한 창간에 미쳤던 『독립신문』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은 당시 신문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신문』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35) 『독립신문』, 1898.4.12, <논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었고, 이후 다른 신문들의 창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독립신문』이 수행하고자 했던 계몽의 기획은 이렇게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하나의 제도로서 완성되어야 가능할 수 있었다. '정부 속과 민간 소문'을 보고하고, '허언'이 아닌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독립신문』의 주의는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하나의 제도로 완성되었고, 신문은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계몽의 기획을 수행할 수 있었다.

신문이란 매체의 글쓰기는 그것을 매개하는 신문 지면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근대계몽기에 새롭게 탄생한 신문 매체는 새로운 종이와 인쇄방식을 바탕으로 고정된 날짜에 발간되며, 분할된 각각의 편집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독립신문』은 정부와 백성의 '소문'을 '조선 전국 인민'을 향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신문』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인민'을 교육하며, '중론(衆論)'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결국 『독립신문』의 글쓰기는 이와 같이 제도화된 매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특히 각각의 논설 또는 잡보 기사에서 서술자의 태도나 서술 방식은 새롭게 탄생한 신문이라는 제도와 관련이 깊다.

Ⅲ.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성격과 서술 방식

1. <독자투고>의 존재와 그 성격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독자의 탄생은 근대계몽기 신문 매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출반·인쇄 양식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신문이라는 매체가 공공영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단일한 독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독자는 동일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상상된 존재이며,[36] 구체적으로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발화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독자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자투고>는 당시 『독립신문』의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의 기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되었으며, 또 그것들의 효과는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독자투고>는 논설란 안의 문학적 글쓰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우선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의 존재와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독립신문』은 좀더 이른 시기에 발행되었던 『한성순보』, 『한성주보』와는 달리 독자들의 투고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37] 이는 당시의 사회 조건을 미

36) 1896년 당시에는 아직 국가 또는 국민이란 용어가 정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조선을 하나의 국민국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라는 용어 대신 여기에서는 『독립신문』에 주로 쓰이던 '나라'라는 표현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 때 신문의 독자는 신문 제일 머리에 있는 동일한 날짜와 조선이라는 국가 체제, 한글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상상된다'는 표현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용어를 가져온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참조.

37)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채백과 서순화를 들 수 있다. 채백은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의 현황과 특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그는 <독자투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당시의 신문보급 상황이나 독자층 구성, 그리고 그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 등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독자투고 형식의 글들이 잡보는 물론 논설에까지 실린다는 점과 독자투고 글들이 주로 하의상달의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 학생, 백성, 외국인 등 다양한 신분의 투고자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시의 논설과 잡보에 실린 독자투고 형식의 글들이 다양한 신분의 의사소통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의 통계에 의하면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창간되어 1899년 12월 4일까지 총 766호가 발행되었는데, 그 중 <독자투

루어 볼 때, 전국 각지의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독립신문』 본사는 서울 정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분국은 제물포, 원산, 파주, 송도, 평양, 수원, 강화에 있었다.[38] 하지만 원산, 송도,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분국이 대부분 한성 부근에 집중되어 있어, 조선 전국의 소식들을 취재하여 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신문』이 창간될 무렵의 교통, 통신 시설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으므로 취재의 어려움은 그만큼 컸다.[39]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독자투고>이다.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주로 논설란과 잡보란에 게재되었는데, 간혹 외방통신[40]이나 별보[41]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독립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독자투고>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창간호부터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독자들의 투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창간호부터 제7호인 4월 21일자까지 '광고'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투고하는 요령을 싣고 있다.

> 무론 누구든지 무리볼 말이 잇든지 셰상사ᄅᆞᆷ의게 ᄒᆞ고스분 말 잇ᄉᆞ면 이 신문샤로 간단ᄒᆞ게 귀절 쎄여서 편지ᄒᆞ면 ᄃᆡ답ᄒᆞᆯ 만ᄒᆞᆫ 말이든지 신문에 낼만ᄒᆞᆫ 말이면 ᄃᆡ답할 터이요, 내기도 ᄒᆞᆯ터이옴 한문으로ᄒᆞᆫ 편지는 당초에 샹관아니ᄒᆞᆷ[42]

위 글을 보면 '누구든지'라는 표현 말고는 투고자의 신분에 대한 제약이나 조건

고>는 논설란에 70건, 잡보란에 414건이 있다고 한다. 투고자의 신분은 다양하게 분포되며, 논설의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건의와 탐관오리 문제가 전체 74건 중 17건, 잡보의 경우 414건 중 231건이나 차지하고 있다. 채 백,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사회 제3호》, 1994.; 또 다른 『독립신문』에 실린 <독자투고>에 대한 연구는 서순화의 연구가 있는데, 그의 통계에 의하면, 총 540건의 투고기사가(논설 94건, 잡보 442건, 별보 3건, 외방통신 1건)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 박사, 1996.

38) 『독립신문』, 1896.4.7, <광고>

39) 1896년 당시 주로 사용되던 원거리 교통수단은 해상운송이었고, 농상공부 통신국이 설치되고 '국내우체규칙'이 제정된 것은 1895년에 불과했다.

40) 『독립신문』, 1898.12.3, <외방통신>

41) 별보란의 <독자투고>는 다음과 같다. 『독립신문』, 1898.6.4.;1898.6.21.;1899.1.23.

42) 『독립신문』, 1896.4.7, <광고>

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내용에 대한 제약이나 조건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글로 쓴 편지만 받겠다는 조건은 한글 사용을 확산시키겠다는 편집진의 의도가 실려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상하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자투고>의 대상은 열려 있었고, 한글 사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4월 28일자 신문의 3면에는 <독자투고>에 대한 안내 광고가 실려 있다.

> 누구던지 신문샤에 편지 ᄒᆞᄂᆞᆫ이ᄂᆞᆫ 거쥬셩명을 써셔 보내야 보지 그러치 안ᄒᆞ면 샹관 아니ᄒᆞ노라[43)]

위 내용의 광고는 5월 21일자까지 계속 실리고 있으며, 6월 9일과 11일자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투고에 대한 광고가 나간 직후부터 꾸준히 독자투고가 있었고, 또한 익명의 제보자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7년 2월 18일자 광고에 실린 기사에도 <독자투고>에 대한 광고가 실려 있다.

> 무론 누구던지 신문에 긔지 ᄒᆞᆯ 일이 잇서 신문샤에 편지 ᄒᆞ랴거든 그 편지 씃헤다가 편지 ᄒᆞᄂᆞ니 거쥬셩명을 분명히 쓰되 만일 셩명을 편지 씃헤다가 들어내가 어렵거든 몸쇼 신문샤에 와셔 ᄃᆡ면ᄒᆞ여 말을 ᄒᆞ오 만일 편지 씃헤 편지 ᄒᆞ난니 거쥬셩명이 업스면 곳 익명셔라 엇지 짐쟉ᄒᆞ고 익명셔를 쥰신 ᄒᆞ야 신문에 기록ᄒᆞ리요 편지 씃헤 거쥬셩명 잇ᄂᆞᆫ 것만 시힝 ᄒᆞ겟스니 그리들 알며 편지 ᄒᆞᄂᆞᆫ니의 셩명은 신문에 들어내지 아니 ᄒᆞᆯ터이니 염녀와 의심들은 마오[44)]

<독자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와 기사 게재에도 불구하고 투고 시 거주지와 성명을 쓰지 않은 사례는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고하는 독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게재했을 때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당시 대부분의 <독자투고> 기사들은 지방관리의 탐학이나

---

43) 『독립신문』, 1896.4.28, <광고>

44) 『독립신문』, 1897.2.18, <광고>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립신문』은 이러한 <독자투고> 기사에 성명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후에도 <독자투고>에 관한 투고 요령을 알려주는 광고는 몇 차례 지면에 등장한다. 이러한 광고는 『독립신문』이 <독자투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과 적극적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독자투고>의 내용은 주로 서구제도와 문물도입,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 민권신장, 정치와 행정 개혁, 관리 부정부패 고발과 해명, 재판 불공정 고발, 관리의 선정 칭송, 사회의식과 관행 개혁, 개인 간 채무 및 재산 분쟁 고발, 신교육 확대, 외국인과의 갈등, 『독립신문』 찬양 및 비판 등의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다.[45] 당시의 <독자투고>는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사건과 소식들을 다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신문은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에는 '서울 순청골 최돈성의 글'[46], '학부 주사 이필균씨의 대조선 자주 독립 애국 하는 노래'[47] 등의 시가(詩歌)들이 실려 있다.[48] 이러한 시가의 투고는 1896년에 주로 활발하였는데, 대부분이 4·4조의 일정한 형식에 자주 독립, 애국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49]

45)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자세한 내용은 서순화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 박사, 1996. 46~105쪽.

46) 『독립신문』, 1896.4.11, <잡보>

47) 『독립신문』, 1896.5.9, <잡보>

48) 이 외에도 독자들이 투고한 계몽가사들은 주로 1896년에 게재되고 이후 점차 사라지는데, 1896년에 실린 개화기 시가들은 다음과 같다. 양주 리중원의 동심가(1896.5.26.), 금강 김교익의 글(1896.6.2.), 남서 순검 허일의 노래(1896.6.2.), 누동 한명원의 애국가(1896.7.4.), 묘동 리용우 애국가(1896.7.7.), 북서 순검 윤태성의 애국가(1896.7.18.), 대조선 달성회당 예수교인 등 애국가(1896.7.23.), 남동 박기렴 애국가(1896.8.1.), 송천 사립학교 학원들 애민가(1896.8.18), 정동 배재학당 학원 문경호의 자주 독립가(1896.8.20.), 최병희 애국가(1896.9.1.), 경상도 봉화 신영택이 지은 성절 송축가(1896.9.3.), 평양학당 김종섭 애국가(1896.9.5.), 배재학당 학도 최영구 애국 독립가(1896.9.8.), 평양 보통문안 리영언 애국가(1896.9.10.), 농상공부 기사 김철영 애국가(1896.9.15.), 인항 용동 예수교 교당에서 보낸 글(1896.9.17.), 농상공부 주사 최병헌 독립가(1896.10.31.).

49) 홍정선은 『독립신문』에 실린 이러한 시가들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한글문체의 발전과 근대식 학교 교육, 인쇄 문화의 출현을 바탕으로 근대시의 독자층이 형성되었고, 이 시기 시가는 전통적인 낭송의 전통을 바탕으로 아직 작가와 독자가 구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쓰였다고 파악한다. 홍정선, 『근대시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독자층의 역할 연구』, 서울대 박사, 1992, 13~100쪽. 참조.

이러한 <독자투고>는 『독립신문』의 한글전용 글쓰기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던 기획이었다. 『독립신문』의 한글 글쓰기만이 '조선 전국의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자투고>의 투고자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50] <독자투고>를 통해 한글 사용은 단순히 '신문 지면을 읽는' 읽기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쓰기의 차원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독립신문』은 창간 초부터 <독자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를 실시하면서 한글전용을 통한 넓은 층의 독자를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하나의 능동적 독자로 끌어들였다. 『독립신문』의 독자는 누구든지 『독립신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비판 내지는 고발을 할 수 있었다. 폭넓은 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독자투고>는 『독립신문』이 실시한 한글 글쓰기의 경제성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 또한 <독자투고>의 이러한 특징은 '상하귀천' 없이 정부와 백성이 서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독립신문』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독자투고>는 실명 기사와 비실명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실명 기사는 투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기사임에 반해, 비실명 기사는 투고자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략 '어디 사는 ○씨', '유지각한 친구' 등으로 표현하는 기사를 말한다.

실명 기사는 주로 1896년에 게재된 잡보란 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의 <독자투고>가 실제 백성들의 투고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신문의 중립적, 객관적 사실성을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나, 당시 신문이 공과 사의 영역을 완전하게 구별하지 못한 채 투고자 개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51]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실명 기사는 그 내용이 정론적 성격일 경우에 논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배재학당 주상호(주시경)[52], 내부 지방국장 김중환[53], 윤치호[54] 등의 <독자투고>인

50) 구체적인 사례는 채백과 서순화의 글을 참조할 것. 서순화, 앞의 글, 18~45쪽.; 채백, 앞의 글, 42~27쪽.

51)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211~225쪽. 참조.

데 편집진의 취지에 맞는 전문적인 글이거나 독자의 계몽에 적합한 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명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비실명 기사는 주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이나,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게재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논설란에 실려 있는 비실명 투고 기사이다. 비실명 <독자투고>의 투고자는 주로 '유지각한', '점잖은', '유지한' 등의 표현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국가와 사회의 제도 개선, 근대화 등에 관한 '시무론'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지각한' 투고자는 그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개화사상을 가진 신지식인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독자투고>가 투고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이유는 투고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렸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 주제가 일반적인 논설과 비슷하거나 비판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볼 때, 주로 익명의 개인을 통해 신문사의 직접적인 주장을 대신 표현하여 계몽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편집자의 직접적인 계몽의 언설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같이 『독립신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지각한' 익명의 투고자의 글은 일반 독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었다.[55] 『독립신문』의 독자는 '정부와 백성', '상하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조선 '인민' 전체를 가리키며, 이때의 비실명 투고자는 그 독자 일반을 대표한다. '유지각한' 익명의 개인은 『독립신문』의 독자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었고, 이러한 논설은 독자에게 구체적인 실감의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인 계몽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독립신문』은 이

52) 『독립신문』, 1897.4.22.;1897.4.24, <논설>

53) 『독립신문』, 1896.9.19.;1896.9.26, <논설>

54) 『독립신문』, 1897.5.27, <잡보>

55)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1897년 6월 3일자 논설을 들 수 있다. 이 논설은 '어떤 유지각한 사람'이 신문사에 보낸 <독자투고>인데, 신문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회적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당시 『독립신문』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데, 『독립신문』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과 『독립신문』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유지각한 투고자는 『독립신문』이 만들어낸 가상의 투고자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논설은 『독립신문』의 편집자가 가상의 투고자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러한 비실명 <독자투고>를 <서사적 논설>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결국 <독자투고>는 『독립신문』이 추구했던 한글 글쓰기의 제도화를 가속화시키며, '조선 전국의 인민'을 독자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 『독립신문』은 <독자투고>를 통해 신문이란 매체가 독자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보도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독자투고> 방식의 글쓰기는 신문이란 매체를 하나의 제도로 확립시키고, 독자들에게 근대적 매체의 속성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자투고>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독립신문』의 편집자는 투고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보도라는 신문의 원칙과는 정면으로 대립된다. 그렇다면 '신문샤에셔 거즛 말을 ᄒᆞ리요', '독립 신문에 업는 말은 대개 허언'이라는 선언은 과연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 다음에서는 『독립신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사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기사 취재 원칙과 <독자투고>

『독립신문』이 창간될 무렵에는 신문이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각각의 란의 성격 역시 그 자체의 확고한 특성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논설과 잡보는 일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아직은 그러한 성격이 확고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각각의 란에 실려 있는 기사 역시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게재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독립신문』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기사로 소개되었는지 살펴보겠다.

> 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졍을 자셰히 긔록ᄒᆞᆯ터이요 졍부속과 민간 소문을 다보고 ᄒᆞᆯ터이라 졍치샹일과 농ᄉᆞ 쟝ᄉᆞ 의술샹 일을 얼만콤식 이 신문샹 ᄆᆡ일 긔록ᄒᆞᆷ[56]

위 예문은 『독립신문』 창간호에 실린 광고이다. 이 글을 보면 『독립신문』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크게 조선과 외국의 사정이고,[57] 그 중에서도 국내의 문제는 다

56) 『독립신문』, 1896.4.7, <광고>

시 ‘정부 속’과 ‘민간 소문’으로 분류된다. 『독립신문』은 주로 논설과 관보를 통해 ‘정부 속’ ‘소문’을 다루고, 잡보란을 통해 민간의 ‘소문’을 다루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소문(所聞)’은 ‘들리는 바’ 그대로의 이야기를 말한다.[58] ‘소문’은 ‘풍셜(風說)’ 등의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었는데,[59] 『독립신문』은 민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리는 바’ 그대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소문’은 하나의 유용한 정보라기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에 가깝다.[60]

이렇게 『독립신문』이 주로 다루는 이야기가 단지 ‘소문’의 차원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독자투고>이다. <독자투고>는 그것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하나의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독자투고>는 투고를 권장하는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다만 투고자의 거주지역과 성명을 게재한 투고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독자투고> 기사의 편집자는 투고기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편집자의 시선이 드러나는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 시흥 김규철이가 신문샤에 편지 ᄒᆞ엿ᄂᆞᆫᄃᆡ 광쥬 왕윤면 어촌 사ᄂᆞᆫ 진ᄉᆞ 서필슌이가 무솜 권셰가 잇다고 남의 집 과부와 미거ᄒᆞᆫ ᄌᆞ질들을 유인 ᄒᆞ야 젼답을 억탈 ᄒᆞᆫ것과 토식 ᄒᆞᆫ거시 만타고 ᄒᆞ엿스니 만일 이말이 분명 ᄒᆞᆯ진ᄃᆡ 그고을 원은 슐필지어다[61] (밑줄 인용자)

㉯ 양쥬군 죠운리 포쥬를 안지연이가 쥰허금을 밧치고 홍업 ᄒᆞᄂᆞᆫ거슬 리샹곤이가 억탈ᄒᆞᆫ 고로 안가가 농샹 공부에 쇼지 ᄒᆞ야 도로 차젓더니 강화부윤 김갑슈씨가 ᄌᆞ긔

57) 『독립신문』은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정을 <외국 통신>, <전보> 등의 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58) ‘소문’이란 용어는 특히 각각의 <잡보> 기사에 표제가 붙기 시작하는 1898년 7월 이후 ‘양서 소문’, ‘영남 소문’, ‘옥사 소문’ 등의 표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59) “본샤 신문 칠십 삼호에 쇼 보험 회샤할 일노 칙교를 밧드렷다ᄒᆞᆫ **잡보를 낼 ᄯᅢ에ᄂᆞᆫ 다ᄆᆞᆫ 풍셜 인줄ᄆᆞᆫ 알고 긔ᄌᆡ ᄒᆞ엿더니** 그 회샤에셔 광고ᄒᆞᆫ것도 보고 ᄯᅩ 돌니도 알아 본즉 우리가 말 ᄒᆞᆫ것이 과연 적실ᄒᆞᆫ 일이라……”(강조 인용자), 『독립신문』, 1898.4.12, <논설>

60) 이러한 부분은 권보드래의 연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205~217쪽 참조.

61) 『독립신문』, 1896.10.6, <잡보>

의 집 샤ᄉᆞ 찬포라 ᄒᆞ고 슌교 두명을 보내여 안가의 ᄌᆞ식 안긔현을 잡아다가 강화부옥에 가두엇다고 신문샤에 편지가 왓스니 참 그런지[62](밑줄 인용자)

㉰ 샹쥬 군수 리관하씨가 불치 ᄒᆞᆫ다고 어ᄉᆞ 조윤승씨가 파직 식히려 ᄒᆞᆫ즉 리관하씨가 김산군 봉게 사ᄂᆞᆫ 조교관의게 쳥 ᄒᆞ고 삼천원을 힝뢰 하야 도로혀 션치 ᄒᆞ난 양으로 돌니ᄂᆞᆫ 고로 온골 인민이 원망 ᄒᆞ며 샹쥬군 토호 강님즁이가 원을 뎨결 ᄒᆞ야 침학평민 ᄒᆞᄂᆞᆫᄃᆡ 군슈 리씨의 션졍비 셰운다 ᄒᆞ고 매호에 돈 팔픈식 슈렴 ᄒᆞ기로 군슈 리씨와 약쇽 ᄒᆞ고 강님즁이가 ᄒᆡ군 공젼 즁에 륙ᄇᆡᆨ량 엇어 ᄀᆞ지고 서울 올나와서 ᄒᆡ 군슈 션치 ᄒᆞᆫ다고 정부에 발명 ᄒᆞ기로 ᄒᆞᆫ다고 그 근쳐에 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편지가 우톄편으로 신문샤에 왓스니 참 그런지 우리ᄂᆞᆫ 긔ᄌᆡᄆᆞᆫ ᄒᆞ노라[63](밑줄 인용자)

위 예문은 모두 잡보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자투고> 기사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투고 내용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편집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투고 내용을 게재하고 만약 이 말이 분명하다면 그 고을 원은 진사 서필순의 행악을 처벌하라는 편집자의 언표가 드러난다. 또한 ㉯에서는 신문사에 편지가 와서 게재는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다는, ㉰에서는 우체편으로 신문사에 편지가 왔는데 그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게재만 하겠다는 편집자의 언표가 드러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투고 내용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소문'으로 게재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독자투고>는 다음과 같은 정정기사를 통해 오히려 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 대홍군 박긔로란 사ᄅᆞᆷ이 신문샤에 편지 ᄒᆞ엿ᄂᆞᆫᄃᆡ 대홍 군슈 구완희와 남포 군슈 류지연은 아전과 부동 ᄒᆞ야 ᄇᆡᆨ셩의게 야쇽히 ᄒᆞᆫ 일이 만ᄒᆞᆫᄃᆡ 민요가 잇슬듯 ᄒᆞ야 본골 물망 잇ᄂᆞᆫ 션비들을 악형엄슈ᄒᆞ고 관군을 촌간에 보내여 엄포 ᄒᆞ며 ᄇᆡᆨ셩의 가산을 탕ᄑᆡ ᄒᆞ게 ᄒᆞᆫ다고 ᄒᆞ엿더라[64]

㉯ 대홍 군슈와 남포 군슈 말을 박긔로의 편지에 인 ᄒᆞ야 신문에 말 ᄒᆞ엿거니와 자

62) 『독립신문』, 1897.3.13, <잡보>

63) 『독립신문』, 1897.6.26, <잡보>

64) 『독립신문』, 1896.5.26, <잡보>

셔히 알아 본즉 박긔로ᄂᆞᆫ 연젼에 죽은 놈이고 대흥군과 남포군 두 고을 원이 비도을 만히 잡은 일이 잇다더라65)

㉰ 새문안 대궐 압 비변ᄉᆞ골 리션여란 놈이 ᄆᆡ일 슐을 대취 ᄒᆞ고 동리로 다니면셔 야료를 ᄒᆞ고 제 집안에셔는 졔 어미를 ᄯᆡ린다고 황덕쥰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스니 이런 놈은 경무쳥에셔 잡지 아니 ᄒᆞᄂᆞᆫ지 알슈 업더라66)

㉱ 김정연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ᄂᆞᆫᄃᆡ 리션여ᄂᆞᆫ 제 어미 ᄯᆡ린 일이 업고 황덕쥰은 리션여 일노 편지 ᄒᆞᆫ 일이 없다더라67)

㉯는 ㉮에 대한 정정기사이다. 글 ㉯에서는 <독자투고> 기사인 ㉮를 이미 게재하였으나 사실을 확인해 보니, 그 투고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그 내용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와 ㉱는 황덕준, 김정연이 각각 보낸 <독자투고> 기사이다. ㉰와 ㉱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의 <독자투고>인데, 이러한 경우 견해가 다른 두 개의 글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68)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독립신문』이 <독자투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문'을 다루고 있는가이다. 『독립신문』은 <독자투고>를 아직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하나의 '소문'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각각의 투고 기사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기사를 게재하기에는 당시의 취재 여건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신문』은 일단 기사를 게재한 이후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 정정기사를 내보내거나, 다른 입장의 <독자투고>를 그대로 게재하여 기사의 객관적 사실성을 유지한다. 역설적이게도 『독립신문』은 잘못된 기사를 정정하는 태도를 통해 오히려 매체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소문'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문'이 신문 매체에 게재되는 과정은 '소문'을 단순히 rumor가 아닌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로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분명 일정한 원칙에 의한 제약이 작동하고 있다.

65) 『독립신문』, 1896.6.2, <잡보>

66) 『독립신문』, 1896.11.12, <잡보>

67) 『독립신문』, 1896.11.24, <잡보>

68) 비슷한 예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여러 개의 독자투고를 한꺼번에 제시하여 그 사건의 사실 유무를 독자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독자투고>도 있다. 『독립신문』, 1898.4.21, <잡보>

……오늘 우리가 별노히 ᄒᆞᄂᆞᆫ 말은 각쳐 신문 긔ᄌᆞ들을 위 ᄒᆞ야 말 ᄒᆞ노니 이 즁립을 ᄆᆡᆺ흔 제 군ᄌᆞᄂᆞᆫ 우리 말을 쟈셰히 듯고 아모죠록 신문 긔ᄌᆞ의 목젹을 이져 버리지 아니 ᄒᆞ기를 ᄇᆞᆯᄋᆞ노라 신문의 목젹은 데일 인민을 위 ᄒᆞ야 인민의 의복과 음식과 ᄌᆡ산과 목숨과 권리와 디위와 ᄒᆡᆼ실과 쳐디를 다ᄆᆞᆫ 보호 ᄒᆞ여 줄ᄲᅮᆫ이 아니라 졈졈 더 나아가게 ᄒᆞ여 주어 그 인민들이 더 부요ᄒᆞ고 그 인민의 의복 음식 거처가 졈졈 학문 잇게 되야 가게 ᄒᆞ며 그 인민의 권리를 아모라도 ᄒᆡ롭지 안케 ᄒᆞ여 주며 인민의 ᄒᆡᆼ실들이 졈졈 놉고 졈직 ᄒᆞ야 셰계에 졈ᄌᆞᆫ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되게 ᄒᆞ여 주며 아모죠록 약 ᄒᆞ고 간란ᄒᆞ고 궁 ᄒᆞ고 셰 업ᄂᆞᆫ 사ᄅᆞᆷ을 보호 ᄒᆞ며 역셩 ᄒᆞ야 인민들이 모도 의리 잇고 츙심 잇고 학문 잇게 되도록 ᄒᆞ며 둘ᄌᆡᄂᆞᆫ 죠곰치라도 샤심(私心)이 업셔 론인 졍단 ᄒᆞᆯ ᄯᅢ에 공평 ᄒᆞᆫ것 ᄒᆞ나ᄆᆞᆫ 가지고 말을 ᄒᆞ며 결단코 인민이 드리셔 쓸ᄃᆡ 업ᄂᆞᆫ 말을 내지 말며 헛되고 ᄯᅳᆺ 업ᄂᆞᆫ 말을 긔ᄌᆡ 말며 아모죠록 글을 알아보기 쉽도록 간단 ᄒᆞ고도 긴 ᄒᆞᆫ것을 ᄡᅦ지 말고 말을 ᄆᆞᆫ드러 글ᄌᆞ ᄒᆞᆫᄌᆞ와 ᄒᆞᆫ 줄이 쓸ᄃᆡ 업ᄂᆞᆫ 일에 허비 ᄒᆞ지 안토록 ᄒᆞ여야 ᄒᆞᆯ터이며 일 의론 ᄒᆞᆯ ᄯᅢ에 언제던지 신문의 데일 목젹을 이져 버리지 말고 인민을 위 ᄒᆞ야 언제던지 그 ᄆᆞ옴 ᄒᆞ나를 가지고 의론 ᄒᆞ며 젼국 졍치와 샤회 샹 일을 ᄒᆞᆫ 집안 이약이와 ᄀᆞᆺ치 ᄒᆞ야 젼국 인민이 샤회 샹 일과 졍부 샹 일이 ᄌᆞ긔 집안 일 ᄀᆞᆺ치 알도록 말을 ᄒᆞ여 주어야 ᄒᆞ며 사ᄅᆞᆷ을 칭찬 ᄒᆞ되 실샹을 가지고 칭찬 ᄒᆞ고 누구를 시비 ᄒᆞᆯ ᄯᅢ에 실샹ᄒᆞᆫ 일을 가지고 무ᄉᆞᆷ 일을 엇더케 ᄒᆞ엿다고 쟈셰히 ᄌᆡ긔ᄒᆞ야 시비 ᄒᆞ지 아니 ᄒᆞ여셔ᄂᆞᆫ 시비를 ᄒᆞ여도 증계가 아니 되고 칭찬을 ᄒᆞ여도 찬양이 아니 될터이라……[69]

위 예문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설로서,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70] 첫째, 기자는 인민 즉, 독립신문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 전체를 위하는 기사를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신문의 목적은 무엇보다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생활 전반을 보호하고 발전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인민의 권리를 해롭지 않게 해 주며, 인민들을 의리 있고, 충심 있고, 학문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있으므로, 기자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써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자는 사심 없이 공정한 태도를 바탕으로, 인민이 들어서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말을 간단하고 쉽게 써야하며, 오직 인민을 위한 마음으로

69) 『독립신문』, 1898.7.1, <논설>

70) 여기에서 '긔ᄌᆞ'는 신문기사를 취재하고 기록하는 기자이며, 나름의 원칙에 의해 편집하여 신문에 게재하는 편집자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정치와 사회의 일을 한 집안 이야기와 같이 알도록 해 주어야 하며, 어떠한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면 그 실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칭찬’ 또는 ‘징계’가 되도록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립신문』이 ‘소문’을 어떻게 ‘정보’로 바꾸어 놓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단지 떠도는 ‘소문’ 또는 ‘풍문’은 신문이란 공적 담론의 장 안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계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규칙은 무엇보다 독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쉽고, 마치 자신 집안의 일처럼 가깝게 그리고 ‘징계’ 또는 ‘칭찬’할만한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단지 떠도는 ‘소문’ 또는 ‘풍설’을 어떠한 원칙에 의해 포착하고, 계열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71]

이러한 ‘소문’의 포착에 사용되는 우선적인 기준은 물론 ‘계몽성’이었다. 『독립신문』에 실린 대부분의 기사들은 근대화를 위한 독자 계몽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잡보란의 경우 주로 근대적 ‘법률’을 기준으로 국민이 가져야할 덕목을 가르치는 하나의 정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독립신문』이 ‘소문’이나 ‘풍설’에 불과한 사건을 기사로 게재할 때, 그것은 일상적인 사건의 실례를 제시함으로서 독자에게 징계가 되기도 또는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도 한다.[72] 이렇게 신문 매체에 게재된 기사는 하나의 일정한 ‘정보’로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문 매체의 글쓰기는 편집자, 즉 기사의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독자투고>의 서술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71)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215쪽.

72) 신문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독자의 투고를 제시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글의 편집자는 신문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내용의 <독자투고>를 게재하고 글 뒤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편집자 주를 덧붙이고 있다. “…신문을 ᄒᆞᄌᆞ거드면 죠션셔ᄂᆞᆫ 감샤 ᄒᆞ단 말은 듯지 못ᄒᆞ고 남의게 유익 업시 미움ᄆᆞᆫ 밧ᄂᆞᆫᄃᆡ 다ᄆᆞᆫ ᄆᆞᄋᆞᆷ이 길겁게 ᄒᆞᄂᆞᆫ거슨 만명에 ᄒᆞ나라도 우리 본의를 알아 주ᄂᆞᆫ이가 잇ᄂᆞᆫ지라 이 편지ᄂᆞᆫ 우리가 오ᄂᆞᆯ ᄭᆞ지 ᄒᆞ야 셰계에 죠션도 신문이 ᄇᆡᆨ셩의 친구로 아ᄂᆞᆫ 사ᄅᆞᆷ이 잇ᄂᆞᆫ 거슬 알게 ᄒᆞᄌᆞᄂᆞᆫ 주의로라”, 『독립신문』, 1897.6.3, <논설>

3. <독자투고>의 서술자와 ‘전언(傳言)’의 방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사회 각처의 ‘소문’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문’은 하나의 ‘정보’로서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다른 독자(투고자)의 사건들은 칭찬 또는 징계가 되는 사례로서 제시되어 효과적인 계몽적 수단이 되었다.

‘소문’을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하는 이러한 과정에는 무엇보다 서술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신문 기사의 서술자는 『독립신문』의 편집자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투고>의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독립신문』의 입장과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 즉, 편집자의 성격을 지닌 서술자는 취재된 소문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도해야 했다. 『독립신문』은 ‘편당 없이’ 공정하게 기사를 서술해야 했고, 민간에 떠도는 ‘소문’은 단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했다. 따라서 편집자, 즉 기사 서술자는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독자투고>의 서술 방식을 통해 살펴보겠다.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일정한 유형으로 서술되는데, 이러한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서술자의 발화 — 투고 내용
㉯ 투고 내용 — 서술자의 발화
㉰ 서술자의 발화 — 투고 내용 — 서술자의 발화

㉮의 유형은 서술자가 주로 투고자의 정보를 간략히 제시하고 그 투고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이다. 이때 서술자는 투고자의 정보 또는 게재 배경을 간략히 제시하고 투고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서술한다.

㉮-1 호남 최씨의 편지에 말 ᄒᆞ기를 학부 대신 신긔션의 비루ᄒᆞᆫ 말과 힝실은 이왕 독립 신문에 만히 말 ᄒᆞ엿거니와 비도쟝 학부 대신이 아어와 법어 학교에 와서 대학 밍ᄌᆞ 론어를 강 ᄒᆞ라 ᄒᆞ니 신씨가 이학교에셔 이런 칙을 ᄀᆞ르치ᄂᆞᆫ 줄노 알고 그리 ᄒᆞ

엿ᄂᆞᆫ지 병신 구실을 ᄒᆞ여셔 셰샹 사ᄅᆞᆷ을 웃게 ᄒᆞ랴고 그리 ᄒᆞ엿ᄂᆞᆫ지 신문샤에셔 알게 ᄒᆞ여 주기를 ᄇᆞ라노라73)(밑줄 인용자)

㉮-2 연산 김씨가 신문샤에 편지 ᄒᆞ엿ᄂᆞᆫᄃᆡ 공쥬부 관찰ᄉᆞ 리건하가 난장을 터셔 각 쳐에 노름이 만ᄒᆞᆫᄃᆡ 노름군이 돈이 업셔지면 화적이 되야 ᄇᆡᆨ셩들이 살수 업고 노름군 들이 술을 취ᄒᆞ고 픠악을 부려 공쥬영이 아울지 못 ᄒᆞᆫ다고 ᄒᆞ엿더라74)(밑줄 인용자)

㉮-3 이 말은 ᄂᆡ부 디방국장 김즁환씨가 디방 관리 ᄇᆡᆨ셩을 ᄉᆞ랑 ᄒᆞᄂᆞᆫ 말이라고 보 내엿기로 우리가 긔경 ᄒᆞ야 긔직 ᄒᆞ노니 디방관가ᄂᆞᆫ 여러분네 이말숨 드르오 우리 나 라 억죠챵ᄉᆡᆼ을 ᄉᆞ랑 ᄒᆞ시ᄂᆞᆫ 혜턱을 입히고져 ᄒᆞ심으로 즁앙 정부룰 두사 각기 쥬관케 ᄒᆞ시며 도를 난호사 관찰ᄉᆞ를 두시고 군을 난호사 군슈를 두심은 대져 대군쥬의 셩의 를 본밧아 즁앙 정부에셔 뎡영을 포신 ᄒᆞ면 각도 관찰ᄉᆞᄂᆞᆫ 이거슬 쥰ᄒᆞ야 각 군슈ᄂᆞᆫ 맛ᄒᆞᆫ바 디방 인민의게 자세히 호유 ᄒᆞ야 ᄇᆡᆨ셩이 ᄒᆞ나라도 불지ᄒᆞᄂᆞᆫ 폐가 업게 규모를 일온바 무릇 엇던 정부령이던지 그 실샹은 ᄇᆡᆨ셩을 위 ᄒᆞ며 국가를 보젼케 ᄒᆞᆷ인즉 엇지 그직칙과 ᄉᆞ무를 당ᄒᆞᆫ 신하이 되야 츄호라도 억이리요(이하 생략)75)(밑줄 인용자)

㉮-4 엇던 유지각ᄒᆞᆫ 사ᄅᆞᆷ이 죠ᄒᆞᆫ 말을 ᄒᆞ여 보내엿기로 론셜 ᄃᆡ로 올니노라 사ᄅᆞᆷ이 셰샹에 사ᄂᆞᆫ거시 세가지에 지내ᄂᆞᆫᄇᆡ 업시니 의복과 음식과 집이라 이세가지 일에 사ᄅᆞᆷ 마다 그분슈와 힘을 ᄡᅳ라 ᄒᆞᄂᆞᆫ거시 ᄇᆡᆨ쳔 만칭이나 다르니 그다른 곡절은 각각 ᄌᆡ죠와 지각이 혹 낫기도 ᄒᆞ고 혹 못 ᄒᆞ기도 ᄒᆞᆷ으로 부귀와 빈쳔이 잇서 사ᄅᆞᆷ은 ᄀᆞᆺᄒᆞ나 분슈 가 다른지라(이하생략)76)(밑줄 인용자)

㉮의 유형은 위 예문에서처럼 서술자가 투고 내용 앞부분에 투고자의 간략한 정보와 게재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투고 내용의 외부에서 간략한 게재 배경만을 설명하며, 투고 내용은 최대한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유형은 투고 내용을 서술한 후, 서술자가 그 뒤에 투고자의 정보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형식을 따른다.

㉯-1 량천군 아젼 장우범이란 놈이 협잡이 무슈 ᄒᆞ야 ᄇᆡᆨ셩의게 토식과 쇽여 먹ᄂᆞᆫ거 시 젹지 안ᄒᆞᆫ 놈인ᄃᆡ ᄇᆡᆨ셩을 무쇼 ᄒᆞ야 타살ᄒᆞᆫ 일도 잇고 이왕에 비도를 ᄶᅵ고 본관을

73) 『독립신문』, 1896.6.18, <잡보>

74) 『독립신문』, 1896.6.27, <잡보>

75) 『독립신문』, 1896.9.19, <논설>

76) 『독립신문』, 1896.11.26, <논설>

가두엇다고 강원도 ᄇᆡᆨ셩들이 신문샤에 편지를 ᄒᆞ엿다더라[77](밑줄 인용자)

㉯-2 평양군에 사ᄂᆞᆫ 인민들은 괴이ᄒᆞᆫ 풍쇽을 이ᄯᅢᄭᆞ지 고치지 안코 사ᄅᆞᆷ들이 계집 ᄋᆞᄒᆡ를 새로 나면 잘 길너 셩혼 식힐 ᄉᆡᆼ각은 아니 ᄒᆞ고 기ᄉᆡᆼ 구실 식히기을 본ᄅᆡ 죠흔 일노 아라 지금은 그 풍쇽이 오히려 젼보다 더욱 심 ᄒᆞ고 무당 불너 졈 ᄒᆞ기와 굿 ᄒᆞ기며 판슈 불너 문복 ᄒᆞ기 경 닑기며 신당 위 ᄒᆞ기 모든 악습을 낫낫치 다 말 ᄒᆞᆯ슈 업다고 편지가 신문샤에 왓스니 참 그러 ᄒᆞᆫ지 과연 편지 ᄉᆞ연과 ᄀᆞᆺᄒᆞᆯ진ᄃᆡ 평양 사ᄅᆞᆷ들은 아직도 ᄭᅮᆷ을 못 ᄭᆡ다른 듯 ᄒᆞ다고 ᄒᆞ더라[78](밑줄 인용자)

㉯의 유형은 대부분 잡보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서술자의 투고 내용 서술 뒤에 투고 배경과 그에 대한 간략한 평가가 삽입되는 형식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투고 내용을 요약·서술한 뒤 말미에 간략한 투고 정보와 게재 배경, 또는 평가를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 유형은 게재 배경을 간략히 제시하고 투고 내용을 서술한 후 그 뒤에 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서술자의 언급으로 마무리를 맺는 방식이다.

㉰-1 안동 김윤보란 사ᄅᆞᆷ이 신문샤에 편지를 ᄒᆞ엿ᄂᆞᆫᄃᆡ 민ᄉᆞ 쇼숑을 밧지 안ᄒᆞᆫ제가 두서너 돌이 되ᄆᆡ 경향간에 민숑이 산ᄀᆞᆺ치 싸여 ᄇᆡᆨ셩의게 ᄒᆡ론 일이 만타니 ᄌᆡ판소에서 민숑을 바다 결쳐 ᄒᆞ여 주기를 우리ᄂᆞᆫ ᄇᆞ라노라[79](밑줄 인용자)

㉰-2 양ᄉᆞ골 ᄉᆞᄂᆞᆫ 유치도가 신문샤에 편지 ᄒᆞ엿ᄂᆞᆫᄃᆡ 동촌 박셕골 리윤삼이가 죽은 후에 그어미가 며나리를 위 ᄒᆞ야 양손 리경구를 졍 ᄒᆞ엿더니 양ᄌᆞ 온지 셕달만에 리경구가 졔 안ᄒᆡ를 내여 쫏고 그 양모와 함의가 되야 무례ᄒᆞᆫ 일이 잇ᄂᆞᆫ 듯 ᄒᆞ다니 이런 일은 경무쳥에셔 자셰히 치탐 ᄒᆞ야 이말이 분명ᄒᆞᆯ진ᄃᆡ 잡아다 ᄌᆡ판쇼로 넘겨 법률ᄃᆡ로 다ᄉᆞ리ᄂᆞᆫ거시 올흘듯 ᄒᆞ더라[80](밑줄 인용자)

㉰-3 서울 동쇼문 밧 셩북동 사ᄂᆞᆫ 젼 감찰 방한영씨가 각도 각군에 뎐답 결총과 인민 호총 중에 ᄉᆡᆼ직 ᄒᆞᆯ 방칙을 글로 지여 신문샤에 보내엿기에 좌에 긔ᄌᆡ ᄒᆞ노라 슉종죠 경자 년에 뎐답을 쳑량 ᄒᆞ니 결 총이 칠십 팔만 이쳔 칠ᄇᆡᆨ 팔십 칠결이며 민호를 죠ᄉᆞᄒᆞ니 호 슈 일ᄇᆡᆨ 이십 이만 이쳔 삼ᄇᆡᆨ 륙십 ᄉᆞ호요 순조죠 무ᄌᆞ 년에 뎐답을 ᄀᆡ량 ᄒᆞ니 결총이 일ᄇᆡᆨ ᄉᆞ십 오만 륙쳔 륙ᄇᆡᆨ 결이요 민호를 죠ᄉᆞ ᄒᆞ니 호 슈가 일ᄇᆡᆨ ᄉᆞ십

77) 『독립신문』, 1896.10.10, <잡보>

78) 『독립신문』, 1897.2.16, <잡보>

79) 『독립신문』, 1896.5.14, <잡보>

80) 『독립신문』, 1896.9.29, <잡보>

삼만 오천 삼ᄇᆡᆨ 호인ᄃᆡ 나라 법에 뎐답 ᄀᆡ량을 삼십 년에 일ᄎᆞ식 ᄒᆞᄂᆞᆫ 거신ᄃᆡ 지금 칠십 년이 되엿스니 그 간에 곡식 ᄉᆡᆼ ᄒᆞᆯ 흙이 다 ᄀᆡ간치 아니 ᄒᆞᆷ이 업셧스며 ᄯᅩᄂᆞᆫ 각도 각군이 매년 지결을 보 ᄒᆞᆫ즉 혹 몃ᄇᆡᆨ결 혹 몃천결식 감 ᄒᆞ여 주니 감 ᄒᆞ여 준 몽혜ᄂᆞᆫ 적지 아니 ᄒᆞ나 원ᄅᆡ 은결과 새로 ᄀᆡ간 ᄒᆞ고 도로 ᄀᆡ간 ᄒᆞᆫ 허다 결복은 지우금 승총이 아니 되고 다 은결ᄆᆞᆫ 되엿스니 지금 경장 ᄒᆞᄂᆞᆫ거슨 모도 정직 공평ᄒᆞᆫ 일로 쥬장을 삼으되 뎐답 결총과 인민 호슈에 이르러셔ᄂᆞᆫ 경장을 아니 ᄒᆞ니엇지 간절히 민망치 아니 ᄒᆞ리요 (중략) 무론 누구던지 청념 ᄒᆞ고 근간 ᄒᆞ고 문산 잇ᄂᆞᆫ 사ᄅᆞᆷ 이십 륙인ᄆᆞᆫ ᄲᅩᆸ아셔 총무관을 ᄉᆞᆷ아 ᄒᆞᆫ 관찰부에 둘식 보내여 각군에 당도 ᄒᆞ거든 ᄒᆡ군 향유중에 ᄯᅩᄒᆞᆫ 념근 문산 잇ᄂᆞᆫ 사ᄅᆞᆷ ᄒᆞ나식 ᄲᅩᆸ아 감무관을 ᄉᆞᆷ고 ᄒᆡ군 일 아ᄂᆞᆫ 아젼 중에 념근 문산 잇ᄂᆞᆫ 사ᄅᆞᆷ 둘식 ᄲᅩᆸ아 셔긔 고원을 ᄉᆞᆷ고 ᄒᆡ군 농민중에 근간ᄒᆞᆫ 사ᄅᆞᆷ 넷식 ᄲᅩᆸ아 량척 장부를 삼아 ᄒᆞᆫ 고을 척량 ᄒᆞᄂᆞᆫ 일이 ᄆᆞᆺ시 나거던 총무관이 ᄒᆡ군슈로 더브러 새 량안을 슈정 ᄒᆞ야 ᄒᆞᆫ 벌식은 각 ᄒᆡ면이나 방이나 샤에 두고 ᄒᆞᆫ벌은 ᄒᆡ군에 두고 ᄒᆞᆫ벌은 ᄒᆡ 관찰부에 두고 ᄒᆞᆫ벌은 탁지부에 올니게 ᄒᆞ고 뎌간에 인민의 호구 슈효도 ᄯᅩ 죵실히 죠ᄉᆞ가 될터이라 뎐답을 ᄀᆡ량 ᄒᆞ라면 일년에 드ᄂᆞᆫ 경비가 모도 합 ᄒᆞ야 삼ᄉᆞ 만원에 지나지 아니 ᄒᆞ겟고 나라에 지물 ᄉᆡᆼ기기ᄂᆞᆫ 일년에 슈ᄇᆡᆨ 만원이 될터인즉 이 말ᄃᆡ로 실시가 될 ᄃᆡ경이면 뎐답 결총도 공평히 되야 농업도 더 흥왕 하야 목젼에 나라이 부강 ᄒᆞ고 ᄇᆡᆨ셩이 흥왕 ᄒᆞ겟더라 방씨의 말이 죠흔 말이요 ᄯᅩ 정부에셔 불가불이 일을 아니 ᄒᆞ야셔ᄂᆞᆫ 못 쓸줄을 우리도 아나 지금 이런 일을 정부에셔 시작 ᄒᆞ엿다가ᄂᆞᆫ 부비ᄆᆞᆫ 들지 실샹 효험은 업슬거시 죠션에 지금 ᄃᆡ면 칙량 ᄒᆞᆯ 학문 ᄀᆞ진 사ᄅᆞᆷ도 업고 셜령 이왕 법ᄃᆡ로 ᄒᆞᆫ다 ᄒᆞ더ᄅᆡ도 협잡 ᄭᆞ닭에 이왕 ᄃᆡ로도 못 될터이니 이런 일은 아즉 기다렷다가 나라에 거즛 말 아이 ᄒᆞ고 남 쇽히ᄂᆞᆫ거슬 쳔히 넉히ᄂᆞᆫ 학문이 ᄉᆡᆼ긴 연후에 ᄒᆞᄂᆞᆫ거시 ᄆᆞᆺ당ᄒᆞᆯ듯 ᄒᆞ더라[81](밑줄 인용자)

㉰의 유형은 투고 내용의 앞과 뒤에 서술자의 시선이 드러나는 형식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투고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투고자의 정보나 게재 배경을 제시하고, 전체 투고 글의 말미에 그에 대한 간략한 평가 내지는 논평을 곁들이고 있다.

위 예문에서처럼 <독자투고>는 ㉮, ㉯,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서술자의 발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볼 때, <독자투고>의 전체적인 틀은 서술자가 외부에서 투고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술자는 외부에서 단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언자(傳言子)' 내지는 '기록자'의 역할을 취하고 있고, 투고 내

81) 『독립신문』, 1897.5.22, <논설>

용은 내부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투고 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서술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투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의 경우에도 서술자는 투고 내용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할 수 있지만, 그 투고 내용 자체는 있는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결국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이러한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의 이야기는 외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자에 의해 투고 내용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자투고>는 논설란과 잡보란에서 각각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서술되고 있다.

3-1. 논설란의 <독자투고>

논설란에 실린 대부분의 <독자투고>는 일반적인 논설과 마찬가지로 투고자의 주의・주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로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다루는 잡보란의 성격과는 다르게 주로 추상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의 글들이 게재된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투고자의 글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와 백성, 또는 '유지각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개자 역할은 신문이란 매체가 가지는 성격을 서술자가 그대로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문이란 매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담론들이 유통되는 공공영역 안에서 독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 전달의 역할을 한다. <독자투고>에서 나타나는 서술자는 신문이란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언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언(傳言)'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의는 이미 창간호 논설에서 말하였듯이 『독립신문』이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82]

82) "우리는 첫ᄌᆡ 편벽 되지 아니ᄒᆞᆫ고로 무ᄉᆞᆷ 당에도 상관이 업고 샹하귀쳔을 달니ᄃᆡ졉아니ᄒᆞ고 모도 죠션 사ᄅᆞᆷ으로만 알고 죠션만 위ᄒᆞ며공평이 인민의게 말 ᄒᆞᆯ터인ᄃᆡ 우리가 셔울 ᄇᆡᆨ셩만 위ᄒᆞᆯ게 아니라 **죠션젼국인민을 위ᄒᆞ여 무ᄉᆞᆷ일이든지 ᄃᆡ언ᄒᆞ여 주라ᄒᆞᆷ** 정부에셔 ᄒᆞ시는일을 ᄇᆡᆨ셩의게 젼ᄒᆞᆯ터이요 ᄇᆡᆨ셩의 졍셰을 정부에 젼ᄒᆞᆯ터이니 만일 ᄇᆡᆨ셩이 정부일을 자세이알고 정부에셔 ᄇᆡᆨ셩에 일을 자세이 아시면 피ᄎᆞ에 유익ᄒᆞᆫ 일만히 잇슬터이요 불평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의심ᄒᆞ는 ᄉᆡᆼ각이 업서질 터

『독립신문』은 독자를 조선 전국의 인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대신 이야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의는 『독립신문』이 독자의 투고 글을 받아 그 이야기를 '대언'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언자'로서의 서술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준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논설란의 <독자투고>에서 서술자는 '어떤 유지각훈 사람의(누구의) 글을 좌에 긔지ᄒᆞ노라'라는 투고 기사를 게재하게 된 배경만을 서술하고, 이후의 전문을 투고자가 보낸 글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서술자는 투고자의 글을 읽고 그것을 대강 요약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독립신문』의 논설란은 일면 머리기사이자 『독립신문』의 사의(社意)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란이다. 따라서 『독립신문』의 논설란에 게재되는 투고 기사들은 『독립신문』의 입장과 그 성격이 맞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자투고>의 서술자는 일반적인 논설보다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게재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지 '전언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자신 또는 신문사의 사의를 숨기고 구체적인 독자의 언표를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신문이라는 공공영역 안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독립신문』에 실린 독자 투고 방식의 논설은 다양한 글쓰기 방식의 실험에 더욱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일반적인 논설에 비해 독자투고 방식의 글쓰기는 『독립신문』 편집자의 직접적인 언설이 아니므로 정치적인 압력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형태의 논설보다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유연한 글쓰기가 시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비유나 우언의 방식을 활용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논설은 이러한 정부 비판의 역할과 효과적인 계몽의 기획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독자투고>는 서술자가 표면적으로는 단지 '전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옴"(강조 인용자), 『독립신문』, 1896.4.7, <논설>

㉮ 사ᄅᆞᆷ이란거슨 학문이 업슬소록 허ᄒᆞᆫ거슬 밋고 리치 업ᄂᆞᆫ 일을 ᄇᆞ라ᄂᆞᆫ거시라 그런고로 무당과 판슈와 션앙당과 풍슈와 즁과 각ᄉᆡᆨ 이런 무리들이 ᄇᆡᆨ셩을 쇽이고 돈을 ᄲᅦ시며 ᄆᆞᄋᆞᆷ이 약ᄒᆞᆫ 녀인네와 허ᄒᆞᆫ거슬 밋ᄂᆞᆫ 사나희들을 아혹히 유인ᄒᆞ야 ᄌᆡ물을 ᄇᆞ리고 악귀를 위ᄒᆞ게 ᄒᆞ니 그거슨 다름이 아니라 사ᄅᆞᆷ들이 몰나셔 이러케 쇽ᄂᆞᆫ거시요 이 사ᄅᆞᆷ들이 몰라셔 ᄂᆞᆷ을 쇽이ᄂᆞᆫ거시니 엇지 가이 업지 안ᄒᆞ리요 …(중략)… 우리가 ᄇᆞ라건ᄃᆡ 죠션 인민도 ᄎᆞᄎᆞ 이 허무ᄒᆞ고 요ᄉᆞᄒᆞᆫ 무당과 판슈와 즁과 풍슈들을 밋지 말고 리치 잇ᄂᆞᆫ 졍직ᄒᆞᆫ ᄆᆞᄋᆞᆷ이 ᄉᆡᆼ겨 올코 ᄎᆞᆷ 착ᄒᆞ고 의 잇고 신 잇고 회셩 잇ᄂᆞᆫ 일을 실샹으로 ᄒᆡᆼᄒᆞ면 다만 ᄌᆞ긔의게만 유죠 ᄒᆞᆯᄲᅮᆫ 아니라 젼국에 큰 리가 잇스리라 우리가 무당과 판슈와 즁과 풍슈를 지금 ᄎᆡᆨ망 ᄒᆞᄂᆞᆫ거시 아니라 모로ᄂᆞᆫ 고로 이런 일을 ᄒᆞ야 ᄉᆡᆼᄋᆡ ᄒᆞ랴ᄂᆞᆫ 쥬의니 만일 이거시 허무ᄒᆞ고 인민의게 유익지 안ᄒᆞᆯ줄 알면 이사ᄅᆞᆷ들도 이런 일을 밋지 안ᄒᆞᆯ터이요 ᄌᆞ긔들이 밋지 안ᄒᆞ면 다른사ᄅᆞᆷ을 쇽이지 아니 ᄒᆞᆯ듯 ᄒᆞ노라 ……83)

㉯ 판슈와 무당의 허망ᄒᆞᆫ 것을 우리 신문 상에 여러번 긔ᄌᆡ ᄒᆞ엿거니와 우리 신문을 보고 ᄇᆞᆰ은 사ᄅᆞᆷ들은 ᄭᆡᄃᆞ라 고샤 지ᄂᆡᄂᆞᆫ것과 불공 ᄒᆞᄂᆞᆫ것과 굿 ᄒᆞᄂᆞᆫ 것을 뎡지 ᄒᆞ야 몃ᄃᆞᆯ을 지ᄂᆡ 본즉 이런 일 아니 ᄒᆞᆫ다고 죠곰치도 ᄒᆡ로은 일 업고 ᄌᆡ물을 허비치 아니 ᄒᆞ엿ᄂᆞᆫ지라 이런 사ᄅᆞᆷ들은 ᄭᆡᄃᆞᆺ게 ᄒᆞ여 준 것을 곰압게 넉이며 다른 사ᄅᆞᆷ이 ᄭᆡᄃᆞᆺ지 못 ᄒᆞ고 죵시 이런 허망ᄒᆞᆫ 일을 슝샹 ᄒᆞᄂᆞᆫ것을 보면 우리와 ᄀᆞᆺ치 ᄋᆡ둛게 넉이ᄂᆞᆫ지라 그러 ᄒᆞ나 학문 업고 ᄉᆡᆼ각 없ᄂᆞᆫ 녀인네들이 죵시도 구습에 졋져 ᄭᆡ치지를 못 ᄒᆞᆫ이가 만히 잇스나 우리 말ᄆᆞᆫ 드를것이 아니라 이왕에 판슈 노릇 ᄒᆞ던 사ᄅᆞᆷ의 편지를 긔ᄌᆡ ᄒᆞ니 이걸 보고 판슈와 무당들이 엇더케 사ᄅᆞᆷ을 쇽이ᄂᆞᆫ지 가히 알듯 ᄒᆞ더라 평양 사ᄂᆞᆫ 판슈 아모씨가 신문샤에 편지 ᄒᆞ기를 ᄌᆞ긔ᄂᆞᆫ 본ᄅᆡ 눈이 어두어 ᄒᆡᆼᄒᆞᄂᆞᆫ 일과 ᄒᆞᄂᆞᆫ 말이 모도 죄ᄆᆞᆫ 짓더니 젼도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예수의 ᄯᅳᆺ으로 ᄀᆞᆯᄋᆞ치ᄂᆞᆫ 말이 뎜 ᄒᆞ고 경 닑고 긔도 ᄒᆞᄂᆞᆫ것이 모도 허황 ᄒᆞᆯᄲᅮᆫᄆᆞᆫ 아니라 하나님ᄭᅴ 큰 죄를 짓ᄂᆞᆫ것이라 ᄒᆞ며 즉시 회ᄀᆡᄒᆞ라 ᄒᆞ기에 그 말을 듯고 감안이 혜아려 본즉 과연 젼일에 거즛 말을 ᄒᆞ야 눈 감은 사ᄅᆞᆷ이 눈 ᄯᅳᆫ 사ᄅᆞᆷ들을 쇽여 미혹케 ᄆᆞᆫ드러 유슈ᄒᆞᆫ 돈을 헛되이 ᄲᅦ아셔 먹은 일을 묵묵히 ᄉᆡᆼ각 ᄒᆞ고 ᄎᆞᄎᆞ ᄭᆡᄃᆞ르니 쪽히 대셩 통곡 ᄒᆞᆯᄆᆞᆫ ᄒᆞᆫ지라 젼일에 ᄒᆞ던 허망 ᄒᆞᆫ 일을 일졀히 바리고 화평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엇어 범ᄇᆡᆨ 쳐ᄉᆞ를 진실히 ᄒᆞ랴ᄂᆞᆫ 가온ᄃᆡ 가탄ᄒᆞᆫ 일이 잇스니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텹을 엇어ᄂᆞᆫᄃᆡ 그 본텨가 매양 시긔 ᄒᆞ야 그 텹을 항샹 쥭이려 ᄒᆞ되 방칙이 업셔 답답ᄒᆞᆫ 즈음에 ᄒᆞ로ᄂᆞᆫ ᄒᆞᆫ 판슈를 챠ᄌᆞ 가셔 판슈를 대 ᄒᆞ야 ᄒᆞᄂᆞᆫ 말이 나의 남편이 텹을 엇어 침혹 ᄒᆞ고 내게ᄂᆞᆫ 근일에 죠곰 범연 ᄒᆞᆫ 듯 ᄒᆞ니 불가불 그 텹을 쥭여 업셰일지라 그 쥭일 방칙을 ᄀᆞᄅᆞ쳐 ᄃᆞᆯ나 ᄒᆞ며 돈을 만히 주마 ᄒᆞ니ᄭᆞ 그 판슈

83) 『독립신문』, 1896.5.7, <논설>

가 욕심을 내여 ᄒᆞᄂᆞᆫ 말이 그 텹을 죽일 방도가 잇다고 ᄒᆞ며 말 ᄒᆞ되 경당을 비셜 ᄒᆞ고 축원 ᄒᆞ며 그 텹의 모양을 화본으로 그려 담벽에 붓치고 바늘노 살을 ᄆᆞᆫ드러 놋코 그 텹의 ᄉᆡᆼ명을 읽으되 눈이 ᄲᆡ여지고 목이 불어져 죽으라고 ᄒᆞᆯ ᄯᅢ에 다른 사ᄅᆞᆷ이 겻ᄒᆡ 셧다가 그 바늘 살노 그 화본을 쏘면셔 경을 닑으면 그 텹이 곳 죽을리라 ᄒᆞᆷᄋᆡ 미욱 ᄒᆞ고 아득ᄒᆞᆫ 그 본텨 녀편네가 이 말을 참 고지 듯고 돈 칠십량과 음식을 치려 ᄀᆞ지고 그 판슈의 집에 가셔 판슈의 식히던ᄃᆡ로 ᄒᆡᆼ ᄒᆞᆯ ᄯᅢ에 그 텹의 친구가 그 말을 듯고 가셔 그 텹의게 젼 ᄒᆞᆫ즉 그 텹이 곳 그 판슈의 집을 ᄎᆞᄌᆞ 가셔 문 밧긔 감안이 셔셔 드르니 그 판슈가 방쟝 그 텹의 ᄉᆡᆼ명을 불너 악담을 ᄒᆞᄂᆞᆫᄃᆡ 그 텨ᄂᆞᆫ 바늘 살노 그 텹의 화본을 향ᄒᆞ야 쏘거늘 그 텹이 그 광경을 감안히 ᄉᆞᆯ펴 보고 그 악담을 잠간 엇어 드르니 가ᄉᆞᆷ이 찌여지ᄂᆞᆫ것 ᄀᆞᆺᄒᆞᆫ지라 곳 ᄃᆞᆯ녀들어 그 판슈 놈과 그 본텨 년을 잡아 무슈 란타 ᄒᆞ고 뎨 화본을 것으어 ᄀᆞ지고 뎌의 집으로 도라 가셔 ᄉᆡᆼ각 ᄒᆞᆫ즉 ᄆᆞᄋᆞᆷ이 더옥 황홀 ᄒᆞ고 긔가 막혀 아모리 ᄉᆡᆼ각 ᄒᆞ되 그 판슈 놈과 그 본텨를 그ᄃᆡ로 둘슈 업셔 다시 가셔 풍파를 내엿다고 ᄒᆞ니 지금 셰샹 일을 보건ᄃᆡ 이러ᄒᆞᆫ 허무ᄒᆞᆫ 일이 곳 업셰야 이 ᄀᆞᆺᄒᆞᆫ 변괴가 다시 잇지 안켓고 우리 나라이 쇽히 문명 진보 ᄒᆞᆯ터이니 원컨ᄃᆡ 셔울과 평양과 긔외 각도 각군에 잇ᄂᆞᆫ 판슈와 무당들을 다 업셰일ᄲᅮᆫ문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은 이런 일을 알고 곳 ᄭᆡᄃᆞᆺᄂᆞᆫ 것이 텬디 간에 큰 복을 밧ᄂᆞᆫ것이라 ᄒᆞ노라[84]

글 ㉮와 ㉯는 모두 '무당'과 '판슈'와 같은 전근대적인 미신을 비판하며 독자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논설이다. 하지만 ㉮는 일반적인 논설이고 ㉯는 <독자투고> 형식을 띠고 있는 논설이다. 『독립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논설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계몽의 기획을 수행하고 있다. 글 ㉮ 역시 서술자의 일방적인 언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일반적 논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의 경우는 '판슈' 노릇을 하던 사람의 글을 투고 받아 게재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무당과 판수의 허망함을 이미 여러 번 신문상에 게재하였지만 아직도 그러한 구습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이왕에 판수 노릇 하던 사람의 편지를 게재하니 판수와 무당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 안에는 하나의 서사적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첩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던 어리석은 본처가 판수에게 속아 허황된 짓을 하다가 혼줄이 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글의 끝부분에서는 판수와 무당을 다 없애야 천지간에 큰 복을 받는 것이라는 간단한 논평이 들어 있다. 결국 편집자는 '판수노릇

84) 『독립신문』, 1897.9.14, <논설>

하던 사람'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근대적인 미신을 타파하자는 의도를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편집자는 일반적인 논설 또는 잡보 기사를 통해서보다 이와 같은 글이 독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투고 방식의 글쓰기는 독자를 계몽하는 데 더욱 효과적 방식으로 활용된다.

다음은 감옥 관련 논설이다.

㉮ ……죠션 사ᄅᆞᆷ ᄉᆡᆼ각에ᄂᆞᆫ 사ᄅᆞᆷ이 죄가 잇서 법샤에 잡혀 옥에 갓치면 고ᄉᆡᆼ을 만히 ᄒᆞᆯ쇼록 죠흔줄노 ᄉᆡᆼ각 ᄒᆞ되 ᄀᆡ화ᄒᆞᆫ 사ᄅᆞᆷ의 ᄉᆡᆼ각은 사ᄅᆞᆷ이 죄가 잇서 법률노 ᄌᆡ판ᄒᆞᆫ 후에 죄가 잇시면 형벌을 그죄에 맛당 ᄒᆞ게 마련 ᄒᆞ고 ᄒᆞᆫ번 형벌을 정ᄒᆞᆫ 후에ᄂᆞᆫ 그ᄃᆡ로만 형벌을 주ᄂᆞᆫ거시 올코 그 외에 형벌을 더 ᄒᆞᆫ다든지 고ᄉᆡᆼ을 더 식힌다든지 ᄯᅩ 덜 ᄒᆞᆫ다든지 ᄒᆞᄂᆞᆫ거슨 법률을 어긔ᄂᆞᆫ거시니 이죄ᄂᆞᆫ 법률을 어긔ᄂᆞᆫ거시니 이죄ᄂᆞᆫ 법률ᄂᆞᆫ 법률 맛흔 관원이 닙어야 올흔지라 죠션 법률에 교 ᄒᆞᄂᆞᆫ것과 죵신 증역 ᄒᆞᄂᆞᆫ것과 정비 보내ᄂᆞᆫ것과 태치ᄂᆞᆫ 법은 잇거니와 그 외에 죄인이 병이 들게 ᄒᆞᆫ다든지 굼게 ᄒᆞᆫ다든지 얼게 ᄒᆞᆫ다든지 ᄒᆞᄂᆞᆫ 형벌은 업스니 감옥셔에 갓친 죄인들이 만일 음식이 젹어 주린다든지 거쳐와 공긔가 부정 ᄒᆞ야 병이 난다든지 치워셔 어ᄂᆞᆫ쟈가 잇시면 이거슨 옥 맛흔 관원의 죄가 되던지 뎡부에셔 그죄를 닙어야 올흔지라……아직은 경무쳥 시쟉ᄒᆞᆫ지가 얼마 안 되ᄂᆞᆫ고로 죵시 이왕 포쳥 풍쇽이 혹 잇ᄂᆞᆫ지도 모로거니와 차차 규칙이 셔고 관원들이 더 열녀가면 죠션도 경무쳥이 ᄇᆡᆨ셩의 친구로 알 날이 잇슬터이라 뎨일 급ᄒᆞᆫ 거슨 경무쳥에 의약국이 잇서 누구던지 불ᄒᆡᆼ이 샹 ᄒᆞ던지 급ᄒᆞᆫ 병이 나던지 옥즁에 죄인들이 병이 잇다던지 ᄒᆞ면 이 의원이 도라 다니며 이런 사ᄅᆞᆷ들을 다 치료 ᄒᆞ야 주ᄂᆞᆫ거시 경무쳥 직무요 ᄯᅩ 이런 일이 차차 ᄇᆡᆨ셩을 감동케 ᄒᆞᄂᆞᆫ 시쵸요 개화의 근본이라 개화라 ᄒᆞᄂᆞᆫ거슨 다른거시 아니라 전국 인민이 층등 업시 뎡부 은턱을 닙게 마련 ᄒᆞᆫ거슨즉 공평 이ᄌᆞ가 ᄀᆡ화 근본인줄노 우리ᄂᆞᆫ ᄉᆡᆼ각ᄒᆞ노라[85]

㉯ 죄수 정형 ○ 감옥셔 죄수들이 ᄒᆞᆫ 편지를 좌에 긔ᄌᆡ ᄒᆞ노라 우리ᄂᆞᆫ 다 감옥셔에셔 몃달 몃ᄒᆡ 혹 죵신 증역 ᄒᆞᄂᆞᆫ 죄인들이라 죄지경즁은 고샤 ᄒᆞ고 쵸로 갓흔 인ᄉᆡᆼ이 쳥츈 셰월을 옥즁에셔 보ᄂᆡ니 텬디간 가련ᄒᆞᆫ 목숨들이 오나 우리도 또한 대황뎨 폐하의 젹ᄌᆞ들인 고로 광대 ᄒᆞ옵신 셩은을 입어 혹 죽을 목숨을 산쟈도 잇코 몃 번식 감등하여 몃ᄒᆡ안에 나갈 쟈도 잇스니 실노 텬디부모 호ᄉᆡᆼ지덕이 지극 ᄒᆞ실ᄲᅮᆫ더러 ᄀᆡ명 진보 ᄒᆞᄂᆞᆫ 법률을 본밧아 인명을 앗기ᄂᆞᆫ 본의니 젼ᄃᆡ에 업ᄂᆞᆫ 조흔 법이라……쳥쵸에 불샹ᄒᆞᆫ 광경은 증정 둘과 미결수 ᄒᆞᆫ명 합 셰명이 닷ᄉᆡ 안에 죽엇ᄂᆞᆫ지라 외국셔ᄂᆞᆫ 미결수가 죽으면 법ᄉᆞ에셔 비샹금을 문다ᄂᆞᆫᄃᆡ 우리 나라에셔ᄂᆞᆫ 미결수의 ᄉᆡᆼᄉᆞ를 별노 계관

85) 『독립신문』, 1896.8.25, <논설>

업게 아니 이 ᄇᆡᆨ셩들 불샹치 안쇼닌가 ᄌᆡ판 쳐결 업시 몃ᄒᆡ식 가두어 두는 옥졍에 ᄒᆞ로 콩나물 살문 소금국 두 그릇세 뉘와 돌반직이 ᄒᆞᆫ 흰밥 피쥬발에 칠홉 그릇식 두ᄢᅢ 주는 것 바라고 긴긴 ᄒᆡ를 보ᄂᆡ니 넉넉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ᄒᆡ포 달포를 져당 ᄒᆞ야 이로 돈량 밥 그릇 ᄒᆡ다가 먹기 어렵거든 ᄒᆞᆷ을며 업는 사ᄅᆞᆷ이야 아모리 곤 ᄒᆞᆫ들 뉘게 말ᄒᆞ리요 옥즁이라는 것은 잘 잘 막고 양긔 ᄒᆞ여도 긔신 업다거ᄂᆞᆯ 이것으로 목 ᄆᆡ달고 견ᄃᆡ기 진졍 어렵도다 얼골이 누르고 다리가 틀니는즁 볏긔운도 못 쐬고 ᄒᆡᆼ긔 못ᄒᆞ니 마르고 어지러운ᄃᆡ ᄯᅡ에셔 습ᄒᆞᆫ 긔운은 올으고 엽헤셔 대쇼변 ᄂᆡᆷ시와 못된 악취에 악질이 아니 ᄉᆡᆼ길수 업고 벼룩 빈ᄃᆡ는 이로 잡지 못 ᄒᆞᆷ의 잠 ᄌᆞᆺᄎᆞ 못 자니 이즁에 병 안들지 몃치뇨 병원이 잇서 온돌에 치료 ᄒᆞ게 ᄒᆞ고 목욕간에 들어 탕 ᄒᆞ게 ᄒᆞ고 죵죵 셕탄슈 가져다가 간간에 ᄲᅮ려 악취를 졔 ᄒᆞ게 ᄒᆞ고 의원이 각금 와서 진ᄆᆡᆨ ᄒᆞ고 약을 주니 이런 법은 참 조켓마는 이번에 새로난 셔쟝이 신문을 엄금 ᄒᆞ시니 ᄎᆡᆨ과 신문 보는것은 관계치 아니 ᄒᆞᆯ 듯 ᄒᆞᆫᄃᆡ 금 ᄒᆞ니 알수 업고 일젼 져녁에 죄수들이 심회를 검치 못 ᄒᆞ야 ᄒᆞᆫ둘이 무ᄉᆞᆷ소릐 ᄒᆞ다가 ᄒᆞᆫ 간에 잇는 죄수 二十여명을 일졔히 착고 치고 칼 씨우니 여러 사ᄅᆞᆷ의 말이 좀 심ᄒᆞᆫ 일이라 조곰ᄆᆞᆫ 잘못 ᄒᆞ여도 형벌을 즁히 쓴다고들 ᄒᆞ니 본ᄅᆡ 낙송쟈 칭원으로 벌 당ᄒᆞᆫ 쟈가 슬혀 ᄒᆞ는 것은 ᄌᆞ연ᄒᆞᆫ 인졍이나 우리 ᄉᆡᆼ각에도 관리들이 다 죄수 좀 박ᄃᆡ ᄒᆞ는 모양인 고로 압뇌들이 더옥 심히 ᄒᆞ니 죄수를 마고 ᄃᆡ졉 ᄒᆞ는것은 이젼 포쳥 규례지 새로 마련ᄒᆞᆫ 감옥셔에셔는 ᄆᆞᆺ당ᄒᆞᆫ 일이 아닌듯 ᄒᆞ오 그러나 우리는 증역군이라 무엇을 아오릿가마는 이즁에셔 병들어 죽는 사ᄅᆞᆷ을 일년 통계 ᄒᆞ면 白여명이 되니 이 엇지 대황뎨 폐하의 시민 여ᄌᆞ ᄒᆞ시는 덕과 ᄀᆡ명ᄒᆞᆫ 법률에 ᄆᆞᆺ당 ᄒᆞᆷ이오릿가 옥졍이 이갓치 급ᄒᆞᆫᄃᆡ 일긔가 차차 더워 악취가 ᄉᆡᆼ기니 금년 동안에 白여명 불샹ᄒᆞᆫ 목숨을 ᄉᆡᆼ각 ᄒᆞ야 대강 옥졍을 긔록 ᄒᆞ여 보ᄂᆡ오니 귀샤 신문에 긔ᄌᆡ ᄒᆞ야 ᄌᆡ판 쳐결 속히 되고 거쳐와 식ᄉᆞ 범졀 좀 달리 마련 되오면 국가에 만ᄒᆡᆼ일 듯 ᄒᆞ오며 이번 경ᄉᆞ에 아모조록 셩의ᄃᆡ로 광탕지뎐을 베푸시기를 ᄇᆞᆯᄋᆞ나이다(완)[86]

㉮와 ㉯는 모두 근대적인 감옥제도에 대한 논설인데, ㉮는 일반적 형식의 논설이고, ㉯는 <독자투고> 형식의 논설이다. ㉮는 이전의 포청과는 달리 경무청은 백성을 개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므로 감옥제도 역시 백성이 공평치 못한 일을 당하지 않게 규칙을 잘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설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론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으며 서술자의 주의 또는 주장이 확연히 노출되고 있는 글이다. 하지만 ㉯는 감옥에 있는 죄수가 보낸 편지를 게재한 글이다. 투고자인 죄수는 현재의 감옥제도와 죄수들의 실상을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86) 『독립신문』, 1899.3.15.;1899.3.16, <논설>

이다. 따라서 그 내용 또한 글 ㉮의 관념적인 내용과는 달리 죄수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서술자의 시선이 아닌 투고자인 죄수의 시선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경무청을 비롯한 감옥 제도의 시급한 정비를 요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전언'의 방식은 서술자가 계몽의 의도를 수행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서술은 독자들에게 좀더 구체적인 실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주로 사용되던 일방적인 태도의 논설보다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줌으로써 서술자는 오히려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좀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전달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3-2. 잡보란의 <독자투고>

잡보란의 독자투고는 주로 취재원 부족으로 인한 기사 수집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교통과 우편 시설이 아직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당시의 배경에서 취재원 몇 명으로는『독립신문』이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국의 소식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엔 무리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독립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독자투고 기사들을 받아 게재하였는데, 잡보란의 독자투고는 논설란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잡보란에서는 주로 하의상달의 형태로 지방관의 폭정을 비판하거나, 민원 상의 문제들을 투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구체적인 백성들의 목소리는 편집자에 시선에 의해 요약 서술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논설란의 독자투고는 주로 투고자의 글을 전문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잡보란의 경우는 주로 서술자가 투고자의 글을 읽고 요약하여 전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서술자의 요약은 투고자의 사연을 압축시켜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도에 관한 다음의 글들을 비교하여 보자.

㉮ 근일에 강원도 슈령과 관찰ᄉᆞ의 보고를 보니 강원도 각 디방에 비도가 다시 ᄉᆡᆼ겨 인민이 곤란ᄒᆞᆫ거슬 ᄯᅩ 당 ᄒᆞᆫ다니 잇대를 당 ᄒᆞ야 정부에셔 별노히 쥬의 ᄒᆞ고 신칙 ᄒᆞ야 이 비도들을 속히 간정 식히고 불샹ᄒᆞᆫ ᄇᆡᆨ샹들이 다시 쟉년에 지내던 곤란을 밧지 안케ᄒᆞ여 주ᄂᆞᆫ거시 맛당 ᄒᆞᆯ듯 ᄒᆞ더라 …… 국즁에 직업 업ᄂᆞᆫ ᄇᆡᆨ셩이 만히 잇고 ᄯᅩ 혹 직업 잇ᄂᆞᆫ ᄇᆡᆨ셩들은 원과 아젼의게 ᄯᅳᆺ겨 거산 되ᄂᆞᆫ 사ᄅᆞᆷ이 ᄒᆡ 마다 셩 ᄒᆞ고 겨울너셔 일 ᄒᆞ기ᄂᆞᆫ 슬코 살슈ᄂᆞᆫ 업슨 즉 다만 남은 일이 비도 될것ᄲᅮᆫ이라 그런고로 정부에셔 국즁이 편안 ᄒᆞ기를 ᄇᆞ라거던 아모조록 정치를 고쳐 ᄇᆡᆨ셩이 정부를 ᄉᆞ랑 ᄒᆞ도록 ᄆᆞᆫ드ᄂᆞᆫ거시 변난 뒤에 간정 식히ᄂᆞᆫ이 보다 힘도 덜 들고 ᄒᆡ도 업ᄂᆞᆫ지라 우리ᄂᆞᆫ 바ᄅᆞ건ᄃᆡ 정부에셔ᄂᆞᆫ 아모조록 ᄇᆡᆨ셩을 안돈 식힐 정치를 ᄒᆞ고 ᄇᆡᆨ셩들은 아모죠록 정부 명령을 승슌 ᄒᆞ야 나라에 근심을 ᄭᅵ치지 안케 ᄒᆞ여야 죠션이 ᄌᆞ쥬 독립 ᄒᆞᄂᆞᆫ 권리를 일치 안코 셰계에 나라 노릇슬 ᄒᆞ지 만일 정부고 ᄇᆡᆨ셩이고 ᄌᆞ긔의 직무를 법률ᄃᆡ로 ᄒᆡᆼ치 안ᄒᆞᆯ것 ᄀᆞᆺᄒᆞ면 미구에 큰 화가 ᄉᆡᆼ길터이라……87)

㉯ 박진하란 사ᄅᆞᆷ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ᄂᆞᆫᄃᆡ 영월 군슈 홍직영씨가 비도 호유 ᄒᆞᆯ 글을 지어 산곡에 웅거ᄒᆞᆫ 비도의게 보낼ᄉᆡ 그글에 ᄀᆞᆯᄋᆞᄃᆡ 슬푸다 사ᄅᆞᆷ이 나ᄆᆡ 텬셩이 챡 ᄒᆞᆫ지라 너희도 ᄯᅩᄒᆞᆫ 사ᄅᆞᆷ이니 엇지 챡 ᄒᆞ지 안 ᄒᆞ랴 젼후에 칙유를 ᄂᆞ리샤 ᄋᆡ연히 ᄉᆞ랑 ᄒᆞ신 셩의ᄂᆞᆫ 금슈라도 ᄌᆞ연 감동 ᄒᆞᆯ거시오 쳑연히 측달ᄒᆞ신 셩덕은 목셕이라도 ᄌᆞ연 감동 ᄒᆞᆯ거시여ᄂᆞᆯ 사ᄅᆞᆷ이 되야 이러 ᄒᆞ신 죠칙을 뵈압고 감격ᄒᆞᆫ 눈물이 비오듯 ᄂᆞ리지 아니 ᄒᆞ면 엇지 사ᄅᆞᆷ이라 칭 ᄒᆞ리요 나라 명을 좃차 직업을 안ᄒᆞ면 반다시 용셔치 아니 ᄒᆞ시리라 ᄒᆞ시니 우로 져짐이 족히 우리 셩샹의 함륙 ᄒᆞ심을 일우지 못 ᄒᆞᆯ지니 신민이 되어 우리 셩샹의 함륙 ᄒᆞ심을 일우지 못 ᄒᆞ며 하ᄒᆡ에 넓음이 족하 우리 셩샹의 포용 ᄒᆞ심을 일우지 못 ᄒᆞᆯ지니 신민이 되어 우리 셩샹의 ᄇᆡᆨ셩 보시기를 젹자 ᄀᆞᆺ치 ᄒᆞ시ᄂᆞᆫ 지인 셩덕 ᄒᆞ옵심을 밧지 아니 ᄒᆞ고 무지망칙 ᄒᆞ야 셩샹의 근심을 ᄭᅵ치면 즉시 뢰정이 ᄂᆡ리시ᄂᆞ니 두렵지 아니 ᄒᆞ냐 너희 무리ᄂᆞᆫ 곳 허물을 곳치고 각각 흣허져 도라가 안업ᄌᆞᄉᆡᆼ ᄒᆞ야 부모 쳐ᄌᆞ를 보양 ᄒᆞ고 나라에 츙효 절의를 효칙 ᄒᆞ면 엇지 아름답지 안ᄒᆞ랴고 ᄒᆞ엿스니 비도들이 낡어 보고 쾌히 귀화 ᄒᆞ기를 다즘을 두어 올녀 일경 ᄇᆡᆨ셩이 안돈 ᄒᆞ엿다고 ᄒᆞ엿더라88)

㉮는 비도 관련 논설의 일부이다. 이 논설의 서술자는 정치가 불안하면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정부를 싫어하게 되어 비도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단 비도가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막는 일이 더욱 어려우니, 애초에 백성들이 비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언표는 일반적 논

87) 『독립신문』, 1897.2.6, <논설>

88) 『독립신문』, 1896.10.17, <잡보>

설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의 글은 ㉮의 글보다 더욱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도에 관한 폐해를 지적하고 독자들을 계몽하고 있다.

㉯의 예문은 박진하란 사람의 투고 글을 읽고 서술자의 시선으로 편집한 기사이다. 이 글 역시 비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데, ㉮의 글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배경이 제시되고, 영월 군수의 편지 내용을 통해 비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글에서 서술자는 기사 내용이 신문사 내지는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 기사의 사실성을 부각시키는 데, 투고자의 실명을 게재함으로서 이 글이 지어낸 글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편집자의 언표는 기사 내용이 생생한 투고자의 이야기인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투고자의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서술자 자신의 입장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 글 속에는 좀더 교묘한 서술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잡보란의 <독자투고> 기사들은 대부분 줄거리 위주의 서술 방식에 따르고 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줄거리 위주의 서술 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은 조금 다르다. 박진하라는 사람이 보낸 글을 요약하자면 '영월 군수 홍재용씨가 산속에 웅거하고 있는 비도를 회유하기 위해 글을 지어 보냈다. 그 글을 읽은 비도들은 그 글 내용에 감화되어 귀화하기를 다짐했다. 그곳 백성들이 안돈하였다.'이다. 이것은 줄거리 위주의 요약이다. 이러한 줄거리 위주의 요약 방식에서도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할 개연성은 높다. 하지만 이 글은 이러한 줄거리보다 오히려 홍재용씨가 비도에게 보낸 편지 글의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편지 글 속의 내용은 편집자가 이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의 시선에 포착된 사건은 줄거리 요약 방식의 서술보다 편지 안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서술자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영남 션비 김만즁 리의츈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ᄂᆞᆫᄃᆡ 안동군 김지담씨가 본군 우체쥬ᄉᆞ로 금년 정월에 비도의게 피ᄒᆡ되엿거ᄂᆞᆯ 그안ᄒᆡ 권씨가 그참목ᄒᆞᆫ 쇼식을 듯고 어린 녀식 세ᄉᆞᆯ 시동셔의게 부탁ᄒᆞ고 ᄒᆞᄂᆞᆫ 말이 나ᄂᆞᆫ 아ᄃᆞᆯ도 업고 의지 홀ᄃᆡ가 업스니 차아

리 죽어셔 령혼이라도 내의 사내희와 ᄀᆞᆺ치 잇겟노라 ᄒᆞ고 식음을 전폐 ᄒᆞᆫ지 오일만에 죽으니 그동리 사ᄅᆞᆷ들이 다 측은이 ᄉᆡᆼ각 ᄒᆞ고 본군과 본도와 ᄂᆡ부에셔도 그부인의 열ᄒᆡᆼ 된거슬 다안다고 ᄒᆞ엿더라[89]

이 글에서도 서술자는 객관적인 위치를 점한 채, 단지 아내 권씨의 말을 빌어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 글 역시 일반적인 투고 기사였다면 '안동군 우체 주사 김재담씨가 비도에게 죽었는데, 그 아내 권씨가 그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한 지 오일만에 죽었다.'라는 줄거리 위주의 요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부인의 정절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녀의 유언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글 역시, 투고자의 글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자신의 의도를 감추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각도 각부에 우톄샤를 셜시 ᄒᆞ고 무론 아모의 편지던지 우표를 부쳐 통신케 ᄒᆞ라ᄂᆞᆫ 쟝졍이 잇기로 각터 톄젼 부들이 셔신을 면젼 ᄒᆞ랴고 다니ᄂᆞᆫᄃᆡ 혹 양반 칭호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톄젼부를 ᄌᆞ긔의 집 문안에 들어 셔지도 못 ᄒᆞ게 ᄒᆞ고 ᄌᆞ긔의 하인 식혀 셔신을 밧아 드리며 혹 톄젼부가 셔신을 면젼 ᄒᆞᆯ차로 어느 양반의 집 샤랑에 들어간즉 그 집 님ᄌᆞ 되ᄂᆞᆫ 양반이 크게 ᄭᅮ지져 ᄀᆞᆯᄋᆞᄃᆡ 아모리 ᄀᆡ화ᄒᆞᆫ 셰샹이기로 벙거지 쓴놈이 무엄히 방에 들어오니 그럴 법이 어ᄃᆡ 잇스랴 ᄒᆞ면셔 ᄌᆞ긔의 집 하인불너 이놈 잡아 내려 문 밧ᄭᅳ로 ᄶᅩᄎᆞ 내라 ᄒᆞ며 이놈 뎌놈 호령 ᄒᆞ고 그 괄시와 멸시가 비ᄒᆞᆯ 곳시 업스니 일향 이러 ᄒᆞᆯ진ᄃᆡ 톄젼부노릇 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슬지라 타국에셔들은 톄젼부을 엇더케 대졉을 ᄒᆞᄂᆞᆫ지 죠션 셔ᄂᆞᆫ 톄젼부가 벙거지 쓴 ᄭᆞ닭에 이런 텬대를 밧ᄂᆞᆫ지라 엇지 ᄒᆞ면 셔간을 면젼 ᄒᆞ고 텬대를 아니 밧을ᄂᆞᆫ지 아마도 머리에 쓰ᄂᆞᆫ 벙거지를 달니 변통 ᄒᆞᄂᆞᆫ거시 ᄆᆞᆺ당 ᄒᆞ다고 각텨 톄져부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스니 이런 일은 농샹 공부에셔 죠텨 ᄒᆞᆯ 일이어니와 우톄 인부도 ᄯᅩᄒᆞᆫ 나라에셔 마련 ᄒᆞ야 주ᄂᆞᆫ 월급을 먹고 ᄉᆞ무 ᄒᆞᄂᆞᆫ 관인일ᄲᅮᆫ더러 사ᄅᆞᆷ은 ᄆᆞᆺ치 ᄒᆞᆫ ᄀᆞ지인즉 사ᄅᆞᆷ이 엇지 사ᄅᆞᆷ을 텬ᄃᆡ ᄒᆞ리오 ᄀᆡ명ᄒᆞᆫ 나라 경계ᄂᆞᆫ 비록 총리 대신 이라도 우톄 인부를 다 친구로 대졉 ᄒᆞᄂᆞᆫ지라 대개 아모 나라던지 그 나라 인민은 모도 그 나라 님군의 ᄇᆡᆨ셩인즉 그 님군의 ᄇᆡᆨ셩이 되야 그 님군의 ᄇᆡᆨ셩을 텬ᄃᆡ ᄒᆞ면 이ᄂᆞᆫ 곳 그 님군을 존ᄃᆡ ᄒᆞᄂᆞᆫ ᄯᅳᆺ시 아이라 죠션 인민들은 엇지 ᄒᆞ야 사ᄅᆞᆷ을 셔로 텬ᄃᆡ ᄒᆞᄂᆞᆫ지 곳 못된 버르쟝이라 이런 풍쇽들은 좀 고치면 죠흘너라[90]

89) 『독립신문』, 1896.10.31. <잡보>

90) 『독립신문』, 1897.7.3, <잡보>

위의 예문은 '각처에 있는 우체부들의 편지'라고 소개되어 있는 독자투고 기사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투고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단지 "각텨 톄져부의 편지가 신문사에 왓스니"라는 직업을 대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그 동안 여러 우체부들이 보낸 투고 글을 종합하여 요약 서술하거나, 여러 우체부들의 어려움을 서술자가 나름대로 구성하여 서술하고 있는 글로 파악된다. 여기서 서술자는 우체부들의 어려움을 하나의 일화를 통해 제시하고 뒤에 자신의 논평을 붙이고 있다. 하나의 일화를 서술하고 뒤에 서술자의 논평을 붙이는 방식은 일반적인 잡보란의 기사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술자는 "각텨 톄져부"라는 투고자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고 뒤에 논평을 다는 방식은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서술자의 의도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잡보란에 실린 대부분의 독자투고 기사들은 객관적 위치를 점한 서술자의 시선으로 요약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서술자가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서술자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등장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또는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부각시킴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글들이 사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대화 상황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전언'이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유효한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온전히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이야기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듯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술자의 시선은 특정 사건과 거리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술 방식에는 배제되지 않은 서술자의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 서술자는 기사를 선별하는 작업에서 일차적으로 그것이 독자에게 일정한 정보로서 기능하는가를 따져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기사로서 서술되는 과정은 서술자의 시선에 잡히는 중요한 사건, 행위, 대화 등이 위계화를 거쳐 편집되어 서술된다. 결국 서술자는 신문사의 사의(社意) 또는 주관적인 가치 평가를 배제한 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기사를 서술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 역시 당시 기사를 통제하던 거대 담론의 힘에 의해 선별되고, 요약·정리되는 것이다. 즉 '전언'의 방식은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요약하여 전달하느냐의 문제를 통해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모색하게 하고 더욱 효과적인 글쓰기 방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독자투고>는 '전언'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서술자가 스스로 객관적인 위치를 점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독자투고>의 서술자는 편집자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을 서술하고자 하며, 진위여부를 가리지 못한 '소문'을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역할은 <독자투고>에서의 서술 태도나 서술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독자투고>는 주로 '전언'의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논설란과 잡보란에서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설란의 <독자투고>는 주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투고자의 글을 다루어 독자에게 실감을 제시하고, 잡보란의 <독자투고>는 사건에 대한 요약의 과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글쓰기를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독자투고>가 갖는 이러한 특성은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서사적 논설>은 <독자투고>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Ⅳ. 『독립신문』 <서사적 논설>의 서술 방식

근대계몽기 신문 매체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신문 기사로서보다는 이야기로서의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게 포함되어 있는 문학적 글들이 꽤 많이 실려 있다.[91] 특히 『독립신문』에는 약 30여편의 단형서사문학이 논설란에 게재되어 있다.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은 최초의 근대적 민간 신문으로 평가받는 만큼 신문이라는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노력은 이 시기 단형서사문학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단형서사문학 양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글쓰기 양식이 내포하고 있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문 매체가 갖는 제도적 특성과 그것이 글쓰기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신문 매체의 특성과 그로 인한 글쓰기 방식이 단형서사문학의 한 양식인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보고자 한다.[92]

1.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이야기

『독립신문』에는 총 30여편의 <서사적 논설>이 게재되어 있다.[93] 이것은 모두 문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어 추출된 글들인 데, 모두가 『독립신문』 제1면 논설란에 위치하고 있다.

<서사적 논설>은 서사와 논설이 결합되어 있는 양식으로, 서사적 성격이 짙은 논설을 말한다. 이러한 <서사적 논설>은 일반 논설과는 그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

91)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근대계몽기 신문 매체에 한글로 쓰인 단형 서사문학은 총 292편에 이른다. 여기에 국한문과 한문으로 쓰인 것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적은 양이 아니다. 김영민·구장률·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 하』, 소명출판, 2003. 참조.

92)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에는 신문 편집방침에 따라 제목이 붙어 있는 것과 제목이 없는 것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전집』의 표제 표기를 따르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따라서 원 자료에 제목이 없는 경우는 본문의 2~3어절을 인용하여 제목으로 삼고 *로 표시했다.

93) 『독립신문』에 실려 있는 단형 서사물은 총 30여편인데, 이것들은 모두 <논설>란에 실려 있으므로 선행 연구에 기대어 <서사적 논설>로 명칭한다.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참조.

다. <서사적 논설>은 서술자의 생각 또는 주장을 허구적인 하나의 일화나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학적 성격이 강한 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적 글쓰기는 논설의 다양한 표현 방식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문 제도에서 논설은 분명 editorial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성격을 전제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 문학적인 글을 쓸 수 있었다.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주의・주장의 성격을 지니는 일반 논설과 마찬가지로 신문의 편집자이자 기자였다. 이러한 서술자는 허구적인 이야기의 작가이기 전에 신문이라는 매체의 성격을 강하게 담보하는 편집자이자 기자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립신문』은 신문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전제로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사적 논설>을 논설란 안에 게재할 수 있었다.

『독립신문』의 논설란은 대체로 계몽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 경제, 교육, 위생, 매너 등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근대화에 대한 독자들의 계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94] 따라서 논설란은 계몽에 관한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채우고 있었다. 특히, <논설>란에는 고종이 내린 조칙[95], 호구 조사 규칙[96], 국내 우체 규칙[97] 등을 게재하여 백성들이 정부의 칙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을 가르쳐 주거나[98], 생물학 강의를 연재[99]하는 등 일반적 논설의 형식과는 다른 형태의 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독립신문』의 논설란은 독자의 계몽과 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가 행해지고 있었다.

또한 유명 인사나 유지각한 사람(또는 친구)의 글을 게재하는 <독자투고> 역

94)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참조.

95) 『독립신문』, 1896.4.9, <논설>

96) 『독립신문』, 1896.9.10, <논설>

97) 『독립신문』, 1897.3.20.~23, <논설>

98) 『독립신문』, 1897.2.18, <논설>

99) 『독립신문』, 1897.6.17.~7.24, <논설>

시 당시 『독립신문』 <논설>의 일반적인 한 형태였다. 편집자 또는 기자가 직접적인 언설을 통해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 또는 글을 단지 대신 전해준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러한 방식은 <논설>란이 그 양식적 적합성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허용하는 계몽의 장(場)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논설란의 이러한 특성은 <서사적 논설>의 출현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서사적 논설> 역시 계몽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하나의 사례이다. <서사적 논설>의 허구적 또는 문학적 이야기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포함하는 당시 논설의 서사적 표현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독립신문』의 논설에도 일정한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규칙이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객관성', '중립성', '사실성'과 같은 신문 매체의 본질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다. 신문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에서 '허언'이 아닌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했다. 『독립신문』은 객관적 사실, 즉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야만 매체로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00]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독립신문』과 논설란을 규정하는 원칙은 본질적으로 허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적 논설>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사적 논설>은 어떻게 『독립신문』의 논설란에 쓰일 수 있었는가.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에는 이러한 논설란에 허구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의 특징은 주로 이야기의 도입부분에 편집자 주가 들어있고, 그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서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집자 주는 이것이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파악되는데, 이것은 주로 신문이란 지면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서사(narrative)는 크게 묘사(description)와 주장(argument)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01] 여기에서 서술자는 묘사와 주장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의 허구적 이야기

100) 여기에서 진리라는 말은 『독립신문』의 입장에서 쓰인 말로,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이나 사실이 아니라 단지 조선 인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몽적 언표를 말한다.

를 서술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가 된다. 하지만『독립신문』소재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신문 매체의 편집자(editor)로서의 성격을 좀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

『독립신문』<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신문 논설의 편집자(editor)의 역할을 동시에 취한다. <서사적 논설>에서 편집자의 역할이란 신문사의 사의(社意)에 부합하는 기사를 취재하여, 그 기사의 취재과정과 뒤에 전개될 이야기의 상황을 제시해주는 것을 말하며, 글의 말미에 서사적 내용에 대한 논평을 달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신문사 편집자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독립신문』소재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대부분 서사의 도입이나 말미에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102]

㉮ 서술자의 발화 — 내부의 이야기
㉯ 내부의 이야기 — 서술자의 발화
㉰ 서술자의 발화 — 내부의 이야기 — 서술자의 발화

위의 세 가지 유형처럼『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대부분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이야기로 나뉘어 있는 액자식 구성 방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내부와 외부의 서술자가 뚜렷하게 나뉘는 것과 서술자가 중심 서사 외부에서 단지 내부의 이야기에 현실성을 부과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대부분이 서술자가 중심 서사의 외부에서 사건의 도입 또는 마무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 엇던 유 지각한 친구가 이 글을 지여 신문샤에 보내엿기에 좌에 지긔 하노라 지나간 밤 몽즁에 강산 구경 죠와하는 엇던 친구를 맛나 담화하되 강산 경ᄀᆡ가 어ᄃᆡ어ᄃᆡ

101) Jeremy Hawthorn,『STUDYING THE NOVEL』,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2쪽.

102) 김영민은 <서사적 논설>의 구조를 서사문과 편집자 주(註) 또는 해설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편집자 주 또는 해설이 서사문의 앞에만 붙는 경우. 둘째, 서사문의 앞과 뒤에 붙는 경우. 셋째, 서사문의 뒤에만 붙는 경우. 김영민,「근대계몽기 단형(短型) 서사문학 자료 연구」,『현대소설연구 17』, 현대소설학회, 2002. 105~107쪽.

볼만 하더냐 무른즉 그 친구 대답하되 내가 삼쳔리 강산 쥬류홀 때에 한 곳을 다다르니 그 곳 산쳔이 슈려하고 봉만이 긔이하니 진실노 텬하에 뎨일 강산인 고로 경긔를 탐하야 졈졈 드러가니 츈졀은 의구하고 시내물은 쟝류하나 그 강산에 초목이 병든 긔숙이 잇눈지라 그 연고를 아지 못하여 물으려 하되 물을 곳이 업셔 두로 술피더니 한곳을 바라보니 그 곳이 그 즁에 산셰가 명랑하고 놉기가 슈쳔 쟝 되는 곳에 솔나무 몃이 셧눈 고로 그 곳에 올나가셔 그 솔나무 다려 무른즉 솔나무가 한숨 쉬고 대답하되 우리 강산에 토품도 조코 슈근이 잇는 고로 쵸목이 무셩하더니 슈년 젼에 일홈 몰으는 니샹한 나무 몃 쥬가 싱기더니 우리 죵류가 병이 드러 이 디경에 즈연히 이르릿노라 하기로 또 물되 무숨 연고던지 분명한 것이 잇지 즈연이라 하는 말은 몰을 것이니 쟈셰히 말하라 한즉 그 솔나무 눈물을 짓고 말하되 뎌 산 가온디 셧눈 뎌 나무 몃 쥬가 이 산에 드리온 후로브터 그러하나이다 그리하면 그 나무들 일홈이 무엇인고 무른즉 답하되 시쇽에 부르기를 ㅅ물목이라 하나이다 엇지 하야 ㅅ물목인고 하니 그 나무 원톄는 느릅나무요 그 나무에 합한 것은 시숨 넌츌과 엄나무와 칙 넌플 네 가지가 한디 합한 연고로 ㅅ물목이라 하노라 하거늘 또 물으되 그 나무가 무숨 죠화로 쵸목들을 병들게 하느뇨 한즉 답하되 그 나무들이 외화로는 풍위가 늠늠하나 쇽에는 악한 긔운들이 만한 고로 탐욕을 내여 우리 죵류의 긔운을 탈식하는 고로 우리가 다 병이 드러 죽을 디경인디 우리 죽는 것은 앗갑지 아니하나 우리가 다 죽은 후에는 강산이 토피가 버서져 산도 문어지고 슈근도 업서질 디경이니 엇지 아니 원통하리요 하기에 그 말을 듯고 분함을 익이지 못하여 그리하면 내가 잘 드는 독기로 그 나무들을 베혀 업셰겟노라 한즉 솔나무 말하되 당신이 그런 말숨을 하시니 쾌활하나 내 싱각은 그 나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잇쇼 하거늘 또 물으되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한즉 답하되 그 나무 보호하는 쳘남싱이라 하는 풀들을 더 무서워 하노라 하며 말하되 그 나무 이웃에 잇는 쳘남싱이라 하는 형용이 엇더한고 하니 뿌리는 둥글고 줄긔는 아롱지고 닙은 부드럽고 렬미는 불근 것이 솔방울 ᄀᆞᆺ치 되어 보기는 황홀하나 사룸의 살에 다으면 살이 부르트고 부스럼이 되어 견딜슈 업는 그런 독한 긔운들을 가진 고로 무서워 하노라 그런 고로 몬져 그 쳘남싱이들을 업셰고 둘지는 그 ㅅ물목들을 업셰는 것이 미우 죠홀 터이기로 우리가 싱각하기를 이 때을 타셔 죽을 힘들을 다하여 깃 넓은 광이로 쳘남싱들을 키내고 잘 드는 독기로 ㅅ물목들을 배혀 한디 합하여 가루를 만드러 우리 병든 죵류들이 먹은 후에 병도 쾌ᄎᆞ홀 쑨외라 이 강산도 문어지지 안토록 하겟노라 하며 분한 긔운이 텅텬하기로 그 형용과 이약이를 다 들으니 나도 역시 분하고 일변 쾌활하거니와 그 초목들의 의향을 보니 그 ㅅ물목들과 쳘남싱이들을 그저 두지 아니홀 듯하니 내 싱각에는 쳘남싱이들과 ㅅ물목들의 신셰가 엇지 될는지 알 슈 업다고 이약이를 하기로 몽즁 셜화ᄂᆞ마 그 뜻이 니샹하기로 긔직 하나이다[103](밑줄 인용자)

103)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가*」, 『독립신문』, 1898.3.29, <논설>

이 글은 액자식 구성 방법이 두드러지는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이다. 특히 이 글은 <독자투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서술자는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의 글을 전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서술자로 나뉜다. 외부의 서술자는 바로 밑줄 친 부분으로 이야기의 도입과 마무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외부의 서술자는 이 글이 실제 독자가 지어낸 이야기를 신문사로 보냈고, 그것을 대신 전달해준다는 도입의 역할과 비록 이 이야기가 꿈속의 이야기이지만 내포된 뜻이 '이상하기에' 게재한다는 마무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내부의 서술자는 바로 내부의 이야기를 지어서 신문사로 보낸 '유지각ᄒᆞᆫ 친구'이며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서술자는 자신이 『독립신문』의 편집자이자 기자라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외부의 서술자는 단지 내부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전언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의 이야기는 편집자 또는 기자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취재한 것이 된다.

외부의 서술자는 <서사적 논설>의 도입부분에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전달해 준다거나,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우선 외부의 서술자는 '유지각 ᄒᆞᆫ 친구의 글을 좌에 긔ᄌᆡ ᄒᆞ노라'와 같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것을 전달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에 글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에 글을＊」, 1898.2.5.)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가 이 글을 지여 신문샤에 보내엿기에 좌에 긔ᄌᆡᄒᆞ노라(「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가＊」, 1898.3.29.)

엇던 친구의 글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상목지 문답」, 1898.12.2.)

대한 사ᄅᆞᆷ ᄒᆞ나이 七八 년 젼에 셔양 들어가셔 각항 학문을 만이 공부ᄒᆞ고 구미 각국에 유람ᄒᆞ다가 월젼에 본국으로 도라왓ᄂᆞᆫᄃᆡ 그젼에 졀친ᄒᆞᆫ 친구 ᄒᆞ나이 남촌에 사ᄂᆞᆫ지라 일젼에 그 집을 차져가셔 셔로 문답ᄒᆞᆫ 말을 엇던 유지ᄒᆞᆫ 친구가 젹어 보ᄂᆡ엿기로 좌에 대강ᄆᆞᆫ 긔ᄌᆡ ᄒᆞ노라(「ᄌᆞ미잇ᄂᆞᆫ 문답」, 1899.6.20.)

엇더ᄒᆞᆫ 외국 친구가 대한 사ᄅᆞᆷ과 셔로 문답ᄒᆞᆫ 말을 젹어 보ᄂᆡ엿ᄂᆞᆫᄃᆡ 그 두 분의 말ᄉᆞᆷ이 가히 들을ᄆᆞᆫ ᄒᆞᆫ고로 좌에 대강 긔ᄌᆡᄒᆞ노라(「량인문답」, 1899.7.6.)

일젼에 셔양 어느 친구가 ᄎᆡᆨ ᄒᆞᆫ 권을 보ᄂᆡ엿ᄂᆞᆫᄃᆡ 대강 렬남ᄒᆞᆫ즉 됴흔 말ᄉᆞᆷ이 만히 잇ᄂᆞᆫ 고로 그 즁에 이샹ᄒᆞᆫ 일 ᄒᆞᆫ ᄀᆞ지를 간략히 간츌ᄒᆞ노라(「일젼에 셔양 여느 친구가 * 」, 1899.11.24.)

위 예문들은 『독립신문』 <서사적 논설>에서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되기 전, 도입부분에 외부의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외부의 서술자는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 또는 '엇더ᄒᆞᆫ 외국 친구'가 보낸 글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대강' 또는 '간략히 간추려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서술자는 내부의 이야기가 자신이 직접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대신 전해준다는 게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술자는 그 내부의 이야기가 '들을 만하기에' 또는 '좋은 말씀이 많이 있기에' 전달한다며 서사적 이야기가 단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에게 교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정보를 넌지시 알려준다.

외부의 서술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전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다음은 서술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는 말을 듣고, 그것을 대신 전달해 준다는 입장이 드러난 <서사적 논설>의 도입부이다.

어졔 밤에 본샤 탐보원이 셔촌 ᄒᆞᆫ 친구의 집에 갓더니 ᄆᆞ참 유지각ᄒᆞᆫ 四五인이 안져셔 공동회 일졀노 슈쟉이 란만ᄒᆞᆫ 것을 듯고 그 종요ᄒᆞᆫ 것을 ᄲᆞᆸ아셔 좌에 긔ᄌᆡ ᄒᆞ노라(「공동회에 ᄃᆡᄒᆞᆫ 문답」, 1898.12.28.)

일쳥 교젼 이후에 쳥국 황뎨가 구폐를 쓸어바리고 신법을 시ᄒᆡᆼᄒᆞ야 태셔 긔화를 쳥국 十八셩에 젼파ᄒᆞ고쟈 ᄒᆞ샤 긔화 문견에 유식ᄒᆞᆫ 션비들을 만히 모하 즁원 뎐디를 일신ᄒᆞ게 ᄒᆞ야 안으로 ᄇᆡᆨ셩을 편안히 ᄒᆞ고 밧그로 의교를 친밀히 ᄒᆞ야 즁흥지업을 일우랴 ᄒᆞ시다가 불ᄒᆡᆼ히 일이 ᄯᅳᆺ과 ᄀᆞᆺ지 못ᄒᆞ야 간셰비가 외국을 빙자ᄒᆞ야 황뎨의 권셰를 ᄲᆡ앗고 긔화에 유의ᄒᆞ던 강유위 등 츙량ᄒᆞᆫ 신하들을 ᄇᆡᆨ반 모ᄒᆡᄒᆞ야 몃ᄒᆡ 젹공이 헛되이 되엿스니 쳥국을 위ᄒᆞ야 누가 긔탄치 아니ᄒᆞ리요 그 긔화당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친구와 문답ᄒᆞᆫ 것을 본즉 자미가 잇기로 좌에 대강ᄆᆞᆫ 긔ᄌᆡᄒᆞ노라(「쳥국 형편 문답」, 1899.1.11.)

셔울 힝셰군과 시골 구사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문답ᄒᆞᆫ 것을 좌에 긔지ᄒᆞ노라(「힝셰 문답」, 1899.1.23.)

외국사ᄅᆞᆷ이 대한 말을 겨오 통ᄒᆞᄂᆞᆫ 고로 그 문답에 우슈은 말이 만흐나 이샹ᄒᆞ기에 드른ᄃᆡ로 긔지ᄒᆞ노라(「외국 사ᄅᆞᆷ과 문답」, 1899.1.31.)

새 학문이 잇ᄂᆞᆫ 신씨ᄅᆞᆫ 사ᄅᆞᆷ과 녯적 학문ᄆᆞᆫ 잇ᄂᆞᆫ 구씨ᄅᆞᆫ 사ᄅᆞᆷ 둘이 셔로 문답ᄒᆞᆫ 이약이가 ᄆᆡ우 ᄌᆡ미가 잇기로 좌에 대강ᄆᆞᆫ 긔지ᄒᆞ노라(「신구 문답」, 1899.3.10.)

ᄒᆞᆫ 학쟈가 엇던 사ᄅᆞᆷ과 문답ᄒᆞᆫ 것을 좌에 긔지ᄒᆞ노라(「ᄌᆞ미잇ᄂᆞᆫ 문답」, 1899.4.15~17.)

텬하 형셰의 강약을 ᄉᆞᆯ피고 만국 정치의 편부를 의론ᄒᆞᄂᆞᆫ 외국인 ᄒᆞ나이 대한 션비를 ᄃᆡᄒᆞ여 슈작ᄒᆞᆫ 말을 좌에 긔지ᄒᆞ노라(「외양 죠흔 은궤」, 1899.6.9.)

향일에 엇더ᄒᆞᆫ 선비 ᄒᆞ나이 본샤에 와셔 ᄌᆞ긔 몽즁에 지ᄂᆞᆫ 바 일을 이약이 ᄒᆞ거ᄂᆞᆯ 우리가 근본 ᄭᅮᆷ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허ᄉᆞ로 알되 그 션비의 ᄭᅮᆷ이 가쟝 이샹ᄒᆞᆫ 고로 그 말을 좌에 긔지ᄒᆞ노라(「일쟝 츈몽」, 1899.7.7.)

외국 학문에 고명ᄒᆞᆫ 션비 ᄒᆞ나이 풍슈 션ᄉᆡᆼ을 맛나 슈작ᄒᆞ얏다ᄂᆞᆫ 말을 드른즉 우리ᄂᆞᆫ 쳐음으로 듯ᄂᆞᆫ 이약이기로 좌에 대강 긔지ᄒᆞ노라(「외국 학문에 고명ᄒᆞᆫ 선비 ᄒᆞ나이 *」, 1899.10.12.)

대한에 유디한 션비 ᄒᆞ나이 슈년 전에 구미 각국을 가셔 유학하다가 금번에 본국으로 도라와셔 엇던 신문샤 샤원과 문답ᄒᆞ얏다ᄂᆞᆫ 말을 좌에 대강 긔지ᄒᆞ노라(「대한에 유디한 션비 ᄒᆞ나이 *」, 1899.10.16.)

대한 엇던 관인이 외국 엇던 션교샤와 슈쟉ᄒᆞ얏단 말을 좌에 대강 긔지 ᄒᆞ노라(「대한 엇던 관인이 *」, 1899.10.26.)

어느 시골 구친 ᄒᆞ나이 셔울 올나왓다가 엇던 친구와 슈쟉ᄒᆞ얏다ᄂᆞᆫ 말을 누가 이야기 ᄒᆞ기에 좌에 대강 긔록ᄒᆞ노라(「어느 시골 구친 ᄒᆞ나이 *」, 1899.11.2.)

셔울 북촌 사ᄂᆞᆫ 엇던 친구 ᄒᆞ나이 어느 시골을 ᄃᆞᆫ여온 후에 즉시 본샤에 와셔 신문을 사가면셔 니야기 ᄒᆞᄂᆞᆫ 말을 드른즉 ᄆᆡ오 ᄌᆞ미 잇ᄂᆞᆫ 고로 좌에 대강 긔지ᄒᆞ야 경향 대쇼 인민을 경셩코져 ᄒᆞ노라(「셔울 북촌 ᄉᆞᄂᆞᆫ 엇던 친구 ᄒᆞ나이 *」, 1899.11.27.)

위 예문은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해 준다는 외부의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서사적 논설>의 도입부에서 '본샤 탐보원'(『독립신문』의 기자)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중요한 것만 뽑아서' 게재하거나, 또는 각각의 이야기들을 '대강만', '들은 대로' 전달해 준다는 서술자의 구체적인 언표가 드러나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내부의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는 유지각한 사・오인이 공동회에 관한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거나, 청일전쟁 이후 중국의 정세를 간략히 이야기하고 간신배에 몰리던 개화당 중 한명이 친구와 문답한 것을 게재한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내부의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이상하다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서술자는 <서사적 논설>의 도입부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그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서사적 논설>의 말미에도 서술자는 내부의 이야기와 거리를 두며 그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준다는 입장을 취한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내부의 이야기에 대한 간략한 논평이나, 게재 이유 등을 언급하며 전체 서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또한 도입부의 서술자와 마찬가지로 '재미있거나', '이상하기에' 또는 '본받을 만하여' 이 서사적 이야기를 게재한다는 언표가 드러난다. 특히 이러한 언표는 삽입된 내부의 서사적 이야기와는 일정한 거리를 확보한 채, 내부에 담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서술자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구체적인 대목이다.

이 이약이가 ᄆᆡ오 쟈미 잇기에 긔지ᄒᆞ니 우리 신문 보ᄂᆞᆫ 이ᄂᆞᆫ 그 대한 사ᄅᆞᆷ의 쳐디를 당히셔 엇덧케 쟉뎡ᄒᆞᆯᄂᆞᆫ지들 요량들 ᄒᆞ여 보시요(『일젼에 엇더ᄒᆞᆫ 대한 신ᄉᆞ ᄒᆞ나이 *』, 1898.1.8.)

오날이 이 유명ᄒᆞᆫ 셩인의 탄일인 고로 대강 그 ᄉᆞ젹을 긔록ᄒᆞ노라(『일ᄇᆡᆨ륙십년 전 이월 이십이일에 *』, 1898.2.22.)

봉즁셜화ᄂᆞ마 그 ᄯᅳᆺ이 니샹ᄒᆞ기로 긔ᄌᆞᄒᆞ나이다(『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가 *』, 1898.3.29.)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뎌 두 사ᄅᆞᆷ의 셔로 문답ᄒᆞᆫ 것이 ᄆᆡ우 ᄌᆡ미잇ᄂᆞᆫ 줄노 아노라(『ᄌᆞ미잇ᄂᆞᆫ 문답』, 1899.6.20.)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이 두 사ᄅᆞᆷ의 잠시 변론ᄒᆞᆷ이 대한 형편에 크게 젹당ᄒᆞᆫ 듯 ᄒᆞ오(『량인문답』, 1899.7.6.)

동셔양에 다른 유명ᄒᆞᆫ 이가 업ᄂᆞᆫ 것은 아니로되 쟝군의 ᄉᆞ업과 명예가 가히 셰계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흠앙ᄒᆞᆯ ᄆᆞᆫᄒᆞᆫ 고로 그 ᄉᆞ젹을 대강 긔지ᄒᆞ노라(『모긔쟝군의 ᄉᆞ젹』, 1899.8.11.)

동셔양을 물론 ᄒᆞ고 이ᄀᆞᆺᄒᆞᆫ 일은 대단이 희한ᄒᆞᆫ 것이 즘ᄉᆡᆼ도 능히 은혜 갑ᄒᆞᆯ줄을 알거던 ᄒᆞᆷ을며 사ᄅᆞᆷ으로 ᄂᆞᆷ의 은덕을 ᄇᆡ반 ᄒᆞ면 이ᄂᆞᆫ 즘ᄉᆡᆼ만 못ᄒᆞ도다 그런 고로 이

샤ᄌᆞ의 은혜 아ᄂᆞᆫ 일을 긔지ᄒᆞ야 셰계에 비은망덕하ᄂᆞᆫ 사ᄅᆞᆷ들을 경계 ᄒᆞ거니와 고금텬하에 무론 어느 나라이던지 님군은 곳 ᄇᆡᆨ셩의 부모요 ᄇᆡᆨ셩은 곳 님군의 져ᄌᆞ일뿐더리 ᄇᆡᆨ셩은 ᄯᅩᄒᆞᆫ 야인野人이요 관인은 ᄯᅩᄒᆞᆫ 군ᄌᆞ라 군ᄌᆞ가 아니면 야인을 다ᄉᆞ리지 못ᄒᆞᆫ다 ᄒᆞ나 야인이 아니면 군ᄌᆞ를 기르지 못ᄒᆞᆫ다 ᄒᆞ얏스니 군ᄌᆞᄂᆞᆫ 님군의 덕턱을 밧드러 야인의게 밋치게 ᄒᆞ고 님군이 ᄌᆡ가 ᄒᆞ신 법률을 ᄇᆞᆰ혀 야인의게 공평히 베프ᄂᆞᆫ것이요 야인은 군ᄌᆞ의 쥬션으로 님군의 덕턱을 펴ᄂᆞᆫ것을 힘입고 롱공샹의 직업을 편안히 ᄒᆞ야 셰전을 밧쳐 그 군ᄌᆞ를 기르ᄂᆞᆫ 것인즉 나라에 ᄇᆡᆨ셩ᄀᆞᆺ치 즁대ᄒᆞᆫ 것이 다시 업것마ᄂᆞᆫ 근ᄅᆡ에 셰계샹 못된 관리들은 우으로 님군을 속이고 아ᄅᆡ로 민심을 학ᄃᆡ ᄒᆞ니 첫ᄌᆡᄂᆞᆫ 작록을 주어 기르ᄂᆞᆫ 님군의 은혜를 져바리님이요 둘ᄌᆡᄂᆞᆫ 셰전을 내여 군ᄌᆞ를 기르ᄂᆞᆫ 야인의 은혜를 이졔 바림이라 이러ᄒᆞᆫ 관리들은 사오나온 샤ᄌᆞᄀᆞᆺ흔 즘싱 브기도 붓그럽지 안 ᄒᆞᆯ지(「일젼에 셔양 어느 친구가*」, 1899.11.24.)

우리가 이 사ᄅᆞᆷ의 일쟝 셜화를 드른즉 그 시골 친구의 고명ᄒᆞᆫ 확론이 가히 어리셕은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열게 하얏스니 극히 치하하ᄂᆞᆫ 바어니와 본샤 신문으로 물ᄒᆞᆯ지라도 대한 경향간에 보ᄂᆡᄂᆞᆫ 것을 비교ᄒᆞ여 보면 시골셔 보논 이가 셔울보다 몃ᄇᆡᆨ ᄇᆡ가 더 되니 엇지하야 시골 사ᄅᆞᆷ이 더 ᄀᆡ명코져 하ᄂᆞᆫ지 셔울 사ᄅᆞᆷ은 가위 등하 불명이라 극히 붓그러올듯(「셔울 북촌 ᄉᆞᄂᆞᆫ 엇던 친구 ᄒᆞ나이*」, 1899.11.27.)

이러한 서술자의 언표는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이 대부분 액자식 서술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의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대부분의 <서사적 논설>은 "～ᄒᆞ엿다더라", "～ᄒᆞ더라"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는 '～더라'라는 어미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서술어미 역시 서술자가 그 이야기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경험을 강조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104] 즉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대부분이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이야기로 분리되어 서술되어 있고, 서술자는 중심서사의 외부에서 그 내용을 다만 전달해주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편집자적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서술자가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긔록', '긔지', '본샤 신문' 등의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외부의 서술자는 내부의 이야

104) "이 '-더라'는 이미 신문에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전달하는 형식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 기사 내용은 이 '-더라' 형식으로 묶어진 문장 속에 있는 것이다.", 사에구사 도시카쓰,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 누」의 경우」,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문학』, 국학자료원, 2001, 62쪽.

기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그러한 허구적 이야기를 다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취하고 있다. 외부의 서술자는 다만 '재미'있거나 '이상한' 이야기를 신문에 '게재'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며, 각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한 번쯤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이야기로 나누어진 액자식 구성의 『독립신문』 <서사적 논설>은 전대의 서술 방식의 전통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꿈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서술하는 몽유록 계통의 액자소설은 그 서술 방식에서 <서사적 논설>의 액자식 구성과 연관이 있다.

꿈속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소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성 방식이었다. 특히, '현실-꿈-현실'의 구조를 가지는 액자식 구성의 몽유록 또는 몽자류 소설은 '꿈'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쉽게 담아내거나, 현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 내지는 성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꿈을 이용한 서술 방식은 작가의 생각을 꿈속의 이야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었다. 근대계몽기 <서사적 논설> 역시 이러한 전통적 서사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다.[105] 또한 이렇게 꿈속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은 연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도라간 일요일 오젼 십일시에 광무 협회 회원들이 명동 경셩 학당에 모혀 뎨 삼ᄎᆞ회를 렬고 방국을 부요 ᄒᆞ고 샹업을 흥왕케 ᄒᆞ랴면 국즁에 은힝은 만히 셜시 ᄒᆞᆷ이 뎨일 긴요 ᄒᆞ다는 문제를 가지고 회원 현공렴 리승균 제씨가 좌우 편으로 토론들 ᄒᆞ는ᄃᆡ 쟈미 잇고 유죠ᄒᆞᆫ 말이 만히 잇더라 쳥ᄒᆞᆫ 손님 즁에 젼 협판 윤치호씨가 연셜 ᄒᆞ기를 이 회즁에셔 나를 쳥 ᄒᆞ엿기에 괴위 왓스나 여러 학원을 대 ᄒᆞ야 별노 ᄒᆞᆯ 말이 업기에 잠간 몽즁셜화로 대강 몃 ᄆᆞᄃᆡ 이약이를 ᄒᆞ노라 간밤에 ᄭᅮᆷ을 ᄭᅮ는ᄃᆡ 내가 쟉년에 아라샤에 갓슬 ᄯᅢ에 친히 ᄉᆞ관 아라샤 사ᄅᆞᆷ ᄒᆞ나이 우리 대한에 왓는지라 이 사ᄅᆞᆷ은 십년 젼에 이왕 죠션에 왓던 사ᄅᆞᆷ인ᄃᆡ 나와 셔로 ᄆᆞᆺ나셔 손을 잡고 반갑게 인ᄉᆞᄒᆞᆫ 후에 그 아라샤 사ᄅᆞᆷ이 나를 대 ᄒᆞ야 말 ᄒᆞ기를 십년 젼 죠션이 변 ᄒᆞ여 일신ᄒᆞᆫ 새 나라가 되엿다니 각쳐를 ᄒᆞᆷᄭᅴ 다니면셔 ᄎᆞ례로 구경을 식혀 둘나 ᄒᆞ기에 내가 그 사ᄅᆞᆷ을 다리고 몬져 광화문 압ᄒᆞᆯ 가셔 ᄎᆞᄎᆞ 구경을 식히며 말ᄒᆞ야 ᄀᆞᆯ아ᄃᆡ 좌우로 버려 잇는 아문 일

105) 내부의 이야기가 꿈이라는 모티프를 차용하는 경우의 <서사적 논설>은 『독립신문』의 경우 1898년 3월29일과 1899년 7월 7일자가 있다.

홈이 갑오 이젼에는 모도 죠(曹)라 리조 호조 례조 병조 형조 공조라 칭 ᄒᆞ고 각기 아문에 벼슬 일홈은 판서라 참판이라 참의라 좌랑 졍랑이라 칭 ᄒᆞ더니 갑오 이후에는 조라 칭 ᄒᆞ던 아문 일홈을 곳쳐 부(部)라 ᄒᆞ야 ᄂᆡ부 탁지부 학부 군부 법부 농샹공부라 칭 ᄒᆞ며 벼슬 일홈을 곳쳐 대신 협판 국쟝 참셔관이라 ᄒᆞ며 젼일에 쓰던 뎨도를 일병 변혁 ᄒᆞ야 새로 법률과 쟝뎡과 규칙을 ᄆᆞᆫ드럿고 단군과 긔ᄌᆞ 이후로 나라 일홈을 죠션이라 ᄒᆞ던것을 지금은 대한이라 ᄒᆞ며 쳥국에 쇽방이 되야 몃 쳔년을 남의 죵노릇ᄆᆞᆫ ᄒᆞ다가 지금 와셔는 우리 나라이 ᄌᆞ쥬 독립이 되야 대한 뎨국이 되엿스니 이제는 우리 나라가 이젼 죠션국이 아니고 곳 즁흥ᄒᆞᆫ 새 나라라 ᄒᆞ니ᄭᆞ 그 아라샤 사ᄅᆞᆷ이 말 ᄒᆞ되 다ᄆᆞᆫ 각 아문 일홈과 벼슬 일홈과 뎨도와 법률과 쟝뎡과 규칙과 나라 일홈들ᄆᆞᆫ 곳치면 새 나라가 된단 말이요 새로 ᄆᆞᆫ든 법률과 쟝뎡과 규칙을 실샹으로 직히고 시ᄒᆡᆼ ᄒᆞ여야 새 나라라 ᄒᆞ지요 그ᄃᆡ의 말이 새 나라라 쟈랑 ᄒᆞᄂᆞᆫ것을 나는 밋지 아니 ᄒᆞ노라 ᄒᆞ니 내 ᄆᆞᄋᆞᆷ이 대단히 붓그러오며 그 아라샤 사ᄅᆞᆷ의 말이 셔울은 더 구경 ᄒᆞᆯ것 업스니 시골이나 가셔 보ᄌᆞ ᄒᆞ기에 그 사ᄅᆞᆷ과 ᄒᆞᆷᄭᅴ 어느 시골을 간즉 ᄇᆡᆨ셩의게 각 항 잡셰를 관인들이 독쵹 ᄒᆞ여 밧ᄂᆞᆫᄃᆡ 그 슈셰 일홈을 말물셰라 ᄒᆞ더라 그 사ᄅᆞᆷ이 ᄇᆡᆨ셩을 대 ᄒᆞ야 뭇기를 뎌 슈셰는 무엇이뇨 ᄒᆞ니 ᄇᆡᆨ셩이 대답 ᄒᆞ되 졍부에서 범과 ᄀᆞᆺ치 무셔운 파원들을 훈령 ᄒᆞ고 나려 보ᄂᆡ여 위령으로 밧치라 ᄒᆞᄂᆞᆫ 고로 ᄇᆡᆨ셩은 죽어도 파원의 위령을 무셔 ᄒᆞ야 부득이 울며 밧치노라 ᄒᆞ거ᄂᆞᆯ 그 사ᄅᆞᆷ이 나를 대 ᄒᆞ야 물으되 졍부에셔 파원을 보ᄂᆡ여 ᄇᆡᆨ셩의게 잡셰라 만물셰라 뎌럿케 밧으니 그 슈셰 보다 몃 배나 ᄇᆡᆨ셩의게 더 리익 될것을 졍부에셔 보죠 ᄒᆞ여 준것이 잇ᄂᆞᆫ지 가량 ᄇᆡᆨ셩이 젼일에 베 열셤 츄슈ᄒᆞ던것을 지금 열 다셧셤을 추슈 ᄒᆞ게 ᄒᆞ며 쇼곰 이십셕 굽던것을 지금 삼십셕 굽게 ᄒᆞ며 담비 ᄇᆡᆨ발 ᄒᆞ던것을 지금 일ᄇᆡᆨ 오십발 ᄒᆞ게 ᄒᆞ며 숫 두긔 짓던것을 지금 셰긔 짓게 ᄒᆞ며 ᄉᆡᆼ션 두비 잡던것을 지금 셰비 잡게 ᄒᆞᄂᆞ뇨 ᄒᆞ거ᄂᆞᆯ 내가 아모 대답ᄒᆞᆯ 말이 업셔셔 붓그러온 고로 다ᄆᆞᆫ 코를 ᄊᆞ 쥐엿노라 ᄯᅩ 그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어느 금졈에 갓ᄂᆞᆫᄃᆡ 그 광쇼에 금졈군들이 ᄇᆡᆨ셩들의 묘와 집과 뎐답을 금이 나겟다 빙쟈ᄒᆞ고 돈도 아니 주고 막우 파졋치며 민간에 ᄒᆡᆼ악과 쟉폐가 대단 ᄒᆞ야 ᄇᆡᆨ셩이 지보ᄒᆞᆯ슈 업거ᄂᆞᆯ 그 사ᄅᆞᆷ이 개탄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슬쇼록 금광에셔 ᄇᆡᆨ셩의게 별노히 크게 리익 ᄒᆞ게 ᄒᆞ여 주거ᄂᆞᆯ 대한경계는 그럿치 아니 ᄒᆞ니 ᄇᆡᆨ셩의게 ᄒᆡ로온 금광을 ᄒᆞ여 무엇에 쓰리요 ᄒᆞ니 내 ᄆᆞᄋᆞᆷ이 더옥 붓그럽더라 그 사ᄅᆞᆷ을 ᄯᆞ라 ᄯᅩ ᄒᆞᆫ곳에 가니 무슴 글 닑는 쇼ᄅᆡ가 나거ᄂᆞᆯ 그 사ᄅᆞᆷ이 말 ᄒᆞ되 필시 학교라 ᄒᆞᆷᄭᅴ 가셔 구경하ᄌᆞ ᄒᆞ거ᄂᆞᆯ 내 ᄆᆞᄋᆞᆷ에 ᄉᆡᆼ각 ᄒᆞ기를 우리나라 각 학교 학원들이 머리를 ᄭᅡᆨ근이도 잇고 혹 아니 ᄭᅡᆨ근이도 잇스며 혹 머리는 ᄭᅡᆨ고 망건과 ᄀᆞᆺ 쓴이도 잇고 혹 머리는 아니 ᄭᅡᆨ고도 외국 복식ᄆᆞᆫ ᄒᆞᆫ이도 잇스며 공부ᄒᆞᆫ다 칭ᄒᆞ기ᄆᆞᆫ ᄒᆞ고 실디 학문은 힘 쓰지 아니 ᄒᆞᄂᆞᆫ이도 잇슬터인즉 그 사ᄅᆞᆷ과 ᄒᆞᆷᄭᅴ 갓다가 ᄯᅩ 우셰를 ᄒᆞᆯ가 염녀 ᄒᆞ야 아니 가려 ᄒᆞᆫ즉 그 사ᄅᆞᆷ이 긔어코 ᄒᆞᆷᄭᅴ 가쟈ᄒᆞ여 부득이 ᄯᆞ라 갓더니 그 사ᄅᆞᆷ이 학교에 가셔는 크게 깃거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나라이 문명 진보 ᄒᆞ야 ᄎᆞ

ᄎᆞ 부강 ᄒᆞ고 법률 장뎡 규칙이 일신 ᄒᆞ게 붉아 남의게 죵 노릇 아니 ᄒᆞ고 정부가 광명 정대 ᄒᆞ야 셰계에 뎨일 나라들과 동등이 되여 ᄌᆞ유의 권리를 남의게 일치 안코 남의 나라에 업슈히 넉임을 면 ᄒᆞ기ᄂᆞᆫ 모도 이 학원들의 실디 공부에 잇겟노라 ᄒᆞ니 내가 몬져 각쳐에 ᄯᆞ라 다니며 여러번 붓그럽던 ᄆᆞᄋᆞᆷ이 학교에 와셔ᄂᆞᆫ 죠곰 덜니ᄂᆞᆫ듯 ᄒᆞ며 그 아라샤 사ᄅᆞᆷ이 그 학교 아ᄒᆡ들을 대 ᄒᆞ야 연셜 ᄒᆞ기를 쳣지ᄂᆞᆫ 새 나라이 되고 아니 되기ᄂᆞᆫ 너의 직분으로 ᄒᆞᆯ터이요 둘지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잘 비양 ᄒᆞᆯ것이니 만약 썩은 나무에 흰 죠희로 도비 ᄒᆞ듯 ᄒᆞ면 면이 불평 ᄒᆞᆯ터이요 셋지 번에 ᄒᆞᄂᆞᆫ 말은 내가 ᄭᅮᆷ에 이졋고 넷지ᄂᆞᆫ 너의가 당 싸홈을 ᄒᆞ되 공변될 공ᄌᆞ로 당을 이루고 샤ᄉᆞ 샤ᄌᆞ로 당을 삼지 말나 ᄒᆞ고 그 다음 ᄒᆞ던 말은 내가 ᄭᅮᆷ에 번력 ᄒᆞᆫ것이나 다 이졋노라 비록 ᄭᅮᆷ 가온ᄃᆡ 경력 ᄒᆞ던 바이나 그 대개를 말 ᄒᆞ노라 ᄒᆞ더라[106](밑줄 인용자)

위 논설은 광무협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손님으로 초청된 윤치호의 연설 내용이다. 이 글의 편집자이자, 외부의 서술자는 광무 협회 회원들이 명동 경성학당에 모여 '방국을 부유하게 하고 상업을 흥왕케 하려면 국중에 은행을 많이 설치함이 제일 긴요함'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였다고 소개하며 초청한 손님중에 윤치호의 연설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외부의 서술자인 편집자가 내부의 서술자인 윤치호의 연설 내용을 전달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여기서 외부의 서술자는 단지 취재 사실만을 전달하는 전언자의 태도를 취하는데, 내부의 서술자인 윤치호 역시 꿈속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전언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꿈속의 내용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에 맞는 하나의 허구적 이야기로 전달된다. 내부의 서술자인 윤치호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몽중설화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뒤, 꿈속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꿈속 이야기는 서술자인 내가(윤치호) 예전에 사귄 아라샤(러시아) 친구가 대한에 와서 각처를 돌아다니며 지금의 대한의 모습에 대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서울과 시골을 두루 다니며 대한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아라샤 친구는 서울을 구경하고 진정한 개화와 자주 독립은 단지 국호를 바꾸고 새로운 법률과 규칙을 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는 것에 있다고 비판하고, 시골에 가서는

106) 『독립신문』, 1898.2.17, <논설>

백성에게 부과하는 잡세와 만물세, 광산의 금점꾼들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 친구는 글 읽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 가 보자고 하나 나는 혹시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까 걱정을 하며 마지못해 따라간다. 하지만 외국 친구는 학교에 와서 보니 대한의 미래가 보인다며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 윤치호의 꿈 이야기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토론회의 손님으로 참석한 윤치호는 은행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교육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꿈속의 이야기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은 이 기사를 작성한 외부의 서술자인데, 이 글은 먼저 외부의 서술자가 이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서술하고, 내부의 이야기의 서술자인 윤치호의 서술로 이어진다. 이러한 액자식 구성은 일차적으로 외부의 서술자인 편집자에 의해, 그리고 내부의 서술자인 윤치호에 의해 두 번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외부의 서술자는 도입부에 이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윤치호의 서술이 끝나는 글 마지막 부분에 "~ᄒᆞ더라"고 하여 전체 논설을 편집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의 서술자는 도입부에 이 이야기가 꿈 이야기라고 밝히고 그 꿈속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몽의 과정이 생략된 채, '비록 꿈 이야기지만 그 대강을 말 하노라'며 자신은 단지 꿈속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윤치호의 꿈 이야기는 '현실-꿈-현실'이라는 몽유록 구조에서 현실 부분이 취약하고 단지 꿈속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꿈 이야기는 입몽과 각몽의 과정이 필연적인 매개 없이 단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될 뿐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독자투고> 방식의 <서사적 논설>에서 볼 수 있었던 '전언'의 방식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술자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계몽적 의도를 전달하고자 한다.

결국 <서사적 논설>에서 볼 수 있는 액자식 구성 방식은 결국 이러한 꿈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전대의 몽유록 계통의 서술 방식은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작가의 생각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사적 논설>은 <독자투고>와 같은 '전언'의 방식을 통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확보하고, 그 내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서사적 논설>은 '전언'이라는 서술 방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객관적인 태도를 확보한 채, 내부의 이야기를 서사적인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그 내부의 이야기가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일 때 주로 쓰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독립신문』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독자투고>와 마찬가지로 '전언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서술 방식 또한 <독자투고>가 외부의 서술자와 투고된 내부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서술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단지 전해준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태도의 글쓰기는 서술자가 발화 내용과 일정한 거리들 두면서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 속에 담아내는 방식이다.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허구적으로 창작된 내부의 이야기를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서사적 논설>은 그 내부의 이야기가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로 파악된다. 서술자는 계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논설란에 서사적인 이야기를 창작하였지만, 그것을 감추고 단지 그 내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독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전언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논설란에 이야기의 요소를 부가할 수 있었다.

『독립신문』 <서사적 논설>은 반복되는 논설을 통한 계몽이 한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좀더 효과적인 방식의 계몽을 추구한다. 특히, '재미'의 요소를 통한 효과적인 교훈 전달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시도되었는데,[107] 이러한 시도는 '전언'의 방식을 통하여 신문 기사로서의 사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독립신문』은 정부와 백성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구조를 생산하고, 그 사이에서 '전언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정부의 소식을 백성에게, 백성의 소식을 정부에게 전달한다는 『독립신문』의 주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글을 투고 받아 대신

107)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44~46쪽.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어떠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서술자의 태도로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신문의 사의를 대변하는 편집자의 역할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분명 오늘날 일반적인 문학 작품의 서술자와는 차별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

2. 기획된 정보로서의 이야기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대부분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외부의 서술자가 내부의 이야기를 단지 전달해 준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러한 서술 방식은 액자식 구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이야기를 외부의 서술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전달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부의 서술자는 내부의 이야기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그것을 대신 전달해 준다는 전언자의 역할을 취한다. 일반적인 <독자투고>와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모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실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소문'이나 허구적이고, 문학적인 성격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였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소문'의 차원을 더욱 서사적으로 표현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글쓰기가 가능했던 것은 당대의 신문이란 매체가 아직 사실의 영역을 확정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108]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서술 태도를 확보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신뢰할 수 있는 편집자 내지는 서술자의 위상을 통해서였다. 신문의 편집자이자 서술자는 상하귀천이 없는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를 바탕으로 신문 매체를 통해 공적인 담론을 논하는 자였고, 특정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믿을 만한 '전언자'였다. 이러한 서술자의 위상은 신문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됨과 동시에 생겨났고, 독자를 계몽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비록 그것이 허구라 하더라도 게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108)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213~217쪽.

했다.

다음은 이러한 신문의 서술자가 어떠한 기사를 게재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다.

유 지각ᄒᆞᆫ 사ᄅᆞᆷ의 집에 엇던 사ᄅᆞᆷ이 와셔 쥬인의게 죵용이 말 ᄒᆞ기를 쳥 ᄒᆞᆫᄃᆡ 쥬인 ᄃᆡ답이 공번된 말이면 공으로 말 ᄒᆞ지 엇지 죵용 ᄒᆞᆷ을 쳥 ᄒᆞᄂᆞ뇨 말이 만일 공번 되지 못 ᄒᆞ면 구ᄐᆡ여 듯기를 원치 안 ᄒᆞ노라 ᄒᆞᆫ즉 그 사ᄅᆞᆷ이 국츅ᄒᆞᆫ 몽양과 ᄋᆡ연ᄒᆞᆫ 샤졍으로 부득이 ᄒᆞ는 말이 아모리 ᄉᆡᆼ각 ᄒᆞ되 못 살게쇼 진즉 못 쥭고 슈다 권쇽 졉졔 ᄒᆞᆯ 방약 업스니 엇지 ᄒᆞ면 살겟쇼 ᄒᆞ거ᄂᆞᆯ 쥬인 ᄃᆡ답이 그ᄃᆡ가 이젼에는 놀고도 잘 살더니 지금은 엇지 못사는지요 그사ᄅᆞᆷ 말이 내가 다ᄒᆡᆼ히 샹놈되지 안코 샤부의 ᄌᆞ식 되여 디톄며 인아 족쳑이 남만 못 ᄒᆞ지 안키로 ᄇᆡ혼 ᄌᆡ죠가 업셔도 이젼 셰샹에는 남의 말이 나를 지목 ᄒᆞ며 아모의 ᄌᆞ손이요 아모의 지친이라 슈다 권쇽 다리고 쥭을 디경이라니 우리 친구 모양이 챵피 ᄒᆞᆫ다 공론 ᄒᆞ고 위션 쵸ᄉᆞ도 쥬션 ᄒᆞ여 주고 혹 누구 누구가 어ᄃᆡ 감ᄉᆞ와 원으로 잇스면셔 달마다 돈ᄇᆡᆨ식 부죠 ᄒᆞ기로 살기가 구간치 안코 ᄯᅩ ᄡᆞᆯ 장ᄉᆞ ᄒᆞ는 시졍 아모가 내 집에 다녀스니 나를 괄셰치 못 ᄒᆞ엿고 아모ᄃᆡ 사는 나무 쟝ᄉᆞ가 내집 하인 셩쳥에 드럿스니 셜마 내게 외샹 안 주며 ᄯᅩ 아모ᄃᆡ 사는 샹놈이 형셰 유여 ᄒᆞᆫ즉 ᄒᆞᆫ번만 불너보면 ᄡᆞᆯ셤 돈ᄇᆡᆨ은 아니 줄니 업고 만일 괄셔 ᄒᆞ면 아모 샤돈 아모 친구가 법ᄉᆞ 당샹이니 그놈을 죄로 잡아 다ᄉᆞ리라 ᄒᆞ면 안 될니 업고 ᄯᅩ 아모의 말을 들은즉 무숨 일을 여ᄎᆞ 여ᄎᆞ히 쳥쵹ᄒᆞ면 돈ᄇᆡᆨ 돈쳔이 용이 ᄒᆞ며 아모의게 여허케 편지 ᄒᆞ면 안 시ᄒᆡᆼ ᄒᆞᆯ리 업고 아모 놈을 무숨죄로 몰아 가두고 내게로 쳥이 드러 오게 ᄆᆞᆫ들면 분슈가 잇는지라 이쳐럼 일년을 통계 ᄒᆞ면 놀고도 ᄉᆡᆼ기는거시 넉넉 ᄒᆞ야 호의호식 ᄒᆞ더니 지금은 새법이 분명 ᄒᆞ야 이것 뎌것 ᄒᆞᆯ슈 업고 ᄉᆡᆼ각다 못 ᄒᆞ야 혹 쳥쵹을 가지고 요ᄒᆡᆼ히 될가ᄒᆞ야 일젼에 아모 대신 아모 협판 아모 국쟝을 보고 간신 ᄒᆞᆫ말 다 못 ᄒᆞ야 무안을 주며 이젼 풍쇽으로 알고 이런 말을 ᄒᆞ는다 ᄒᆞ고 대칙망 ᄒᆞ니 다시는 법률에 범 ᄒᆞ야 큰 죄인이 되겟고 인아 족쳑 동식 친구 뎌 살기에 골몰 ᄒᆞ니 내 ᄉᆡᆼ각 ᄒᆞᆯ리 업고 쟝ᄉᆞ나 ᄒᆞ랴 ᄒᆞᆫ들 밋쳔이 업고 아즉도 붓그러운 ᄆᆞᄋᆞᆷ 잇스니 엇지 ᄒᆞᆯ고 슬픈지라 죠흔 쳥츈 허숑 ᄒᆞ고 지금 진퇴 유곡되니 가숨만 답답 ᄒᆞ오 쥬인 ᄃᆡ답이 우리도 ᄌᆡ죠와 지식이 업거니와 그ᄃᆡ 말숨 들으니 당쟝 살기는 어려 운듯 ᄒᆞ나 그 ᄭᆡ다른 말숨은 족히 어리셕은 사ᄅᆞᆷ의 의견을 ᄀᆡ명케 ᄒᆞ는듯 ᄒᆞ며 ᄯᅩ 이ᄆᆞᄋᆞᆷ을 밀우면 나라에도 유죠ᄒᆞ고 그ᄃᆡ의 살 도리도 ᄉᆡᆼ길듯 ᄒᆞ오 사ᄅᆞᆷ이 몸을 편히 ᄒᆞ고 호와롭게 ᄒᆞ면 아모 일과 아모 ᄌᆡ죠를 일우지 못 ᄒᆞᄂᆞ니 그ᄃᆡ는 곤궁 ᄒᆞᆫ ᄉᆡᆼ각으로 궁심 먹득 ᄒᆞ면 필경 의견도 ᄉᆡᆼ기겟도 ᄯᅩ 녯말숨에 쳔 불ᄉᆡᆼ 무록지 인이라 ᄒᆞ엿스니 이 ᄯᆡ를 당 ᄒᆞ여 ᄒᆞᆫ가지 의견으로 무숨 일을 ᄒᆞ면 내의 ᄉᆞ업도 되고 남의 본 보기도 될거시요 이 ᄭᆡ다른 ᄆᆞ

옴이 족히 ☒방칙을 일울지라 이젼 풍습이 새 법에 힝치 못 흘거슬 알아스니 만히 만히 ☒샤 ᄒᆞ거니와 다른 사룸들도 그디와 ᄀᆞᆺ치 ᄭᅢ다르면 무슴 걱정이 잇겟쇼 이만 ᄒᆞ☒도 과연 곰압기 칙양 업노라 ᄒᆞ엿다더라[109]

위 글은 『독립신문』 잡보란에 실린 기사인 데, 유독 서사성이 두드러진다. 그 내용은 주인과 객(客)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진다. 어떤 유지각한 사람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청하니 주인은 청할 말이 있으면 공적으로 청하라고 말한다. 그러자 손님은 애처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자신은 원래 양반이라 과거에는 양반이라는 이유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지금은 새 법이 생겨 이전처럼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도, 평민들을 수탈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만 과거의 나쁜 관습으로 인해 재주도 없고, 장사 밑천도 없어 살기가 막막하다고 고백한다. 그러자 그 유지각한 주인은 손님의 고백이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을 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라고 조언한다. 결국 이 글은 이전의 풍습대로 양반이라는 권세만으로 세상을 살기 어려우며, 새 법에 따라 열심히 배우고 일하자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일반적인 잡보란의 기사와는 달리 창작성이 강한 글이다. 일반적인 기사와는 달리 기사의 취재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고 유지각한 주인과 어떤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이러한 주인과 객의 대화는 문답체 방식의 서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였다. 또한 서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훈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 논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글이다. 여기서 주인은 신문의 편집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객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의 서술자인 편집자 또는 기자는 전체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 말미에 '~ᄒᆞ엿다더라'라는 서술어를 통해 안의 이야기를 단지 전달해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이야기는 '~ᄒᆞ엿다더라'라는 한 마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편집자가 창작한 허구적인 글이 아니라 단지 보거나 들은 이

109) 『독립신문』, 1897.1.30, <잡보>

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신문의 편집자는 일반적인 사람의 잘잘못을 신문에 게재하여 그것을 통해 독자를 계몽하고자 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립신문』에서 다루는 이러한 ‘소문’은 독자에게 ‘칭찬’ 또는 ‘징계’가 되는 계몽적 정보로 전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기사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라기보다는 독자를 효과적으로 계몽하기 위한 허구적 창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위 예문은 신문의 편집자가 어떠한 적합성에 의해 기사를 배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지 ‘소문’에 불과한 이야기나 때로는 완전한 허구적 창작에 의한 이야기도 독자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그것은 기사로서 쓰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허구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기사는 다음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 일젼에 엇더ᄒᆞᆫ 고관 ᄒᆞ나이 졍동 길노 ᄉᆞ인교를 타고 지내면셔 이젼에 ᄒᆞ던 못된 ᄌᆞ존ᄒᆞᆫ 버르쟝이로 그 ᄉᆞ인교 압헤 가ᄂᆞᆫ 엇더ᄒᆞᆫ ᄇᆡᆨ셩을 빗켜 나라고 벽뎨를 ᄒᆞ거ᄂᆞᆯ 그 ᄇᆡᆨ셩이 그 고관의 ᄉᆞ인교 채를 붓잡고 그 고관을 대 ᄒᆞ야 물으되 이 길이 뉘 길이냐 ᄒᆞᆫ즉 그 고관의 대답이 나라에 길이라 ᄒᆞ니ᄭᆡ 그 ᄇᆡᆨ셩이 골ᄋᆞᄃᆡ 그러면 고관이나 내나 나라의 ᄇᆡᆨ셩 되기ᄂᆞᆫ 다 ᄒᆞᆫᄀᆞ지라 뎌리ᄒᆞᆫ 고관 되ᄂᆞᆫ ᄇᆡᆨ셩만 나라 길노 다니지 날 ᄀᆞᆺᄒᆞᆫ ᄒᆞᆫ미ᄒᆞᆫ ᄇᆡᆨ셩들은 나라 길노 다니지 못 ᄒᆞ랴 ᄒᆞᆫ즉 그 고관이 다시 대답 ᄒᆞᆯ 말이 업ᄂᆞᆫ 고로 스ᄉᆞ로 무안 ᄒᆞ여 샤과 ᄒᆞ고 지내 갓다더라[110]

위 예문 역시 『독립신문』 잡보란에 실린 기사이다. 이 글은 사인교를 타고 가던 한 고관이 그 앞을 지나던 한 백성에게 비키라고 박대를 하다가 그 백성에게 이 길은 나라의 길이라며 면박을 당하고 오히려 무안하여 사과하고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이 글 역시 사실적인 기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설정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옛 관습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법률의 합리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후에 또 한 번 유사하게 게재된다.

> 엇던 ᄒᆞᆫ 이젼 대신이 일젼에 ᄉᆞ인교를 타고 슈교 근쳐로 지내ᄂᆞᆫᄃᆡ ᄆᆞᆺ춤 엇더ᄒᆞᆫ 이

110) 『독립신문』, 1897.8.24, <잡보>

> 십셰 가량된 묘말 쇼년 션비 사ᄅᆞᆷ ᄒᆞ나이 그 대신의 ᄉᆞ인교 압ᄒᆞ로 지내 가거놀 그 대신의 하인이 ᄉᆞ인교 엽헤셔 ᄯᅡ라 오다가 그 쇼년 사ᄅᆞᆷ이 그 대신 압헤 무란히 범로 ᄒᆞᄂᆞᆫ것을 보고 이젼 풍쇽으로 벽뎨 ᄒᆞ며 에라 치여 셔거라 에라 빗겨 나거라 ᄒᆞ거놀 그 쇼년 사ᄅᆞᆷ이 그 대신의 ᄉᆞ인교 압ᄒᆞ로 더옥 갓가히 ᄃᆡ들며 그 대신의 셩ᄌᆞ와 일홈ᄌᆞ를 합 ᄒᆞ여 친구간 셩명 불으듯 불으면셔 ᄉᆞ톄와 도리를 말ᄒᆞ야 ᄇᆞᆰ히거놀 그 대신의 하인이 그 쇼년 사ᄅᆞᆷ을 잡으라 ᄒᆞᆫᄃᆡ 그 쇼년 사ᄅᆞᆷ의 말이 내가 잡히기를 도로혀 원 ᄒᆞ노라 내가 다힝이 지금 잡히거드면 대신과 변별ᄒᆞᆯ 말이 만히 잇다 ᄒᆞ고 더옥 들어셔며 죠곰도 국쵹 ᄒᆞᄂᆞᆫ 긔ᄉᆡᆨ이 업거놀 그 대신이 이에 그 하인을 만디 ᄒᆞ야 그 쇼년 사ᄅᆞᆷ의게 범슈치 못 ᄒᆞ게 ᄒᆞ며 ᄉᆞ인교를 돌니라 ᄒᆞ야 ᄌᆞ긔의 집으로 도로 가셔 그 ᄌᆞ리에 힝쟝을 다ᄉᆞ려 곳 ᄌᆞ긔의 실골 집으로 ᄯᅥ나 갓다고 ᄒᆞ니 참 그러 ᄒᆞᆫ지 우리ᄂᆞᆫ 알슈 업거니와 다ᄆᆞᆫ 드ᄅᆞᆫᄃᆡ로 긔ᄌᆡᄆᆞᆫ ᄒᆞ노라[111]

위 기사는 지난 호에 실렸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같지만 그 등장인물은 ‘고관’이 ‘이전 대신’으로 ‘백성’은 ‘이십 세 가량된 소년 선비’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대신과 소년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의 하인이 중간에서 소년과의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망신을 당한 대신은 단지 무안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행장을 차려 자신의 시골집으로 떠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조금도 국촉 하는 기색이 없거늘’과 같이 세부 묘사를 더욱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고, ‘참 그러한지 우리는 알 수 없거니와 다만 들은 대로 게재만 하노라’라고 말하며 사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서술자는 같은 이야기의 뼈대에 풍부한 세부 묘사를 더하고, 현실감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서사적인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만 들은 대로 전해 준다는 ‘전언’의 방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듯 당시 신문의 기사는 다양한 허구적 이야기가 개입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는 신문이라는 제도의 확립과 ‘전언’이라는 서술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관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또한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허구적인 이야기는 <서사적 논설>에서 더욱 확장된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이야기의 자질을 내포한 다양한 소문들을 보다

111) 『독립신문』, 1898.3.5, <잡보>

풍부하게 서술하고 있다. <논설>란에서 이러한 소문이 보다 서사적인 특성을 내포하였을 때 그것은 논설보다는 서사적 이야기에 가까웠고, 그러한 글들은 근대계몽기의 독특한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존재하였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일화 또는 전기, 그리고 대화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는데, 비록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당시의 현실 문제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서사적 논설>에 내재된 '소문'의 자질은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서 독자에게 제공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립신문』의 편집자는 신문이란 매체를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여기고 있었다. 편집자는 곧 『독립신문』을 대표하며, 무지한 독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신문은 언어·지리·역사·수학·병리학·생물학 등 다양한 지식과 올바른 관습과 예절, 새로운 법률 등을 포괄하는 교육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때 그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바로 신문, 즉 편집자였고, 독자 일반은 그러한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그러한 신문 내지는 편집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교육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주체는 <서사적 논설>에 등장하는 '외국 학문에 고명한 선비'[112], '유지한 선비'[113], '상목자'[114], '신씨'[115], '서울 사람'[116]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그 글을 쓴 '유지각한 투고자'가[117]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은 새로운 시대에 옳고 그른 삶의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로 형상화되었고, 실감의 차원에서 더욱 더 독자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

---

112) 「외국 학문에 고명ᄒᆞᆫ 선비 ᄒᆞ나이＊」, 『독립신문』, 1899.10.12.

113) 「대한에 유디ᄒᆞᆫ 션비 ᄒᆞ나이＊」, 『독립신문』, 1899.10.16.

114) 「시ᄉᆞ문답」, 『독립신문』, 1898.10.28~29.; 「엇던 친구의 편지」, 1898.11.24.; 「상목ᄌᆡ 문답」, 1898.12.2.

115) 「신구문답」, 『독립신문』, 1899.3.10.

116) 「경향문답」, 『독립신문』, 1899.5.10.

117)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에 글을＊」, 『독립신문』, 1898.2.5.;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가＊」, 1898.3.29.; 「상목ᄌᆡ 문답」, 1898.12.2.; 「ᄌᆞ미잇ᄂᆞᆫ 문답」, 1899.6.20.

결국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이야기의 가능성이 풍부한 '소문'을 일정한 정보로서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만을 다룬다는 『독립신문』의 취지에 모순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독자투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전언'의 방식은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가 허구적인 이야기를 논설 안에 담아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립신문』의 논설은 우선 정부와 백성 사이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여 '편당없이' 그 소식을 전하며, 그 편집자는 『독립신문』의 사의(社意)에 맞는 내용의 글을 쓰거나 투고자의 글을 대신 전달해 주고 있다. 각각의 논설들은 사회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며, 사의(社意)와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관리의 투고를 게재하거나, 백성의 투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실' 여부를 가리지 못한 상태에서 투고기사를 다룰 때에, 서술자는 단지 '어디에 사는' '누구의' 글을 전달해 준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기사의 게재에 정당성을 확보한다. 때에 따라서 <독자투고>는 '유지각한 친구', '유지각한 사람' 등 비실명 표현으로 기사를 게재하지만, 여기에서의 비실명 투고자는 이미 신문사에서 확인된 투고자로 인정받아 그 사실성 여부에 의심을 받지 않는다. 이 때 기자 내지 서술자는 단지 전언자의 역할을 취함으로써 투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기사 게재의 사실성을 입증받는다. 이러한 서술자는 실제로 독자의 투고를 받아 그것을 기사화하거나, 독자의 투고를 전달해 주는 입장을 취하며 그 안에 허구적인 이야기를 게재하기도 한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유독 이러한 <독자투고> 방식의 글이 많다. 이때의 서술자는 단지 투고자의 글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대신 전해주는 '전언자'의 역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서사적 논설>이 실제로 투고 받은 내용, 또는 실제로 들은 말이라는 것의 사실을 입증하는 방편이다. 그 내용은 물론 실제 있었던 사건의 취재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서사적 논설>은 편집자의 창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립신문』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내용의 사실성보다는 서술자가 직접 투고자의 글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방식은 내부의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계몽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서사적 논설>은 신문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구적인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논설 또는 잡보 기사보다 더욱 적극적인 계몽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3. 문답 · 토론식 구성의 효율성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총 30편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다양한 구성의 글쓰기 방식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8] 특히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문답 또는 토론식 구성의 글쓰기 방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19]

『독립신문』 소재 <서사적 논설> 30편 중 문답 · 토론식 구성은 19편으로 같은 시기 <서사적 논설>을 활용하고 있는 『죠선(대한)그리스도인 회보』, 『그리스도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등의 신문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립신문』은 이러한 문답 · 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물론 문답 · 토론식 구성은 이전의 문체론적 관습 안에서도 줄곧 활용되던 서사 기법중의 하나였지만, 이러한 특징은 『독립신문』의 편집자가 갖는 전통적 글쓰기와의 친연성만으로는 해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독립신문』은 문답 또는 토론식 구성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을까? 이러한 점은 『독립신문』의 매체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첫째, 『독립신문』은 일종의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답 · 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을 활용하고 있다.[120] 등장인물들이 문답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활용하는 기법은 신문 매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었

118) 김영민 · 구장률 · 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전집(상)』, 소명출판, 2003.

119) 정선태가 나눈 분류 기준에 따르면 문답식 · 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총 30편 중 19편으로 2/3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선태, 『개화기 신문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68~69쪽.

120)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문답식 글쓰기를 수용했고, 이 방법을 빌어 우월한 입장에서 독자들을 계몽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선태, 위의 책, 76쪽.

다. 이는 신문 매체가 교육적 효과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신문의 이러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 …ᄆᆞᆯ과 파리가 엇지 ᄒᆞ야 다르뇨 응당 이 뭇ᄂᆞᆫ 말을 우스리가 만히 잇슬듯 ᄒᆞ나 ᄆᆞᆯ과 파리가 다른 것을 ᄎᆞ셔 잇게 대답 ᄒᆞ시요 아히 ᄒᆞ나이 대답 ᄒᆞ되 ᄆᆞᆯ은 크고 파리ᄂᆞᆫ 작으니ᄭᆞ 다르다고 ᄒᆞ거ᄂᆞᆯ 우리가 말 ᄒᆞ되 그건 그러ᄒᆞ나 그림을 그리ᄂᆞᆫᄃᆡ 파리ᄂᆞᆫ ᄆᆞᆯᄆᆞᆫ큼 크게 그리고 ᄆᆞᆯ은 파리ᄆᆞᆫ큼 작도록 그려 놋흐라도 ᄆᆞᆯ과 파리가 다른줄을 알터이라 대쇼ᄂᆞᆫ 고샤 ᄒᆞ고 다른거시 ᄯᅩ 잇스니 그것시 무엇시뇨 ᄋᆞ히 말이 파리ᄂᆞᆫ ᄂᆞᆯ기가 잇고 ᄆᆞᆯ은 ᄂᆞᆯ기가 업쇼 올치 그 대답은 좀 낫다 그러면 파리에 ᄂᆞᆯ기를 베 버리면 ᄆᆞᆯ과 ᄀᆞᆺ겟나냐 아히 말이 그럿치 안쇼 그러면 무엇시 ᄯᅩ 다른거시 잇나냐 ᄋᆞ히 말이 ᄆᆞᆯ은 털이 잇고 파리ᄂᆞᆫ 털이 업쇼 그건 그럿치 아니 ᄒᆞᆫ거시 현미경을 ᄀᆞ지고 파리를 보거드면 파리 몸동이에 털이 잇ᄂᆞᆫ지라 ᄆᆞᆯ털 ᄀᆞᆺ치 국지니ᄂᆞᆫ 아니 ᄒᆞ나 털이 잇기ᄂᆞᆫ 잇ᄂᆞᆫ지라 그러 ᄒᆞᆫ즉 그 대답은 쟈미가 업다고 다음 ᄋᆞ히더러 뭇기를 네가 말을 ᄒᆞ여라 그 ᄋᆞ히 말이 파리ᄂᆞᆫ 다리가 여섯시고 ᄆᆞᆯ은 다리가 넷시요 그건 ᄆᆡ우 조흔 대답이다 그 외에 다른 일이 더 만히 잇스니 대답 ᄒᆞ여라 네가 능히 파리를 손 ᄀᆞ락으로 망ᄀᆡ지도록 ᄒᆞ겟나냐 ᄒᆞ고 말고 ᄆᆞᆼᄀᆡᆫ 후에ᄂᆞᆫ 남ᄂᆞᆫ거시 가쥭과 다리와 ᄂᆞᆯ기ᄲᅮᆫ리라 ᄆᆞᆯ도 이러케 ᄒᆞ겟나냐 우리가 힘이 능히 ᄆᆞᆯ을 이러케 못 ᄒᆞᆯ줄노 알거니와 셜령 ᄆᆞᆯ이 어ᄃᆡ셔 써러져 쥭을 디경이면 파리 모양으로 아모것도 아니 남고 다ᄆᆞᆫ 가쥭과 ᄂᆞᆯ기ᄆᆞᆫ 남겟나냐 아니요 엇지 ᄒᆞ야 아니냐 다름이 아니라 ᄆᆞᆯ은 ᄲᅧ가 잇서 ᄲᅧ가 단단ᄒᆞᆫ 고로 암ᄆᆞᆫ ᄒᆞ야도 파리 모양으로 망ᄀᆡ지지 안ᄂᆞᆫ거시라 그러 ᄒᆞᆫ즉 ᄆᆞᆯ과 파리가 대단히 다른거시 ᄆᆞᆯ은 벽ᄶᅡ구로 등걸이 되얏고 파리 몸에ᄂᆞᆫ ᄲᅧ른거시 ᄒᆞ나도 업ᄂᆞᆫ거시라…"[121]

위 예문은 『독립신문』에 논설란에 연재되었던 생물학 강의 중 한 부분인데, 이와 같은 생물학 강의는 1897년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연재되고 있다. 이러한 예문은 『독립신문』의 논설이 다양한 교육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위 글은 먼저 생물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뼈가 있는 동물과 뼈가 없는 동물을 구분하기 위해 말과 파리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논설이 선생과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선생은 교육을 베푸는 『독립신문』의 편집자이고, 아이들은 교육을 받

121) 『독립신문』, 1897.6.17, <논설>

는 독자와 같다. 『독립신문』은 생물학 강의를 통해 학문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선생으로, 『독립신문』의 독자는 그러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로 그려진다. 서술자는 독자에게 아이의 입장에서 쉽게 생물학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데,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통한 교육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재미의 요소를 부각시켜 일반적인 시사문제보다 적을지 모르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122] 결국 이러한 구성 방식은 효과적인 계몽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독립신문』 소재 <서사적 논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주로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서술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123] 이러한 방식의 <서사적 논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거나,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술자는 자신의 의도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적극적인 독자의 참여를 요구하게 된다.

『독립신문』에 실린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발화 상황을 통해 독자에게 구체적인 실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서술 방식이었다.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대부분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설정하고 있고, 그 대화의 내용 역시 동시대의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등장인물과 대화의 주제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뿐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의 배경은 모두 신문이 발간되던 그 당시의 조선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발화 상황의 설정은 그 대화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당시의 조선이라는 현실에서 등장인물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독립협회,[124] 만민

122) "우리가 몃놀 동안을 두고 ᄉᆡᆼ물학을 의론 ᄒᆞ야 혹 신문 보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쟈미 업시 이런 말들을 볼줄노들 알앗시나 우리 쥬의인즉 죠션 사ᄅᆞᆷ들이 무론 무ᄉᆞᆷ 일이고 실상을 무셔워 말고 쟈셔히 졍밀히 츄호라도 남기지 말고 보고 ᄉᆡᆼ각 ᄒᆞ도록 ᄒᆞ기를 ᄇᆞ라고 ᄉᆡᆼ물학 의론을 ᄒᆞᆫ것이라", 『독립신문』, 1897.7.24, <논설>

123) 정선태는 개화기 신문 논설에 나타난 서사-문학적 이야기들을 문답식, 토론식, 일화식 구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그는 문답 또는 토론식 구성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정선태, 앞의 책, 71~96쪽.

공동회,[125] 황성 찬양회[126]와 같은 시사적인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거나 일반적인 대한의 정세 또는 개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발화 상황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현실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당시의 정세를 좀더 쉽게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 제시와 수렴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대화의 과정을 독자들에게 가르쳐준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신문』에 실린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신문 매체가 갖는 교육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술 방식이다.

둘째, 『독립신문』에 실린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편집진의 보도 태도와 관련이 있다. 『독립신문』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하나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식은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독립신문』 소재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전대 문답체 방식의 서술과는 달리 서사적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등장인물들의 발화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서술자는 대부분 '전언'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신문』의 문답·토론식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자신이 직접 쓰는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그것을 간추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대신 전달해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자신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은 문답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글쓰기와도 변별되는 지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24) 「시스문답」, 『독립신문』, 1898.10.28~29.

125) 「병뎡의리」, 『독립신문』, 1898.11.23.; 「공동회에 디호 문답」, 1898.12.28.; 「힝셰 문답」, 1899.1.23.

126) 「엇던 친구의 편지」, 『독립신문』, 1898.11.24.

어졔 밤에 본샤 탐보원이 셔촌 흔 친구의 집에 갓더니 뭇춤 유지각흔 四五인이 안져셔 공동회 일졀노 슈작이 란만흔 것을 듯고 그 쭁요흔 것을 썝아셔 좌에 긔지 흐노라(「공동회에 디흔 문답」, 1898.12.28.)

일쳥 교전 이후에 쳥국 황뎨가 구폐를 쓸어바리고 식법을 시힝흐야 태셔 기화를 쳥국 十八싱에 전파흐고쟈 흐샤 기화 문견에 유식흔 션비들을 만히 모하 즁원 뎐디를 일신흐게 흐야 안으로 빅셩을 편안히 흐고 밧그로 의교를 친밀히 흐야 즁흥지업을 일우랴 흐시다가 불힝히 일이 쓧과 긋지 못흐야 간셰비가 외국을 빙자흐야 황뎨의 권셰를 쎅앗고 기화에 유의흐던 강유위 등 츙량흔 신하들을 빅반 모히흐야 몃히 젹공이 헛되이 되엿스니 쳥국을 위흐야 누가 기탄치 아니흐리요 그 기화당 즁에 흔 사룸이 친구와 문답흔 것을 본즉 자미가 잇기로 좌에 대강문 긔지흐노라(「쳥국 형편 문답」, 1899.1.11)

외국사룸이 대한 말을 겨오 통흐는 고로 그 문답에 우슈은 말이 만흐나 이샹흐기에 드른디로 긔지흐노라(「외국 사룸과 문답」, 1899.1.31.)

대한 사룸 흐나이 七八 년 전에 셔양 들어가셔 각항 학문을 만이 공부흐고 구미 각국에 유람흐다가 월젼에 본국으로 도라왓는디 그젼에 졀친흔 친구 흐나이 남촌에 사는지라 일젼에 그 집을 차져가셔 셔로 문답흔 말을 엇던 유지흔 친구가 젹어 보닉엿기로 좌에 대강문 긔지 흐노라(「ᄌ미잇는 문답」, 1899.6.20.)

엇더흔 외국 친구가 대한 사룸과 셔로 문답흔 말을 젹어 보닉엿는디 그 두 분의 말숨이 가히 들을만 흔고로 좌에 대강 긔지흐노라(「량인문답」, 1899.7.6.)

셔울 북촌 사는 엇던 친구 흐나이 어느 시골을 든여온 후에 즉시 본샤에 와셔 신문을 사가면셔 니야기 흐는 말을 드른즉 민오 ᄌ미 잇는 고로 좌에 대강 긔지흐야 경향 대쇼 인민을 경셩코져 흐노라(「셔울 북촌 사는 엇던 친구 흐나이*」, 1899.11.27.)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독립신문』 소재 <서사적 논설> 중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술자는 대화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화 상황은 동시대의 구체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삼으며, 뒤에 나올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또한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서술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그 안의 구체적인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계몽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인 등장인물들의 발화는 일방적인 서술자의 논설보다 독자에게 구체적인 실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고,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술자는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대한의 정세를 보여주거나[127], 서

127) 「일젼에 엇더흔 대흔 신ᄉ 흐나이*」, 『독립신문』, 1898.1.8.; 「외국 사룸과 문답」, 1899.1.31.; 「외

울을 지키는 일반 병정의 시선으로 만민공동회란 사건을 바라보며[128], 시골 사람과 서울 사람의 대화 과정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129]

이러한 특징은 <독자투고>에서도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잡보란의 <독자투고>는 주로 독자의 투고를 요약·서술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적 사건을 다루는 잡보란의 경우 그 서술은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의 요약은 일반적으로 그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사건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화 지문을 삽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듯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준다는 '전언'의 방식은 단순히 줄거리를 요약하는 평면적 구성보다 효율적인 구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예가 바로 등장인물들의 대화 지문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결국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독립신문』이 전제하는 매체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독립신문』의 주의는 문답·토론식 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립신문』은 그 당시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다만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에 현실감을 부여하며, 그러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독자에게 구체적인 실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계몽의 수단이었다. 기본적으로 『독립신문』의 논설은 주로 특정한 사건의 경과나 추이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직접적인 논평이 주가 된다. 잡보란의 경우 특정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자 하는 반면에, 논설란의 경우는 주로 편집자의 직접적인 발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독립신문』의 논설란은 <독자투고>나 <서사적 논설>과 같이 편집자의 직접적인 발화가 아닌 경우의 글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편집

양 죠흔 은궤」, 1899.6.9.; 「량인문답」, 1899.7.6.; 「대한 엇던 관인이＊」, 1899.10.26.

128) 「병뎡의리」, 『독립신문』, 1898.11.23.

129) 「횡셰 문답」, 『독립신문』, 1899.1.23.; 「경향문답」, 1899.5.10.; 「어느 시골 구친 ᄒᆞ나이＊」, 1899.11.2.

자는 '전언'의 방식을 통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독자들의 견해나 정론적인 논설이 아닌 글 또한 논설란에 게재할 수 있었다. '전언'의 방식은 서술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태도를 취하며, 소문을 유용한 정보로서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 방편이었다.

이처럼 문답·토론식 구성은 기본적으로 전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소문을 사실로서 전달하려는 의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등장인물의 발화를 보다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에서 『독립신문』의 편집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등장인물의 발화를 통해 대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등장인물의 발화를 재현할 때는 발화 주체를 명시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가 ᄀᆞᆯ아ᄃᆡ'와 같이 발화 주체를 지시하는 서술자는 일반적인 논설과 일화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보다 간접화된 서술자의 모습이다. 하지만 서술자는 발화 주체를 명시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심리적 묘사까지 서술하는 등 '있는 그대로'의 사건 전달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사건을 재현한다는 것은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등장인물의 발화를 투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130] 적어도 『독립신문』의 편집자는 이러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에서 서술자는 발화의 주체를 '문'과 '답'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기도 하고,[131] 발화주체와 발화를 기호로 나누어 표기하기도 하였다.[132]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한하고 등장인물의 발화를 있는 그대로

130) "'들은 대로 기록한다'는 기록자(전달자) 의식이 신문의 주된 사명이라는 발상에 기반하는 한, 전달자의 개입은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했다.", 류준필, 「근대 계몽기 신문 및 소설의 구어 재현 방식과 그 성격」, 『대동문화연구 제4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217쪽.

131) 이러한 방식은 「공동회에 ᄃᆡᄒᆞᆫ 문답」과 「청국 형편 문답」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앞 기사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문) 공동회를 파ᄒᆞᆫ 후에 시비가 분운ᄒᆞ야 혹은 공동회에셔 실슈를 만히 ᄒᆞ엿다 ᄒᆞ고 혹은 정부에셔 잘못ᄒᆞ엿다 ᄒᆞ니 누구의 말이 올흔지
(답) 대한 사ᄅᆞᆷ들은 몃百 년 압졔에 눌너셔 무엇이던지 정부가 ᄒᆞᄂᆞᆫ 일은 감히 평론 못ᄒᆞᄂᆞᆫ 것을 리치로 아ᄂᆞᆫ 고로", <공동회에 ᄃᆡᄒᆞᆫ 문답>, 『독립신문』, 1898.12.28.

132) 이러한 방식은 「횡셰 문답」, 「외국 사ᄅᆞᆷ과 문답」, 「신구 문답」, 「량인문답」에서 찾을 수 있는데, 「횡셰 문답」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대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결국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만을 말하고자 하는 『독립신문』의 주의는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등장인물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서술 방식을 통해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계몽을 수행할 수 있었다.

결국 『독립신문』이 다른 신문 매체에 비해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한 편집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편집자는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실의 실감나는 이야기의 전달을 위해서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을 활용하고 있다. 편집자는 서술자의 위치에서 단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입장을 취하며, 해설과 논평을 축소시키고 등장인물의 발화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렇듯 문답·토론식 <서사적 논설>은 '전언'의 태도를 극대화시키고, '칭찬' 또는 '징계'가 되는 등장인물의 언표들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글쓰기였다. 결국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독립신문』의 매체적인 속성을 유지하며 당면한 구체적인 현실을 서사적 이야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서술 방식이었다.

"셔울 사롬 (그러 이 치운듸 긱고가 엇던가
시골 ᄉᆞ롬 (아 긱고도 긱고려니와 시셰가 다 틀녓네 그려
셔울 (무ᄉᆞᆫ 시셰란 말인가
시골 (아 갑갑ᄒᆞᆫ 사롬일세 그랴도 이젼에는 셰도도 잇고 셰의도 보고 아니 그리ᄒᆞ엿나 지금은 아모것도 업네 그려 기화인가 무엇인가 ᄭᅡ닭에 우리 ᄀᆞᆺᄒᆞᆫ 시골놈은 셔울 와셔 밥 ᄒᆞᆫ 술 공히 먹을 슈가 업네 그려 하 긔가 막혀셔", 「힝셰 문답」, 『독립신문』, 1899.1.23.

Ⅳ. 결론

19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꽤 많은 양의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한국근대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텍스트의 지평을 넓히고, 철저한 자료의 고증을 통해 대상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복원해 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 매체의 특성과 <독자투고>라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연구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자 했다.

신문 매체의 탄생은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신문 매체에 실린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은 전통적인 서사 양식을 신문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담아낸 문학적 글쓰기이다. 이 신문이라는 새로운 인쇄 매체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글쓰기의 형식 및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은 신문이라는 매체의 속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전통적 글쓰기의 자질들이 신문이란 지면에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특색 있게 드러내고 있는 근대계몽기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를 그 대상으로 삼아, 신문 매체의 특성이 이 시기 글쓰기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근대계몽기의 문학적 양식인 <서사적 논설>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독립신문』은 『한성순보』와 그것의 속간 형태인 『한성주보』와는 달리 '조선 전국의 인민'을 대상으로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었다. 문자를 매개로 하는 이전의 의사소통은 일반 백성에까지 널리 확대되지 못할 뿐더러 상의하달(上意下達)의 일방적 의사소통형태였다. 하지만 『독립신문』은 상하귀천이 없는 '조선 전국의 인민'을 독자로 설정하고, 정부와 백성, 독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독립신문』의 이러한 목표는 무엇보다 한글전용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계층적 구분이 없고, '조선 전국의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독자의 기원은 바로 이 무렵부터 형성된다.

또한『독립신문』은 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당시의 사정에서, 신문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독립신문』은 광고와 논설은 물론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 신문의 기능과 효과를 인식시키고, 중립성·객관성·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로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독립신문』은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고, 다양한 계몽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독립신문』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만을 말하는 매체로서의 기반을 획득하고, 의사소통의 중개자의 위치에서 '조선 전국의 인민'을 향한 발화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독자투고>는『독립신문』이 대상으로 한 독자, 즉 상하귀천이 없는 '조선 전국의 인민'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일반 독자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독자들의 구체적인 사건을 전달하는 더욱 효과적인 계몽 전달의 방식이었다. 또한 <독자투고>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신문 매체의 글쓰기에서 서술자의 태도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독립신문』의 기사는 주로 '소문(所聞)'의 차원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때 '소문'은 사실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들리는 바' 그대로의 이야기였다. 이렇게『독립신문』이 다루는 이야기가 단지 '소문'의 차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독자투고>이다. 당시의 기사 취재 여건에서 <독자투고>는 그것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하나의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독립신문』은 매체로서의 사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립적·객관적인 태도를 더욱 부각시키며 <독자투고>를 서술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준다는 '전언'의 방식은 이 시기 기사 취재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이 시기 신문 매체의 중요한 존립 근거였다. 따라서『독립신문』은 <독자투고>를 통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조선 전국의 '소문'을 전달하며, 투고자의 구체적인 '소문'은 '칭찬' 또는 '징계'가 되는 사례로서 제시되어 효과적인 계몽적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소문'을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 유통시키는 과정에는 무엇보다 서술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독자투고>의 서술자는 기본적으로『독립신문』편집자

의 성격을 온전히 가지며, 『독립신문』의 입장과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독자투고>의 서술자는 이야기의 외부에서 투고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언'의 태도를 취하며, 그 구조는 '서술자의 발화-투고 내용', '투고 내용-서술자의 발화', '서술자의 발화-투고 내용-서술자의 발화'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독자투고>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줌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인 방식으로 독자를 계몽할 수 있었고, 투고된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달할 경우에는 단순히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대화 지문을 활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구성을 취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독립신문』의 매체적인 특성과 <독자투고>라는 글쓰기 방식은 이 시기의 중요한 문학적 양식인 <서사적 논설>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독립신문』 소재 <서사적 논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이야기로 나뉜다.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허구적인 이야기의 작가이기 전에 신문이라는 매체의 성격을 강하게 담보하는 편집자이자 기자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자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전제로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사적 논설>을 논설란 안에 게재할 수 있었다. <서사적 논설>은 주로 '서술자의 발화-내부의 이야기', '내부의 이야기-서술자의 발화', '서술자의 발화-내부의 이야기-서술자의 발화'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독자투고>와도 같은 형태의 구조이다. 이러한 액자식 구조에서 서술자는 중심 서사의 외부에서 사건의 도입 또는 마무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때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대신 전달해 준다는 '전언'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글쓰기는 서술자가 발화 내용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 속에 담아내는 방식이다.

둘째,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신뢰할 수 있는 서술자의 위상을 통해 '소문'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독립신문』의 기사는 <독자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문'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독자투고>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서술 태도를 확보하여 '소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 것처럼 <서사적 논설> 역시 이러한 서술자의 위상을 통해 서사적인 이야기를 '칭찬' 또는 '징계'가 되는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 유통시키고 있다. 실제로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엇던 유지각흔 친구의 글에 좌에 긔지하노라'와 같이 <독자투고>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에는 문답・토론식 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신문의 매체적 속성을 유지하며 당면한 구체적인 현실을 서사적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서술 방식이었다.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은 서술자가 의도하는 바를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서사 방식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독자투고>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독자투고>는 신문의 논설란이 교육적 효과를 위해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 서술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하나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등장인물의 발화를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문답・토론식 구성의 <서사적 논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독립신문』의 <서사적 논설>은 편집자의 일방적인 발화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논설과는 달리 서사·문학적 특성을 가진 글이다. 또한 일반적인 논설과는 달리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 매체의 논설란에서 서사·문학적 글쓰기가 쓰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서술자의 역할이 컸다. <서사적 논설>의 서술자는 서사적 이야기의 작가이기 이전에 신문 매체의 특성을 갖는 편집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서술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자 했고, '전언'의 방식은 <서사적 논설>의 허구적인 요소까지도 논설란 안에 포섭하는 중요한 형식적 장치가 되었다. <독자투고>는 '전언'의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쓰기 방식이며, <서사적 논설>의 양식적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결국 본 논문은 <서사적 논설>이라는 근대계몽기의 독특한 문학 양식의 기반을 문학 외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후 근대소설의 서술자가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화된 서술 시점을 확보하는 과정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독립신문』

김영민・구장률・이유미 편,『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하, 소명, 2003.

박영섭,『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1(독립신문편)』, 서광학술자료사, 1994.

<2> 국내 논저

고미숙,「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족문학사연구 14□, 1999.

고미숙,『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공용배,「논설 분석을 통해서 본 《독립신문》의 역할과 성격」,『언론과 사회 제14권』, 1996.

구장률,「『제국신문』의 <서사적 논설> 연구」,『현대문학의 연구 22』, 2004.

권보드래,『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권보드래, □한국 근대의 '소설'범주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2000.

권영민,『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식,『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 1999.

김민화,『동아시아의 근대신문 지체요인』, 나남, 1999.

김영민,「근대계몽기 단형(短型) 서사문학 자료 연구」,『현대소설연구17』, 2002.

김영민,「근대계몽기 신문의 문체와 한글 소설의 정착 과정」,『현대문학의 연구 22』, 2004.

김영민,「동서양 근대 소설의 발생과 그 특질 비교 연구 : '소설(novel)'과 '小說(소셜/쇼셜)'의 거리」,『현대문학의 연구 21』, 2003.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 발생 과정 연구-조선후기 야담과 개화기 문학 양식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7』, 2000.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김영민, 「한국문학사의 근대와 근대성」, 『20세기 한국문학의 반성과 쟁점』, 소명, 1999.

김유원, 『100년뒤에 다시읽는 독립신문』, 경인문화사, 1999.

김윤규, 『개화기 단형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김재영, 「근대계몽기 소설 개념의 변화」, 『현대문학의 연구 22』, 2004.

김정기, 박동숙 외, 『매스미디어와 수용자』,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김창현, 『한일 소설 형성사』, 책세상, 2002.

김형중, 『애국계몽기의 신문 연재소설』, 한국문화사, 2001.

류준필, 「근대 계몽기 신문 및 소설의 구어 재현 방식과 그 성격」, 『대동문화연구 제44집』, 2003.

사에구사 도시카쓰,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 누」의 경우」,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문학□, 국학자료원. 2001.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 박사, 1996.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5.

송병기 역, 『국역 윤치호 일기 1』,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신용하, 정진석 외, 『서재필과 그 시대』, 서재필기념회, 2003.

신지영, 『『대한민보』 연재소설의 담론적 특성과 수사학적 배치』, 연세대 석사, 2003.

심재기, 『국어 문체 변천사』, 집문당, 1999.

양세라, 「개화기 서사양식에 내재된 연극적 유희성」, 『현대문학의 연구 22』, 2004.

이상철, 『커뮤니케이션 발달사』, 일지사, 1982.

이유미, 「근대계몽기 '短篇小說'의 위상」, 『현대문학의 연구 22』, 2004.

이응호,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성청사, 1975.

이재선, 『한국 개화기 소설연구』, 일조각, 1972.

이홍식, 「한국어 어미 '-더라'와 소설의 발달」, 『텍스트언어학 14』, 2003.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 1999.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9.
정진석 편저, 『독립신문・서재필 문헌해제』, 나남, 1996.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2001.
조정래・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2.
조현범, 『문명과 야만』, 책세상, 2002.
채 백,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3호』, 1994.
채 백, 「《독립신문》 잡보의 내용 및 보도방식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5호』, 1995.
채 백, 『신문』, 대원사, 2003.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천정환, 『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2002.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한원영, 『한국개화기 신문연재소설연구』, 일지사, 1990.
한원영, 『한국신문 한세기』, 푸른사상, 2002.
홍정선, 『근대시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독자층의 역할 연구』, 서울대 박사, 1992.
황호덕, 『한국 근대 형성기의 문장 배치와 국문 담론』, 성균관대 박사, 2002.

<3> 국외 논저

Jeremy Hawthorn, 『STUDYING THE NOVEL』,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마샬 맥루한 지음, 박정규 옮김,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시모어 채트먼 지음,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0.
우림걸 지음, 『한국 개화기 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위르겐 하버마스,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이효덕 지음,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 2002.
진필상 지음, 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contributions of *The Independent* in enlightenment period
– focused on the relationship with narrative editorial

Bae, Jung Sang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short narrative literature in the newspapers of the enlightenment period was a literary writing which incorporated traditional narrative forms into the new media, the newspaper. To study the short narrative literature at that time, it is needed to focus on the diverse experiments about forms in the newspaper. So the aim of the thesis, by making *The Independent* the main text, to show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ependent* as a medium influenced the way of writing in that era. Especially, concentrating on the contributions as a way of writing, I will focus mainly on the process by which newspaper transformed rumor into information. Also, through the narrators of the contributions, I will reveal how the narrators of newspapers during these time deployed story. It could provide another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he enlightenment period

narrative editorial.

The narrative editorial in *The Independent* has a literary narrative characteristic. Also, the narrative editorial wanted to show writer's intention through a concrete event.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editorial could distinguish itself from the traditional editorial which had consisted of one-way speech of editor. Even so, because the narrators played a major role in making narrative editorial, it was made possible for narrative literary writing to be written in the editorial. A narrator of the narrative editorial had a characteristic of an editor of the newspaper prior to a writer of a narrative story. So the narrator wanted to say facts objectively and indifferently. Transmission of statement was an important formal device which could include the fictional element of the narrative editorial into the editorial. Contributions is the way of writing which most revealed the way of transmission of statement, and is the important basis to manifest formal characteristic of narrative editorial.

---

key words : *The Independent*, the contributions, narrative editorial, media, narrator, transmission of statement, rumor, information